금주 법구

타인의 과실을 찾아내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번뇌를 증대시킨다.
그는 번뇌의 소멸에서 멀어져 있다.

-법구경-

봉사하는 불교 실상선원 02)745-8503
011)285-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상선원 전북사 041)734-2680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현대불교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10월 3일 수요일(주간) 제 337 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소박하고 뜻 있는 진산식

새 주지가 처음으로 소임을 맡은 절에 들어가는 것을 진산(晋山)이라 하며, 이 때 행하는 의식을 진산식 또는 입사식(入寺式)이라 한다. 즉 나아갈 '진(進)'의 의미를 가진 진산식은 사찰의 운영과 여러 사무를 관장하는 주지 스님이 사중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런데 어느 때 부터인가 진산식은 새로 소임을 맡은 주지 스님의 명성과 법력에 걸맞게 지역의 스님들과 유지들을 대거 초청한 가운데 장엄스럽게 거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포교의 일환으로 사격(寺格)에 맞는 행사를 가질 필요성도 있지만, 일회성 행사에 많은 정재가 소요되고 사찰에 회환 등이 쇄도하는 등 일반 세속의 취임식 장면과 별반 다름이 없어 '불교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교구 본사와 주요 사찰이 주지 진산식을 갖지 않는 대신 신도와 주민들이 함께 하는, 차분하고 뜻 깊은 법회를 열어 신도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스님다운 진산식을 펼치는 주인공들은 바로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신임 주지인 평상 스님과 염불만일도량으로 유명한 금강산 건봉사의 주지 영도 스님.

평상 스님은 지난 9월 23일 일요법회에서의 법문으로 주지 진산식을 대체했다. 그러자 소임자 스님들과 신도들이 '스님의 뜻은 참으로 존경스럽지만, 너무 서운하다'며 10일 관음재일에 맞춰 교구 말사 스님들과 신도회 임원들의 상견례만을 갖자고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평상 스님은 종무원들에게 이것마저 절대로 외부에 알리지 말라며 신신당부하고 있다고 한다.

건봉사 주지 영도스님은 진산식을 갖지 않는 대신 염불만일도량에 걸맞게 21일 오전 9시 30분 '청화스님 초청 국운융창 기원 호국 영령영가 천도대



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20일 저녁부터는 염불만일회 회원 등 사부대중 1500여명이 참석해 염불삼매로 철야정진 한다.

건봉사 원주 철현스님은 "주지 스님이 개인적인 진산식 보다는 지역발전과 포교, 유주무주 고혼들을 천도하는 행사를 열 것을 지시해 신도들도 신심으로 동참하겠다고 연락이 오고있다"고 말했다.

수행자다운 검소한 진산식이 더욱 늘어나길 기원해 본다.

김재경(취재 1부 기자)

장 군 죽 비

◇일부 개신교인들 문화재관람료 징수반대로 종교간 불화 부채질. '지나친 신앙심은 도둑의 증거'라는 속담을 생각하게 한다. (3면)

◇조계종 환경위원회 · 불교환경연대 봄영사, 울진 왕피천 속사댐 반대 위한 정진(?) 돌입, 자비와 순리로 환경운동의 새 장 열기를…. (11면)

◇굶주림을 벗어나니 비만이라는 산이 기다리고, 비만을 넘어서니 오염된 먹을거리가 식탁을 차지하고 있다. 무얼 먹을 것인가? (15면)

◇'NGO 강원' 〈참여불교 아카데미〉 설립된다. 한국불교의 중흥을 쟁기질할 인재 배출과 대안 생산의 장으로 성장하기를…. (23면)

조계종 스님 20명 中 국빈 방문

8~12일, "한·중 불교교류 획기적 전기" … 정대 스님 불학원서 법문

한 · 중 불교교류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비롯한 20명의 조계종대표단이 중국정부의 공식초청으로 8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

조계종대표단은 8일 중국 종교국 엽소문 국장과 양국 문화 우호협력에 대해 환담하며, 9일에는 중국불교협회 도슬인 부회장등 관계자들과 한중 불교교류에 대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방문기간중 정대 스님과 장쩌민 주석이나 주룽지 총리와의 면담이 성사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대 스님은 10일 중국 지도자스님들을 양성하는 불학원에서 학인들에게 법문도 한다.

조계종 대표단의 중국방문은 1992년 한 중 수교이후 진행돼온, 양국의 불교우호차원에서의 교류를 넘어 중국정부와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라는데 그 의미가 깊다.

그런만큼 이번 방문단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비롯한 종회의장 지하, 호계원장 월서, 전 종회의장 법등, 전 포교원장 정련스님 등 집행부와 중진스님들이 망라돼 있다.

이번 중국정부의 공식초청은 중국이 최근들어 활발해진 '한국불교배우기'를 더욱 본격화하겠다는 의지의 구체적 표현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불교전래 2000년을 맞는 중국이 문화혁명이후 사라진 불교문화를 복원하기 위해 문화성 중국종교학회 산하에 한국불교문화중심을 설립하고, 중국불교와 가장 가까운 한국불교를 모델로 삼아 전통을 부활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올해 들어 중국정부는 전통불교 중흥을 위해 중국문화예술 인터넷 종교문화사이트에 '한국불교문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각종 한국불교 교리학습반과 불교문화강습반도 운영중이다. 또 중국대중이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범위에서 한국불교 서예, 미술, 사진, 시, 논문 등을 번역 출판하고, '한국불교문화' 전문잡지도 출간했다.

중국 종교국 산하 한국불교문화중심 하공송 대표는 "중국정부는 중국 전통불교와 가장 가까운 한국불교를 역수입하여 불교중흥을 모색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국불교에 중국에서 사라진 전통 선불교가 살아있다'며 적극적인 전통 잇기에 나선 중국정부는 지난해 한중일 대회에서 중국불교협회를 통해 정대스님 초청 입장을 전달했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情 나누는 한가위 동국대 여학생부(실장 이혜은)는 추석을 4일 앞둔 9월27일 여학생실에서 '송편배우기 및 사랑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중국 일본 등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과 스님들이 함께한 이날 행사에서 정성들여 빚은 송편은 서울 중구 일대 독거노인 및 불우가정 65세대에 전달됐다. 사진=고영배 기자

개신교 "문화재 관람료 징수 반대"

목사 등 2백명 협의회 결성 … 조계종 '신중 반응'

개신교계가 9월21일 '국립공원 사찰문화재관람료 부당징수반대협의회'를 결성하는 등 사찰 문화재관람료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 교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개신교계의 관람료 반대운동이 자칫 본질을 벗어나 종교간의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사찰문화재관람료 부당징수반대협의회(대표 신현균목사, 이하 관람료반대협)'는 9월 21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사찰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위한 1천만 범국민 서명운동과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관람료 반대협은 결성에 대한 취지 설명을 통해 △관람료 징수는 법적근거가 없다 △일괄징수는 관람자의 의사 무시 △관람료 징수주체가 국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3면

관람료 반대협 실무간사 이승우 목사는 "사찰관람료 폐지는 시민 권리침해 차원이기에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폐지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키로 하는 한편 전문가 자문 등 신중한 대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원우 기자

다음주 신문 추석연휴로 12면 발행
지역에 따라 신문보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국외유출 문화재 조사 등 문화재 보존정비 강화

내년 문화예산 1조 3452억

내년부터 해외유출문화재를 비롯하여 국가 및 지방문화재 보존정비가 강화된다.

문화관광부는 9월 25일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4% 증가한 1조3천 452억원을 편성하고, 국회 예산심의에 상정했다.

문화관광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 지정 문화재의 보존 정비 강화의 경우 지난해 1,198억원에 비해 200여억원이 늘어난 총 1400백 15억원이 편성됐다. 이중에는 석조문화재 보존관리 3억, 목조문화재 방충 방연 8억, 건조물 문화재관리 4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또 전통문화학교건립 48억, 문화재 지리정보체계구축 4억,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5억, 20개국 7만5000여점에 산재한 국외 유출문화재 일제히 조사에 4억이 책정됐다.

김원우 기자

중국 하남성 · 산시성 불교유적 순례

선불교의 뿌리를 찾아서

현대불교는 중국 선불교의 맥을 직접 느끼고자 '중국 불교문화기행'을 기획해 하남성 지방의 고도 정주, 낙양, 등봉을 비롯해 혜초, 원측 스님 등 신라 고승들의 발자취가 스며 있는 산시성 서안의 불교 유적을 찾아갑니다.



◇진시왕릉 병마용.

중국 무술영화의 무대로 더욱 잘 알려진 소림사에서는 인도의 고승 보리달마가 9년간 면벽좌선을 통해 중국 선불교를 진작시켰던 역사의 흔적과 무술시범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 3대 석굴중의 하나인 용문석굴에서 10만 여 불상들을 참배하게 되면 엄청난 규모에 저절로 탄성이 쏟아질 것입니다. 중국 최초(68년)의 사찰인 백마사에서는 원나라때 만들어진 중국의 국보 18나한상을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시성 서안에서는 진시왕릉인 병마용을 비롯해 부처님 진신지골사리가 모셔진 법문사와 중국 역사상 최고의 미인으로 꼽히는 양귀비의 자취가 어린 화청지 등을 둘러보게 됩니다. 또 북경에서는 천안문과 이화원, 만리장성 등도 답사합니다.

만리장성 · 소림사 · 용문석굴 · 법문사 · 병마용

◇일정: 10월22일(월)~10월27일(토) 5박6일
◇참가비: 95만원(포함내역: 공항세, 비자비/ 단 여권수속비는 별도)
◇접수및문의: (02)333-8091(담당: 김지훈, 윤지영)
◇접수기간: 10월6일(토)까지(여권 소지자는 1주일 연장 가능)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출발시간과 집합 장소는 추후 공고합니다.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 관 : 아주세계여행사
●후 원 : 중국하남여유집단유한공사

현대불교와 하나은행이 제휴한 불자신용카드

부다피아 하나카드 발급개시

【 부처님과 불법의 삼보정재 표정이 찍히지 않습니다
국제 불자단체만 발행되는 불교특화 카드입니다
소멸 불수록 복덕나눔 보시금만 이롭게 불교발전의 원력으로 적립됩니다 】

하나은행 www.hanabank.co.kr
현대불교신문사 www.buddhapia.com

하나은행비자카드 특전+재물보시!

부다피아하나카드엔 특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 보시금은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접수 된 카드등급 부분에 준해서 적용되며(은행이나 기타 카드대리점 제외)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발급 받은 부다피아 카드로 6개월 이내에 현금서비스를 포함하여 5만원 이상의 사용 실적이 있을 경우 7000원이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 연꽃마을, 소박세마을,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은 복지 단체에 제공됩니다 ● 군법당, 교도소, 병원 등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필요한 곳에 법보시용으로도 쓰입니다
● 결식아동돕기 등 아동 재활을 위한 기금으로 쓰입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관리 됩니다.
● 현대불교신문은 불자여러분이 보여주시는 보시행의 참 뜻을 받들기 기금운영 상황을 현대불교신문 지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 관리합니다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주유할인 서비스(S-OiL)
무료보험 서비스 – 휴일 상해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항공상해보험, 행소나안심보험
롯데월드 무료입장 서비스
스피드카드론



초기 연회비 면제

■ 접수 및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카드사업단 / 대표 : 02) 6678-1115~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5동 908번지 현대월드타워 1115호



사 설

종교적 아집의 '관람료 반대'

독일의 종교학자 바크(J.Wach)는 "모든 종교를 알아야만 비로소 하나의 종교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현재 각자가 신봉하고 있는 종교의 교리를 스스로는 자기끼리만 통하는 진리가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통하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믿고 싶겠지만 사실상 그것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고 다른 종교의 사상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세계의 지성들과 함께 우리 나라에서도 변선환 목사나 강원룡 목사 등이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종교간의 큰 갈등을 유발한 적 없는 평화의 나라 이 땅에서 좋지 못한 조짐이 하나 둘 생겨나 뜻 있는 이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우리 나라의 국조 단군상을 부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원주 경찰서 경승실에 부처님 모시는 것을 시비하고, 기독교 모임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귀한 문화유산인 사찰 문화재의 유지와 보수에 필요한 관람료를 받지 못하게 나서겠다니 과연 이들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알다시피 한국의 전통사찰은 관광명소뿐이 아니다. 역대 조사스님들과 불자들이 신명을 바쳐 지켜온 불교수행처이며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전통문화의 산실이기도 하다. 현재 남아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60%이상이 불교문화재인 것은 불교가 민족사적 사명을 가지고 지켜왔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전통 사찰과 불교문화재는 불자 뿐 아니라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그 보존과 관리가 잘 되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도외시하고 종교적 아집과 잘못된 정보에 사로 잡혀 종교간 갈등을 유발하는 일부 기독교인들은 민주화시대의 올바른 시민의 자격이 없으며, 평화와 안녕을 위해 앞장서야할 종교인이 반목과 갈등을 조장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종교인이라 할 수 없다. 다종교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종교간 화합을 위해서는 다른 종교에 대한 인정과 이해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상설 행자교육원 설립 시급

조계종 제20기 행자교육이 9월 26일 직지사에서 회향, 234명의 새로운 출가 수행자가 탄생하였다. 기초교육을 통한 승가의 위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1991년 행자교육원을 개설, 10년에 걸쳐 4,697명을 배출하여 젊은 승가로써 한국 불교의 기초적 근간을 이루어가고 있다. 10년을 돌아보며 그 성과면에서 평가해 본다면 개 사찰에서 무질서하게 진행되었던 행자교육이 체계화되어 그 기틀이 다져지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3주라는 짧은 교육기간이지만 정예화되고 일정의 교육과 고시를 통한 기초교육을 상향 평준화했으나 10년을 맞으면서 무엇보다도 상설 행자교육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본다. 지난 10년 간 꾸준히 희망하고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미결 상태이며, 지금처럼 일시적 빌려쓰기식 행자교육원의 개설은 불안전한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은 직지사를 비롯해 통도사, 송광사 정도다. 이 중에도 시설이 부족하여 매번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상설행자교육원이 설립되면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교육 기간도 자연 늘릴수 있다. 적어도 행자교육기간이 출가사찰 및 본사에서 6개월, 행자교육원에서의 6개월로 1년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견해다. 적어도 종교성직자는 의례와 습의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한다. 현재 3주간의 짧은 교육기간으로 의례, 습의, 기초교학 등을 습득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교육 내용도 체계를 세워야 한다. 기초교육 기간 내에 예비승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율과 불교 기초교학의 교육이 실천수행과 관련되어 한층 내실 있는 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교육을 준비하느라 교육원 관계자가 동분서주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설행자교육원의 설립은 승가교육을 제 1 목표로 하는 제 1차적 종단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교수사와 습의사의 전문성을 갖춘 교육 및 연구인력의 양성과 확보도 시급한 과제다. 불교의 미래는 초발심하여 출가하는 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절감한다면 상설행자교육원 설립은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행자-강원-교직자 교육 일원화

조계종 제4기 교육원 위원회 발족

조계종 제4기 교육원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교육원은 교육원 위원회 교육위원장에 지오스님(해인사 강주), 역경위원장에 혜남스님(승가대학원장)을 새로 임명하는 등 교재편찬위원장 무관스님(법계사 주지 · 유임)을 비롯한 3인 위원장에 위원회별로 각 9인씩 모두 27명의 교육원위원회 위원을 확정하고 9월27일 오전 총무원 1층 강당에서 제4기 교육원 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에 출범한 4기 교육원 위원회는 지난 3기까지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것과는 달리 종단의 모든 교육문제를 총괄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지금까지 행자교육위원회, 강원확장회의, 전국교직자회의 등 각 기관별로 종단 교육현안이 논의되고 심의되던 체계에서 교육원 위원회가 이들 3개 기관의 역할을 총체적으로 아우르게 됨으로써 종단 교육행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교육위원회는 2002년도까지 교육 및 수행체계 정립, 교육기관 신 · 증설, 승랍별 교육목표 및 과정 수립 등 그동안 과제로 남아있던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교재편찬위원회는 서장 등 사집교재 검인정, 화엄경 본문 교재 검인정, 치문 및 사교과목 검인정 원칙 수립, 기초교육교재 개편 및 검인정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 또 역경위원회는 불학총서 제6권 간행, 역경 현황 진단 및 방향 모색, 역경진흥사업 추진, 역경지원사업 다변화 등의 과제를 풀어나가게 된다.

교육원 박용규 교육과장은 "지금까지는 행자교육위원회 등 각 기관별 시스템 확립에 주력하다보니 교육원 위원회에 힘이 실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원 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할 경우 종단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교육원은 이날 오후 교육원 회의실에서 교육원 회의를 열고 승랍별 연수체계 마련, 기본교육기관 정비 등 2002년도 사업을 심의하는 한편 2001학년도 국내외 장학승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승은 서울대 1명, 동국대 15명 등 국내 16명과, 일본 6명 미국 5명 등 국외 18명을 합쳐 모두 34명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봉은사 禪의 정수 임제록 강설

봉은사 봉은학림은 9월24일부터 28일까지 봉은사 법왕루에서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스님을 강사로 초빙, 임제록 강좌를 열었다. 이번 임제록 강좌에는 5일간 1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봉은학림은 99년부터 화엄경 입법계품, 지장경, 달마혈맥론 등의 강좌를 진행해왔다.

봉선사-의정부 사암련 북한산도로 대책위 출범

상임대표에 지섭스님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와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 조계종 사회부, 불교환경연대, 의정부 운전불자회 등 불교단체들은 9월 26일 의정부포교원에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와 대안노선 건설 및 사찰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불교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봉선사 부주지 각원스님과 의정부시사암연합회 회장 지섭스님(상임대표 · 관련 인터뷰 4면)을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반대 서명운동, 서울외곽고속순환도로의 대안노선 채택을 위한 결의대회, 건설교통부 장관 및 국회건설교통위, 환경노동위 의원 면담 등의 북한산국립공원 및 사찰수행환경 보전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서울외곽고속순환도로와 관련 민주당 이호웅 의원과 이미경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 조한천 의원(연등회 이사)도 한국도로공사와 건교부를 상대로 한 국감질의에서 '북한산 관통도로 재고하라'는 강도 높은 반대입장을 밝히고 북한산 관통노선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조계종 20기 행자교육원 234명 수계

조계종 제 20기 행자교육원이 9월26일 직지사에서 회향됐다. (관련기사3면)

원로의원 녹원스님, 교육원장 무비스님, 행자교육원장 법성스님(직지사 주지), 습의사, 교수사 등 행자교육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향식에서는 남행자 133명 여행자 101명 등 모두 234명의 행자가 교육을 수료하고 사미(니)계를 받았다.

이날 수계를 받은 행자들은 지난 9월4일부터 3주간 일정으로 부처님 생애, 42장경, 기초교리, 작법, 사미율의 등 9개 과목에 대한 교과과정과 특강, 일보일배, 삼천배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한명우 기자

中信會 11월17일 대의원 총회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9월20일 중앙신도회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할 제3차 대의원총회 일정을 11월17일로 확정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장에 정인악 부회장을 선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또 이달 17일까지 대의원 명부를 확정하고, 31일부터 11월2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 등의 일정도 확정했다.

한명우 기자

교육부장 도현스님 불학연구소장 능허스님

조계종 부 · 국장 인사



조계종 교육원과 포교원 실무부 · 국장 인사가 9월26 · 27일 단행됐다.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스님은 9월27일 교육부장에 도현스님(사진)을 임명했다. 도현스님은 해인사 승가대를 졸업하고 중앙승가대 사무처장과 도감사주지를 거쳐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또 불학연구소장에는 능허스님, 연수국장에 보경스님(송광사 총무), 사무국장에 희경스님이 각각 임명됐으며, 연수국장이었던 선암스님은 교육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불학연구소장 능허스님은 예천용문사 주지와 교육원 교재편찬위원회 위원을 거쳐 현재 범어사 승가대 강사를 맡고 있다.

이에 앞서 포교원장 도영스님은 26일 포교연구실장에 정호스님(오산시 불교연합회 회장), 포교국장에 용하스님(중화사 주지) 신도국장에 효림스님(전 호법부 조사과장), 포교연구실 사무국장에 홍승스님(대구불교대학 문화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한명우 기자

종범스님 승가대총장 복귀

학교조기정상화 기대

지난 7월 총장직을 사임하고 물러났던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이 복귀한다.

종범스님은 9월25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만나 총장직 복귀의사를 밝힌데 이어, 27일 중앙승가대를 방문하고 추석이 지난 10월8일부터 정상 출근키로 했다. 이로써 중앙승가대는 학교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정대스님과 종범스님의 면담에 배석했던 중앙승가대 교학처장 정묵스님에 따르면 정대스님은 "학교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 스님이 계셔야 차근차근 남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고, 또 학교 구성원들도 스님의 복귀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며 총장직에 복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종범스님은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종범스님은 28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학교로 돌아와 달라는 학인들의 청을 뿌리칠 수가 없어 복귀를 결심했다"며 "학교 현안문제는 복귀해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 합리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의 한 관계자는 "총장스님이 복귀함으로써 학교 위상이나 자율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그러나 학교가 동문, 교수, 종단, 학인의 입장이 종합돼 운영되는 만큼 제반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명우 기자

대한불교 삼 론 종

제 2세 종정 석파당 건석봉 대종사 추대법회

귀의 삼보 하옵고 대한불교 삼론종 제2세 종정 추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 하고져 합니다.
교계 원로 대덕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께서는 수희 동참 하시어 법석을 더욱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고 문** : 각화대종사 혜공대종사 진지마대종사
■ **자문위원** : 신수 향운 대안 대운 택봉 태관 자연 만해 오봉 법원 법진 지운 진봉 청봉 정봉 법진 대심 혜각 청허 지혜 선우 지해 지경 지겸
■ **봉행위원장** : 석혜승
■ **집행위원장** : 석혜광
■ **봉 행 위 원** : 도경 지원 허부 달봉 혜안 도연 서하 법작 지향 일선 보현 지율 지공 도희 혜광 도경 현우 성운 신수 덕암 성도 원보 월산 도우 법혜 팔봉 법선 운봉 혜관 해명 보은 법륜 지인 대운 지연 성관 희봉 도심 혜명 운봉 대안 우담 지암 혜원 혜명 혜인 혜수 혜연 무봉 해각 성심 묘진 지법 도광 광연 일화 지동 성도 지호 혜정 의룡 혜월 성관 보연 성월 혜초 일행 보현 용선 청일 청호 지옹 설운 성호 보명 성인 법인 태봉 벽담 지봉 문곡 청월 월타 법화 장복 법관 태서 치법 혜초 옥광 원각 혜인 혜각 보원 혜장 성각 성현 해월 혜초 해인 명재 지학 지심 응진 석운 향담 정각 경수 벽파 토암 무상 다솔 성담 법연 법신 성아 달봉 제호 석봉 의택 의천 의교 지원 법신 지호 해운 지형 법진 지암 해마 지월 성휘 보현 성각 지성 지관 혜성 원화 지후 법성 법준 지성 원명 정각 혜임 의송 지장 무성 묘심 덕운 역일 원담 법원 지공 연혜 지화 지명 의탄 의학 지호 해담 지선일화 행도 혜정 해불 혜월 태관 인봉 덕송 의환 혜일 해동 기산 법진 지산 선우 정현 청담 지낙 의광 묘연화 지혜장 법장화 배사옥 자운행 보덕화 공덕행 평등원 보리심 자비행 자비심 법전화 무량각 대덕화 묘지심 보현화 선덕행 자비심 대명화 관음행 자비행 보운행 보현행 대덕화 보리심 진무상 보현심 진여심 김봉성 강행열 이태호 권영희 이광용 김미숙 곽정웅 신상철 이의표 안명자 김순옥 유동호 조은천 박미숙 조월해 (무순)

■ **일 시** : 불기2545 (서기2001)년 10월 14일 (음력 8월 28일) 일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화의리 289번지 / 부석사
■ **연락처** : 02) 433-9780 (총무원) · 033) 333-7682 (부석사)

목어

정의 그리고 자유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군사작전 명칭을 '무한정의' 에서 '항구적 자유' 로 바꾸었다 한다. 일부 이슬람 학자들의 '무한정의란 알라신만이 구현할 수 있다' 는 주장에 '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가 명칭 변경 이유다.

피 터지게 싸우게 되는 전쟁에 명칭이 무슨 영향을 주겠냐만 그나마 '정의' 란 단어를 비켜 간 것이 약간은 다행스러워 보인다.

인도신화에서 아수라는 원래 선한 신으로 정의(正義)를 위해 싸웠다. 그래서 '정의의 신' 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런데 그 정의에 너무 집착한 탓인지 아니면 정의를 구실로만 삼았던 탓인지 그가 만든 세상은 그만 '아수라장' 이 되고 말았다. 결국 선한 신의 세계에 편입되지 못하고 추방되어 마신(魔神)쪽으로 분류되고 만다. 불교에서는 그 아수라의 경지를 육도 가운데 인간의 바로 아래 서열로 만들어 놓았다. 그나마 지옥, 아귀, 축생보다 한 단계 높아 인간에게 보다 가깝다. '정의' 에 대한 지나친 집착만 버린다면 아수라도 인간 반열에 들 수 있는 것이다.

'평화' 역시 마찬가지다. 체코의 하벨 대통령 말을 빌리면 이렇다.

'평화라는 말은 평화를 방어한다는 구실 아래 사실상 무력을 의미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단어들, 평화 정의 등도 그 말을 쓰는 사람, 또는 그 집단, 사회의 진실성 여부에 따라 이처럼 양면성을 띄게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항구적 자유' 의 그 '자유' 는 어떤가.

불교에서의 자유는 탐 진 치 삼독의 지배를 받고있는 가당찮은 자아(自我)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근,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자유' 의 의미와는 글쎄, 그 맛이 좀 다르지 않은가.

'항구적 자유' 를 위한 전쟁이 혹, 강자들의 자유공간만을 확대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기를 부처님께 기도 드린다.

김 정 자(언론인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오해서 빚어진 억지… 종교갈등 우려"

'개신교 관람료 반대' 무엇이 문제

개신교계가 9월 21일 '국립공원 사찰문화재관람료 부당징수반대협의회(이하 '관람료 반대협)' 을 구성하고 앞으로 사찰 관람료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한 것에 대해 조계종 등 불교계의 반응은 한마디로 개신교계의 주장이 ' 오해에서 빚어진 억지' 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개신교계는 9월 21일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립공원 사찰문화재 관람료 부당징수반대협의회' 를 결성했다.(사진제공=불교 정보센터)

"경내지는 사유재산 – 문화재 보존지역"
"징수 타당성 모른채 외형만 봐"

사찰문화재관람료 반대협 실무간사 이승우목사는 "기존 69개 사찰이 관람료를 징수받는 것은 문화재 보호법 위반이고 전통사찰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람료를 받아 사용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는 주장을 펴는 등 개신교계는 사찰 관람료를 받는 것이 부당하며 불교계에 주는 특혜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

사찰문화재가 국립공원 안에 있다는 이유로 예외 없이 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사찰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다는 개신교측의 주장에 대해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인 이병인교수(밀양대)는 "개신교계의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모른 채 외형만 본데서 나온 오해다"며 "원래부터 문화재 관람료는 국립공원 입장료와는 별개의 것이고 공원입장료가 나중에 징수되면서 통합된 것이다" 고 밝혔다. 이 교수는 "사찰 경내지를 공유지로 생각하고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특혜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더구나 문화재관람료의 총 수입은 문화재 보수에 드는 비용의 50%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보호법 제39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행정지침' 과 '3자간 합의' 에 의해 관람료를 받고 있으므로 관람료 징수는 부당행위이고 법적근거가 없다는 개신교계의 주장에 대해 배금자 변호사는 "사찰경내지를 담장이 처진 곳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경내지를 사찰담장 안으로만 생각하고 있기에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내지는 분명히 사유재산이며 문화재보존지역이다"고 말했다. 또 배변호사는 "현재 참여연대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수의 주체가 국가이어야 한다는 개신교계의 주장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보유자 관리단체가 받아야 한다' 는 문화재보호법을 오히려 위반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고 문화재 유지보수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조계종의 입장임에도 개신교계는 조계종이 입장료와 관람료 징수를 원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재 관람료를 사찰의 수입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개신교계의 주장은 전반적인 사실파악이 미약한 가운데 대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조계종이 재판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개신교계의 이번 행동이 정당한 의도를 가진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개신교계가 국립공원 사찰문화재관람료 부당징수반대협의회까지 결성해 관람료반대운동에 나선 것에 대해 다른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가 현재 항소중인 상황에서 개신교계가 정확한 사정도 모르면서 종교 갈등을 유발시킬 소지를 안고 있는 미묘한 사안을 끄집어 낸것은 현재 개신교계가 추진 중인 '교회재산관리법' 을 관철시키기 위해 문화재관람료문제를 끌어들인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가 지난해 5월 천은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문화재관람료) 반환청구소송에서 서울지법은 지난 2월 2일 "사찰관람료는 부당이득금이 아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조계종은 사찰의 범위는 경내지 까지 포함된 것이며 따라서 입장객의 주관적 의사와 상관없이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사찰을 관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승가교육체계 기틀 다졌다"

조계종 행자교육원 10년

9월26일 직지사에서 회향한 조계종 제20기 행자교육원은 91년 행자교육원이 처음 시작된 이래 꼭 10년째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의미가 깊다. 특히 10년의 성과 못지않게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행자교육원이 이룬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도 무질서하게 진행돼왔던 행자교육의 틀을 바로 잡고, 승가교육 체계의 기틀을 다진 데 있다. 지금까지 남행자 2500여명, 여행자 2200여명 등 모두 4700여명의 행자를 배출, 승가의 질을 높이고 승가위계를 확립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또한 승가의 기초 ·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및 재교육의 디딤돌 역할을 함으로써 95년 교육원이 출범하면서 종단 승가교육 개혁 작업을 이끄는데 버팀목이 됐다. 이달말 시행되는 3급 승가고시의 대상자들이 바로 91년 제1기 행자교육원을 수료했던 승랍 10년째 되는 스님들이라는 점에서, 3급 승가고시 또한 행자교육원의 결실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교육원은 아직도 많은 숙제를 남겨놓고 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상설 행자교육원 설치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상설 교육장을 마련하지

상설교육원 설치
교육과정 조정 '과제'

못함으로써 교육의 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도 습의 교육과 예식 위주로 이루어지는 등 형식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교수진의 안정적인 교과연구와 다양한 교과과정 설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지적받아 왔다.

행자교육의 체계 및 기간을 조정하는 것도 과제다. 현재 행자교육은 입산사찰에서 5개월 교육 및 수행을 마치고 행자교육원에서 3주간 교육을 받는 것으로, 6개월 기간으로 짜여 있다. 그러나 입산사찰이나 본사의 소집교육은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3주간의 행자교육원 교육도 너무 짧아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원 관계자뿐만 아니라 교계 전문가들은 행자교육 체계와 기간을 출가사찰 및 본사에서 6개월, 행자교육원에서 6개월로 하는 등 교육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밖에 계율과 기본습의와 예식 위주의 현재 교과목도 재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불교의 기초교학이나 수행과 관련한 교과편성이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교재개선 및 편찬도 필수적이다.

또한 행자교육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사와 습의사의 전문성 및 연구력 확보도 시급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범어사 주지선출 언제쯤

원로 – 소임스님간 입장차 여전

성오 스님 사표제출 안해
"늦어도 11월 중순 마무리"

범어사의 차기 주지 선출이 세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24일 범어사 운영위원회와 종무협의회는 연석회의를 열고 산중 현안에 대한 돌파구 모색에 들어갔다.

당초 20일에 열리기로 했던 문중총회가 유회되면서 후보단일화를 통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기대됐던 차기 주지 선출 건이 또 다시 늦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 이후 범어사는 실추된 명예 회복보다는 차기 주지직 다툼의 양상을 보이며 공방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재보수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으로 구성되었던 종무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임시집행부가 사표를 제출하는 등 종무를 정상화 하자는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종무위원장 흥교 스님은 "늦어도 10월 10일까지는 문중총회나 산중총회 일자를 확정하겠다"며 "그동안 대화의 창구가 없었던 원로스님들과도 대화를 통해 단시일 내에 현안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흥교 스님의 말대로라면 늦어도 11월 중순경에는 범어사 차기 주지 선출이 마무리 된다는 수순이다.

이 같은 결정은 원로 스님과 현 집행부간의 갈등처럼 표출돼 온 범어사내 문제를 화합과 대화로 풀어보려는 노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범어사의 위계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어른의 뜻에 따라야 한다' 고 주장해온 원로스님 측과 '종헌 종법상의 절차' 를 강조해온 현 집행부간의 입장차를 좁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원로스님들이 주지로 지목한 대성 스님과 현 임시 집행부 부주지인 영환 스님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성오 스님은 총무원에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주지사퇴의 사를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만큼 차기 주지 선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범어사는 화합 승가의 본연으로 돌아가 차기 주지선출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기 전에 차기 주지 선출을 마무리해 선찰대본산의 위상을 되찾는 일만을 남겨놓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訃 告

梵魚寺 禪德 碧坡大禪師
九月 二六日(陰 八月 十日) 午後 九時 三十分
於梵魚寺 休休精舍 入寂 玆以訃告

■永訣日時 : 불기 2545년 9월 29일(陰 8월 13일) 오전 10시
■永訣式場 : 梵魚寺 普濟樓
■茶 毘 場 : 梵魚寺 茶毘場

禪德 碧坡堂 東州 大禪師 門徒葬 葬儀委員長

證 明 : 혜암 서옹 서암 월하 고산 녹원 능가 대정 덕명 도원 도원 도천 동춘 법전 보성 석주 성수 숭산 우룡 원담 원명 이두 정관 정천 종산 지관 지백 지유 지종 지혜 진제 천운 청화 화엄 활안
顧 問 : 정대 백운 무진장 양익 지원 월주 월성 혜정 법룡 법정 선용 창도 초우 설조 성파 향운 오현 도영 일원 월탄
葬儀委員長 : 흥교
葬儀副委員長 : 성현 선래 여현 몽산 혜관 덕민 무비 조연
護 喪 : 지하
葬儀委員 : 각명 각우 거해 경륜 경선 경암 계성 계전 고우 공마 관조 광진 광탄 근일 금정 금종 기현 길상 능허 다정 담연 대각 대성 덕륜·덕수 도광 도권 도근 도민 도배 도법 도봉 도성 도업 도우 도원 도현 도형 도후 동광 마근 만성 만송 명선 명원 명정 무공 무근 무설 무여 무착 밀운 반월 방두 백련 범일 법등 법륜 법성 법의 법장 법조 법진 법타 법현 법회 보광 보광 보선 보암 보일 봉주 삼우 상경 상운 상현 선과 선재 선효 설정 설파 성곤 성덕 성우 성우 성주 성조 성타 세민 수진 승원 양국 양산 여환 영규 영진 영환 오본 용학 우담 우송 원감 원경 원두 원명 원산 원순 원우 원웅 원정 원정 원칙 원타 원택 원형 월탄 월파 유정 의룡 인각 인걸 일면 일미 일수 일오 일출 일호 자용 자우 장산 장선 적명 정각 정광 정락 정련 정명 정암 정진 정찬 조연 종걸 종고 종산 종선 종학 종환 종훈 중원 지명 지상 지선 지안 지욱 지운 지원 지원 지정 지해 지환 지흥 진관 진명 진월 진허 천제 철우 청강 춘광 통광 평상 항명 한탑 해공 향국 현고 현기 현묵 현문 현봉 현산 현전 현지 현진 현해 현호 혜관 혜광 혜국 혜권 혜남 혜능 혜산 혜성 혜운 혜원 혜일 혜총 호연 홍선 흥원 화남 화랑 효경 효림 효원 휴정 경륜 계효 광조 근일 대원 도각 도공 도문 도완 도후 동응묵 명진 몽산 무이 법종 법등 법보 법성 법안 본각 석호 설송 성각 성관 성광 성오 세영 수완 수현 여연 영담 영배 영조 운담 원담 원명 원우 원타 원행 월우 유광 인묵 일법 자승 장곡 장운 장적 장주 정념 정우 정인 정휴 종림 종삼 종상 종하 지광 지광 지욱 지운 지하 지현 지형 지홍 진각 진만 진원 청화 탄우 태공 태봉 학담 향적 현각 현응 혜정 혜주 혜창 화범 류진주 송석구 강선태 박수관 백대일심 김영웅 범어사신도회 금정산신도회 여여선원신도회

執行委員長 : 성오
都 監 : 지연 범산 석공
知 賓 : 정야 지종 도관
侍 者 : 석산 외 강원대중
恩 上 佐 : 정여 정현 정암 정묵 정허 정목 정일 정오 상현 상래 상범 정근 상우
法 上 佐 : 정만 정범
孫 上 佐 : 도경 도립 도성 도곤 도산 도웅 도일 도연 도명 도우 효산 효경 원성

■문의 및 연락처 : ☎(051)508-3122~7, 508-2636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범어사

禪刹大本山 金井山 梵魚寺
禪德 碧坡堂 東州 大禪師 門徒葬 葬儀委員會

일주문



악사사 대웅보전 낙성

인왕 한국불교 여래종 종정 스님은 14일 오전 11시 약사사에서 대웅보전 낙성식 및 삼존불 점안식을 봉행한다.



중앙연수 교육

남정 총화종 총무원장 스님은 12일 오후 4시 총본산 수진사 대법당에서 '제19회 중앙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종묘서 문화재 애호활동

현성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 스님은 9월 23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문화재 애호 활동' 행사를 펼쳤다.



법장 스님 초청법회

법산 동국대 정각원장 스님은 9일 오후 4시 동국대 정각원에서 수덕사 주지 법장 스님을 초청해 고승법회를 연다.



복지프로그램 사례 발표

혜총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장은 5일 부산 양정 청소년 수련관에서 '2001 사회복지프로그램 사례 발표회'를 연다.



불우이웃 성금 전달

도원 부산 삼광사 주지는 9월 25일 법화삼매당에서 불우이웃 90명에게 10만원씩 총 9백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남구노인회관 관장 취임

종선 울산 내원암 주지는 24일 불교계 위탁운영시설인 울산 남구노인복지회관 제2대 관장으로 취임했다.



어린이 전래놀이 행사

지현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은 9월 23일 해운대 송림공원에서 '제6회 선재 어린이 전래놀이' 행사를 가졌다.



대학총장협 회장에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9월 21일 열린 한국대학총장협회 이사회에서 제3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대각사서 '법구경' 특강

송위지 한국외국어대 인문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7일 오후 7시30분 종로 3가 대각사에서 〈법구경〉 특강을 한다.

"템플 스테이 긍정검토"

정대 스님 - 남궁진 문화장관 환담

남궁진 신임 문화관광부장관이 9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을 예방했다. 남궁진 장관은 "지난번 방북단 문제가 있었을 때 원장스님께서 국민화합의 디딤돌이 되어주셨다"며 "원장스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고, 불교계를 위해 성의를 다해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대스님은 "문화관광부가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인 만큼 불교계를 많이 도와 달라"며 "불교계에서 추진중인 템플 스테이사업은 우리 전통문화를 소개할 뿐 아니라 숙박난을 해소하고 월드컵의 문화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단큼 긍정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함께 배석한 포교원장 도영스님도 남궁진 장관에게 템플스테이 건의서를 전달하며 "월드컵 기간 중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위해 전통사찰을 개방하여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숙박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템플 스테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남궁진 문화부장관과 조계종 정대 스님이 환담하고 있다.

남궁진 장관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문화관광부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정성을 다해서 검토 하겠다"고 회답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수도권 시민 휴식처 보호 마땅"

북한산 관통로 대책위 상임대표 지섭 스님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문제는 조계종과 관음종을 비롯한 불교종단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불교단체와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해야만 정부도 불합리한 노선을 포기하고 대안노선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와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가 9월 26일 의정부포교원에서 공동 출범시킨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와 대안노선 건설 및 사찰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불교대책위원회'의 상임대표로 선출된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지섭스님(흥법사 주지)은 '서울의 허파'에 구멍을 뚫는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노선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정신적 휴식처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북한산은 조선 개국이래 서울의 중심을 지켜온 어머니와 같은 산입니다. 대기오염이 극심한 수도권에 맑은 공기를 제공해 주는 북한산에 터널을 뚫고 8차선 고속도로를 놓는 것은 사찰의 수행환경 훼손을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섭스님은 "도로공사는 불교계와 시민환경단체가 제안한 대안노선이 길어 산림훼손이 많다고 하나, 그 지역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야산으로 산림훼손 면적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서 "도봉산, 수락산 등 녹지자연 등급이 높고 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과 야산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현 노선은 의정부 일대의 교통정체를 더욱 악화시키고 외곽순환고속도로의 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다"는 지섭스님은 "지금 비용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서울의 자랑인 국립공원을 보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경제적이고 자랑스런 선택"이라며 정부의 노선변경을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현무도 수련 참선과 비슷"

삼랑축제서 시연 문경욱 씨



"전등사가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해 여는 삼랑성 역사 문화축제에서 벽사진경(辟邪進慶)차원에서 현무도를 시연하게 되어 매우 뿌듯합니다."

우리나라 고대서부터 내려온 전통 기(氣)무예 '현무도(玄武道)'의 유일한 전수자로 알려진 중산(中山) 문경욱 씨는 오는 12~14일 열리는 삼랑성 역사 문화 축제에서 삿된 기운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움을 한껏 받아들인다는 차원에서 현무도를 선보인다.

문 씨에 따르면 현무도는 수련방법이 참선수련과 비슷하다. 현무도는 자연과 인간, 몸과 마음을 하나로 생각하여 그 합일된 조화를 무예의 근본으로 삼아 인간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수련이기 때문이다. 수련을 통해 몸과 마음의 합일을 추구하기에 단순한 동작이 아닌, 심법(心法)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문 씨는 스스로 불연(佛緣)이 깊다고 말한다. 자주 절에 다니며 스님들과의 교분을 쌓고 있다는 것.

문경욱 씨는 인사동에 현무도원을 열어 현무도의 대중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02)722-7094

이경숙 기자

"회원불심 반석처럼 다질터"

철도청 본청 불자회 정동진 초대회장



"철도청불교협의회 산하 조직들이 해당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반석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9월 22일 철도청 본청 불자회 창립법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정동진(철도청 기획본부장) 씨.

정 회장은 철불협 산하 불자회의 법회 형태와 운영의 어려움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는 현황이 파악이 되면, 지역 회원의 활동에 능동적인 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자회 내에서만 끝나는 신행이 아닌 봉사 활동이나 환경 보호와 같은 외부적인 신행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는 정 회장의 지론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당초 철불협은 이번 법회를 계기로 연합회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었으나, 무리한 개편 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과정에서, 연합회 결성에 앞서 가칭 '연합회 준비운영위'를 설치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이던 고모 슬하에서 자라 전남 함평 보광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정동진 회장은 "서원했던 불자회가 창립된 만큼 불자회 활성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월간 '등불' 창간 20주년 축제

통도사(주지 현문)는 9월 23일 설법전에서 월간 〈등불〉 발행 20주년을 기념하는 등불 축제를 거행했다.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행사는 법회에 이어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마련됐다. 현문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중포교 매체로서 〈등불〉이 더욱 발전해 불교포교의 중심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0회 행원문화상 시상식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윤)은 9월 24일 복지법인 승가원 2층 회의실에서 제10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을 봉행했다. 동국역경원장 월운스님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시상식에서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각성스님이 역경상을, 무형문화제 제48호 단청장 석정스님이 예술상을, 故 이성선 시인이 문학상을 수상했다.



종교연합선도기구 정기포럼

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대표 진월 스님)는 9월 24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종단협의회 사무국장 법현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가톨릭대 박일영 교수는 발제논문을 통해 "국내에서 진행될 종교간 대화는 빈부 차별을 소멸하고 사상 차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원종복지관 '장애우 나들이' 행사

부천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9월 22일 장애우 가족과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참석한 '장애우 나들이'를 실시했다.

이번 나들이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과 경복궁의 근정전, 경회루, 교대전 등을 관람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복궁 관람에는 겨레문화답사연합의 우리궁궐지킴이들이 참여, 장애우들의 안내를 도맡았다.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雪山玉佛
釋迦世尊께서成道하신
雪山玉石으로造成한圓滿
慈悲하시고透徹智慧가
具足하신無上圓滿聖像
이시다
二五四五年二月二十一日
小禪 西翁謹書

■ 추천서



■ 고불총림 방장 시웅 큰스님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 864-8834~6 / FAX : 02) 839-2185 인터넷 : www.korea buddha .co.kr

우리 모임에선

서경교사불자회 4돌

서울·경기지역 교사불자회는 9월22일 조계사에서 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40여 불자 교사들이 참여한 이날 조계사 상임법사 연담 스님의 법문과 서경지역 교사불자회 활동 경과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서경지역 교사불자회는 이호영(은행고등학교 교사) 씨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석불선양회 천안답사

한국석불선양회는 14일 오전 7시 30분 충남 천안 풍세 삼태리 마애불을 친견하는 순례를 갖는다. 삼태리 마애불은 고려 때 조성된 것으로 크기가 7.4m에 달한다. 한편 선양회는 태화산 광덕사에서 108배 참선예불도 올린다.

산악인련 법인추진

전국산악인연합회는 9월8일 대전 천지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사와 단위 산악회장 40여 명이 동참한 임시총회에서는 11월 4일 봉도사에서 총재 취임식과 창립 4주년기념법회 개최를 결의했다. 또한 사단법인 등록 등 산악회 발전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약사보리회 무료투약

불자약사보리회는 9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종로3가 종묘공원 일대에서 무의탁 노인과 노숙자들의 건강을 상담하고 무료투약을 실시했다. 한편 불자약사보리회는 소식지 5호를 발간했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공무원불자련 해인사서 창립 1돌 기념법회

직장불자회 '신행모델' 급부상

1년만에 산하단체 104개로 늘어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섭, 이하 공불련)는 6~7일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6일 오후 8시 공불련 산하 104개 불자회 2천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될 기념법회는 7일 오후 1시까지 해인승가대의 운동장에 설치된 특설무대에서 니르바나 실내악단, 정율스님, 정태춘 씨의 축하무대와 철야정진, 암자순례, 기념법회, 반야심경 경판 정대불사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법회에는 '송광사 제2회 합동순례법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대의원과 운영위원회 선출 및 조직운영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공불련은 3개월간 제작에 몰두했던 '공무원불자연합회 홈페이지'의 시연회를 열고, 상징마크 및 뱃지 제정과 불자회 기관지 발행 등의 사업에 대한 여론도 수렴할 예정이다.

공무원 불자회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단체는 광역시, 도청, 시청, 구청 등의 행정직 공무원불자회. 현재 전국적으로 104개 불자회가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창립 당시 47개 불자회와 비교해 2.5배가 늘어난 것이다.

최근까지도 전남도청, 경남도청, 순천시청, 해남군청, 장흥군청 등에 불자회가 연이어 창립되고 있어, 공불련이 증가일로에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중앙부처 공무원 불자회의 구성은 각 지방행정직 공무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 출장이 잦은 감사원 불자회의 경우, 도청이나 시청, 군청 등을 방문할 때 '불자회 유무'를 확인하고, 없을 경우 불자 공무원을 물색해 불자회 창립을 지원해 좋은 결과를 낳고 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지난해 10월7일 월정사에서 개최한 창립법회 모습.

이러한 양적 증가와 함께, 각 불자회에서 회원들이 경전을 공부하고 정기적으로 사찰을 방문해 사찰 예절을 익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도 공불련의 발전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노옥섭 회장은 "공불련은 지난 1년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참된 공무원이 되고자 노력했다"며 "이제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포교와 신행활동 외에도 지역갈등극복, 환경운동 등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함으로써 올바른 불자 공무원상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718전투경찰대 불교회.

전경 불교회 첫 탄생

서울 718경찰대…회장 김영택씨

전투경찰대로서는 첫 불교회가 창립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중앙경비대 소속 718전투경찰대 불교회(회장 김영택, 서울지방청 경감)가 9월 19일 중앙정부청사에서 경승 적문(금륜정사 주지) 스님, 포교사단 김진홍 특별위원장, 718전경대원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한 것.

회장은 "아직 법당도 마련되지 않은 열악한 조건이지만 전투경찰대내에 불교회가 생기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며 "전·의경이 엄격한 군 생활에서 오는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전·의경에 대한 포교가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718전경대불교회 창립은 전국 250여 경찰서 전·의경들의 불교신행에 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추후 전·의경대 불교회 창립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종욱 기자

20년만에 달리는 '철마불심'

철불협 본청법우회 대전청사서 창립식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이하 철불협)가 20여 년 간의 숙원사업인 본청 법우회를 창립하고 제2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철불협이 9월 22일 대전 정부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무사고를 기원하는 연합법회를 봉행하는 자리에서 본청 법우회를 창립시켰다.

본청 법우회(회장 정동진)는 "철도청 안팎에서의 원활한 신행 활동을 위해, 철도청 주요 사업을 결정하는 본청 내에 법우회가 필요하다"는 철불협 소속 회원들의 의견이 모여, 3개월간의 준비과정 끝에 결성됐다.

이에 따라 철도청 기획본부장인 정동진 초대회장을 비롯해 철도청 내 이사관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본청 법우회는 앞으로 전국 역사에서의 불교 신행활동의 폭을 넓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78년 대전차량사무소 법우회를 시작으로 각 지역의 철도인들은 법우회를 결성하고 불심을 키워왔지만, 서로 고립된 채 진행되는 활동으로는 신행 및 포교의 폭을 확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99년 철불협을 결성하고 철도청 안팎에서의 활동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철불협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철도청 내 법우회의 신행활동에 탄탄한 반석의 구실을 다하지 못했다. 풍경소리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비의 말씀 게시판 설치' 건만 보더라도, 철도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 5~6개월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철불협은 "고위직 철도청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본청 법우회의 결성이 시급 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3개월간 사내 인트라넷을 이용해, 철도인 불자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 성과를 낳았다. 철불협 정찬연 사무국장은 "본청 법우회는 철도청 시설을 활용한 포교 사업에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합법회에는 강원도 동해역, 전라남도 목포역 등 전국 역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우회 회원 400여 명이 참석,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의 법어와 공무원불자연합회 노옥섭 회장의 축사 등으로 법회를 봉행했다.

오종욱 기자

전남도청 불자회 창립

지도법사 천운스님

지난 4월 전라남도 불교계의 중심축 역할을 서원하며 준비 모임을 가진 전남도청 불자회(회장 박재순, 기획관리과장)가 27일 오후 6시 30분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준비 모임 이후 회원 모집, 회칙 마련, 지도법사로 천운스님(향림사 조실)을 추대하는 등 5개월 만에 일궈낸 성과다.

△회장단 △회칙 △활동방향 등이 논의된 이날 창립법회에서 전남도청 불자회 회원들은 정기법회와 성지순례, 기초교육 등의 신행활동 외에도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행사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전라남도 소속 22개 시·군에 불자회가 결성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도 세웠다.



◇9월27일 창립법회를 봉행한 전남도청불자회 회원들이 천운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다.

박 회장은 "전남도청 산하 조직에 불자회를 결성하고, 이를 모아 연합법회를 봉행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라며 "그 과정이 지나면, 경남도청 산하 불자회와 결연해 서로의 활동을 돕고 합동으로 순례법회와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게시판

알림

▲충북예비역불자련 홈페이지 오픈=충북지역예비역불자연합회가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주소는 bubsung.com

▲무료안과진료=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안과진료를 실시한다. 매월 둘째주 월요일 삼성동 미래안과에서 진행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무료, 일반인은 50%감면 혜택을 준다. (02)2280-1100

강좌

▲빨리불교대학 학사예비과정=스리랑카 국립 빨리불교대학 한국캠퍼스는 '학사예비과정'을 개설한다. 3학기(1년 6개월) 과정의 이수자는 국내외 4년제 정규 불교대학 학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051)631-6641

모집

▲장애아 주간보호 도우미=부산 공창종합사회복지관은 발달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는 매주 월~금요일 중 가능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051)363-2067

▲한글 교육 도우미=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어르신 한글 교육을 도울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는 한글교실이 열리는 매주 화, 목요일 실시된다. (02)852-0525

▲장애인 정보교육 희망자=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정보화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 워드프로세서 자격증반, OS과정반, PCT준비반 고급OA반을 운영한다. (02)989-4215

▲도배용품 후원자=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독거노인 도배서비스를 위한 후원품을 모집한다. 후원품은 도배지, 풀, 도배용구 등. (02)2203-3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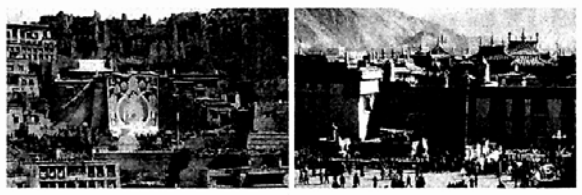
▲스쿠터 대여=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60세 이상 장애인 및 노약자를 대상으로 스쿠터를 대여해 준다. 1회 대여시 1~3일 사용가능하다. (02)929-7950

▲소림기공 수강생=성남 분당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노약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소림기공 강좌를 마련, 수강생을 모집한다. (031)716-4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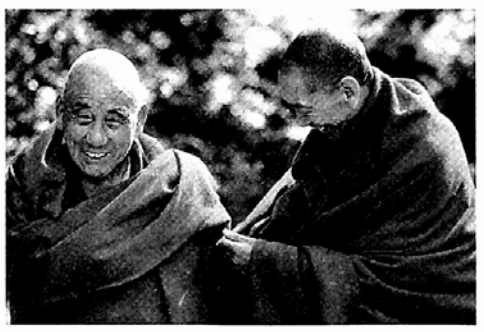
▲어린이 발레교실 수강생=자양사회복지관은 어린이 체력 단련과 유연성 강화에 도움이 될 어린이 발레교실을 연다. (02)458-1664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세이 아바타
부처님과 큰 스승들의 말씀, 그 찬란한 환희의 빛-
21세기 최첨단 의식공학 프로그램으로 음미해 보십시다.
지금 당신을 자아탐사 여행을 통한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실질적이고 임지만 강력한 프로그램. 아봐타- 체험해 보십시요.
세이아봐타 02) 782-00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리버파크 911호
www.sayavatar.com

티베트 성지순례 노하우 - 국내 1위



티베트 성지순례



놓치지 마십시오!
본 여행사의 노하우를 모두 담았습니다

제1일(10/21)	오후 7시 45분 인천공항 출발, 중국 성도공항 도착 후 성도호텔 1박	
제2일 (10/22)	성도공항출발 후 티베트 라싸공항 도착, 라싸시내관광, 장경가, 죠캉가	특별불교행사 1 강의 "티베트불교의 오늘 그리고 내일"- 티베트국립대학 조광명연구원
제3일 (10/23)	링코르, 죠캉, 바르코르, 대소사, 세라사	특별불교행사 2 세라사에서 티베트 라마승들의 전통수행법인 변증수행의식 참관 특별불교행사 3 히말라야의 돌에 새긴 불경인 석경을 만드는 라마석경장 및 높이 25M의 석경탑 관람
제4일 (10/24)	세계 7대 불가사의인 달라이라마의 포탈라궁, 쩌방사	특별불교행사 4 티베트 최대의 승보사찰인 쩌방사에서 티벳불교의 환생한 활불 린포체 스님과의 만남, 대화, 사진촬영 후 린포체스님의 인도하에 사원참관
제5일 (10/25)	세계에서 가장 높은 티베트 얌드록쵸 호수, 티베트 불교 재래향 채취장 탐방, 시가체	
제6일 (10/26)	타쉬룬포 사원, 라마예불참석, 관첸라마와 달라이라마의 실제 등신불을 모신 영탑, 천장터산, 재래불교유물시장	특별불교행사 5 관첸라마와 달라이라마의 육신불 두구를 모신 티베트 제 1의 불보사찰인 타쉬룬포사원의 라마예불참석(사시예불)
제7일 (10/27)	새벽 대예불 참석, 시가체 출발, 라싸 도착 개별 자유 순례	특별불교행사 6 타쉬룬포사원의 방장님이 주관하는 새벽 대예불 참석
제8일(10/28)	라싸출발, 중국성도경유, 인천공항도착	

출발일 : 10월 20일(토) 7박 8일
접수마감 : 10월 13일
참가비 : 179만원(비자, 보험료 외 일체 포함)
문의 : (02)722-8121, 8125
주최 : 세계일류여행사, 티베트 문명과문화답사회

- 백두산·고구려문화탐방여행으로 국내여행사 중 2년간 중국 송출 1위, 유럽미술관&영화제 참관투어, 일본신사유람단투어로 대한민국여행상품전에서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바있는 세계일류여행사는 21세기 기획사업으로 "티베트에서 배우자"라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많은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의 독려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세계일류여행사는 티베트 성지순례에 티베트어와 한국어를 동시통역하는 가이드가 동행하는 국내유일의 여행사입니다.
- 세계일류여행사는 세계 156개국의 여행사 중 최초로 정식허가를 받고 티베트사원의 라마예불에 참석한 여행사입니다.
- 세계일류여행사는 국내여행사 중 최초로 티베트 세라 사원의 관첸수행에 참관한 여행사입니다.

30여 회원 17번째 3천배 기도

신행현장

삼천사 부부불자회

'나무 보문시현 원력홍심…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9월 22일 저녁 7시 서울 북한산 삼천사 법당. 지도법사 동출 스님의 지도에 따라 삼천사부부불자회(회장 김 봉소) 회원 30여명이 일념으로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죽비소리에 맞춰 3천배 기도를 시작한다.

회원들의 이마에는 금 새 땀방울이 맺고, 그럴수록 커지는 정근소리는 깊어가는 산사의 적막을 깨운다.

다음날 아침 5시. 북한산 자락에 새벽이 밝아오고, 3천배 기도를 마친 부부불자 회원들은 몸을 잘 가누지는 못하지만 깨달음을 향한 눈빛만큼은 살아서 움직인다.

곧이어 아침예불과 울력을 마친 회원들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10시 30분 정기 부부법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에서는 한 달간 아침마다 108배 기도를 하면서 정성들여 온가족이 모아온 보시금을 모임 총무에게 전달했다. 어린자녀가 보시했음직한 100원짜리 동전부터 1만원권 지폐까지 많은 금액이 보시함에 쌓였다. 이 보시금은 연말에 불우한 이웃들을 찾아가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회를 마친 회원들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삼천사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에서 운영하는 치매노인센터로 향했다.

2년간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해온 만큼 치매노인센터에 도착한 부부불자 회원들은 자연스럽게 남녀회원들로 나뉘어 할머니 할아버지 병실로 들어가 노인들과 산책을 하며 말벗이 되어주었다.

그리고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목욕실로 가서 한 주일간 묵은 때를 시원하게 벗겨주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매일 108배-보시 생활화
정기법회후 봉사활동
"부부는 삶과 신행 도반"

94년 삼천사 북한산 등산모임으로 출발한 부부불자회는 한동안 회원이 1백여쌍이 참가하는 사찰 내 거대 조직이었다. 하지만 법회와 등산만으로는 조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다.

부부불자회는 지난해 5월 '불자들이 개개인이 신행을 증진하여 사회에 회향하는 불교를 구현해보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조직을 전면 신행활동 위주로 개편했다. 곧바로 1천일 기도정진을 발원하고, 매일 아침 가정에서 108배 기도와 보시를 생활화하기로 했다.


◇삼천사 부부불자회원들이 3천배 기도정근을 하고있다.

이렇게 17개월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한 부부들의 아침기도는 가정에서 불국토를 만드는 텃밭이 되었다. 이제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매일 각자 마련한 보시금을 정성껏 모으다 보니 가족간 유대를 강화하고 자식들에게 보시행이 원력를 저절로 터득하게 하는 무언의 가르침이 됐다고 말한다.

또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정기법회에서 1080배기도와 인덕원 봉사활동, 마지막 주 토요일 3000배 철야기도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의 3000배 철야기도는 벌써 17회를 맞았다.

봄 가을에는 전국의 명산대찰의 선지식을 찾아가는 구도법회도 개최하고 있다.

안희찬 총무(48, 공무원)는 "부부가 도반이 되어 수행위주로 살다보니 자연히 가정의 평화가 찾아온다"며 "기도하고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부처님 말씀이 틀림없고 만고진리라는 것을 저절로 느끼게 된다"고 피력했다.

김봉소 회장(53)은 "치매노인들을 목욕시키다보면 결국 누구나 나이가 들고 늙어진다는 '생로병사'의 진리가 가슴에 와 닿는다"며 "앞으로 부부가 함께 신행을 키우고 싶어하는 분들을 더 많이 가입시켜 함께 수행하고 싶은 것이 바램이자 모임의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도법사 동출스님(설법연구원장)은 "부부불자들이 신행활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 사찰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팔자 고치는 길

내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내가 되받지 않는다면 누가 받을 것인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짐을 내가 지지 않겠다면 누가 대신 져 줄 것인가.

대신 밥 먹어 주고 대신 잠자 줄 수 없듯이, 대신 똥누고 대신 아플 수 없듯이 내 짐을 어느 누구도 대신 할 수 없다는 것은 철칙이다. 한 치의 에누리가 없는 법칙이다.

누가 대신 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아무리 관세음 보살을 찾고, 아무리 다라니를 외어도 자작자수(自作自受)의 법칙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대신 짐을 덜어 주고 싶어도, 아니면 더 보태 주고 싶어도 야속하지만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고로 지금 내게 닥치는 일체의 경계들, 밖에서 다가오고 안에서 솟아나는 일체의 일들, 사건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그 언제인가 내가 지었던 모든 행위들의 결과이다.

인과의 씨앗은 썩지 않는다. 고로 피하고 싶어도 피할 길이 없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짓고 받는 그것을 팔자 운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반가운 소식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삶을 고(苦)라고 단언하셨지만, 아울러 고의 멸도(滅道)를 가르쳐 주셨다. 해탈의 길, 열반의 길도 몸소 보여 주셨다. 부처님께서 성취하고 보여 주신 길은 완전한 자유, 영원한 즐거움 그것이었다.

사람들은 내게 다가오는 경계가 마음에 들면 그것이 오래 계속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고통이라면 하루 속히 벗어나고 싶어 한다.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은 그 경계의 참된 원인을 실펴서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모색하는 일이다. 따지고 보면 나라는 존재는 실 새 없이 고락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과 같다. 그러므로 고의 원인을 밝혀내지 않는 한 하나가 지나가면 또다른 고가 닥쳐 오는 것을 면할 길이 없게 된다.

인생이 고해라지만 동시에 나를 제도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생은 마냥 고만은 아닌 것이다. 그러기에 고다, 업보다, 운명이다 하기 이전에 일체 경계를 놓고 관하는 수행에 전념할 일이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보시는 相 낼 일 아닌 마땅히 해야 할 일"



진옥스님
여수 석천사 주지

대승불교의 핵심은 나눔에 있습니다. 그것은 법(法)이건 물질이건 간에 모든 것을 중생의 바른 이익을 위해서 나누는 일입니다. 육바라밀의 제1바라밀이 베푸는 것인데 이것의 전제가 서지 않고서는 제2, 제3 바라밀의 실현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대승의 발심은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라 하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도 그 지혜마저 나누는 것이 대승적인 수행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수행은 공성을 체득하는데 있습니다. 깨달음의 체험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 요인이란 바로, 나에 대한 집착과 그로인해 일어나는 탐진치 삼독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나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버리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상생의 삶 살려면 집착과 욕망 버려야"

이기심의 집착으로부터 떠나 이타적인 상생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나누는 일부터 실천하는 것이 최초의 수행이며 최후에까지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보시는 수행이며, 베푸는 일은 자비의 사회화이며, 또한 지혜로운 행동이어서 업의 장애를 녹여 선주(善住)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인 것입니다.

베풀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물질이나 정신의 속성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내 것이 될 수도 없으며 영원하지 않은 인연기멸의 법칙 속에 머무는 것들입니다. '나'라는 존재도 본래 공한 것인데 그 여타 존재도 똑같은 본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소유할 수 있는데,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엄격히 말해서 내 것이 될 수 없고 또한 내 곁에 머물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남과 나눈다는 것은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닐 본래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일입니다.

수없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 그것들과 만나고 헤어지는데 나쁜 곳으로 세상 중생들이 해로움을 보는 쪽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보시입니다. 이는 또한 방생이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보시는 상내고 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며 당연히 인간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이들이 보살이고 부처님이듯이, 이 분들이 행하는 행이 모두 인간 특수성이 아니라 본래 보편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베푸는 것은 인간 본래 모습이며 이를 행하지 못한 것은 '나'라는 욕망 때문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베푸는 이유는 받는 이나, 주는 이, 그 베푸는 물질이나 정신이 모두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무주상보시의 수혜자는 법을 듣건 재시를 받건 환희와 감사로 행복할 것이고 또한 그런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자비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점점 나은 곳으로 가게 되고 주는 이도 또한 상없이 주면 그는 욕심을 덜게 되고 주변에 선연(善緣)들이 많이 모여 그의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정신적 에너지나 물질적 에너지이건 그것이 좋은 일에 쓰이고, 중생의 삶은 번거롭지 않게 하는 데 쓰인다면 아마도 물질이나 정신공해들도 없어 질 것입니다.

이제는 불교가 본연의 대승적 발심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고 불교 본연이기도 합니다.

이제 추석이라는 명절 기분으로 느끼는 화려함 속에서도 그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늘진 곳을 관찰하는 것이 관세음이며 보살심의 시작입니다. 주변에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을 내길 바랍니다.

신행 캘린더

10월 5일 (금)

■서울노인복지센터 문화축제=서울노인복지센터는 26일까지 안국역 및 대학로 일대에서 '너희가 우리를 아느냐'를 주제로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하는 문화축제를 펼친다. 합합공연, 가요제, 거리청소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02)739-9501

■목판 인경 체험=청주 청원 불교연합회는 21일까지 청주시가 주최하는 2001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서 '직지'를 비롯한 반야심경, 달마도 등의 목판 및 인경 체험장을 운영한다.(043)259-4926

10월 6일 (토)

■도영스님 초청법회=전북 김제 흥복사는 경내 코스모스 광장에서 도영스님 초청법회와 찬불가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평선 축제 성공 기원 및 코스모스 축제를 회향하기 위해 마련됐다.(063)545-2662

■공불련 창립1주년 기념법회=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는 7일까지 해인사에서 전국 104개 단체 2천여 불자 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011)210-2082

■대구 관음사 철야기도=관음사는 7일까지 철야정진기도를 마련한다. 경내 적멸보궁에서 실시되는 철야정진기도는 다라니 독송, 참선 등으로 진행된다.(053)474-8228

10월 7일 (일)

■도선국사 성보관 개관법회=전남 영암 도갑사는 도선국사 성보관 개관법회를 봉행하고, 개관 기념행사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및 산사음악회를 봉행한다.(061)473-5121

■분당 대광사 대불보전 낙성식 및 삼존불 봉안=천태종 분당 대광사는 오전 9시30분 대불보전 낙성식과 삼존불 점안식을 봉행한다.(031)715-3000

10월 10일 (수)

■인환스님 선강좌=국청회는 종로구 수송동 원안빌딩 3층에서 오후 7시 인환스님(동국대 명예교수) 초청, 선사상 대강좌를 개최한다.(02)730-1249

■전통문화재 조각회원전=대한민국전통문화재 조각회는 16일까지 공평아트센터에서 제7회 회원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는 회원 52명이 모두 12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백운사 큰스님초청 무차대법회=부산 해운대 백운사는 14일까지 매일 오전 10시30분 큰스님 초청 무차대법회를 봉행한다.(051)542-4630

부처님오신날

경제 살리기 천일기도(千日祈禱) 회향(回向) 및 만등법회(萬燈法會)



화엄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들어있는 보배는 등불이 아니면 볼 수가 없고 부처님의 법(法)이 아무리 좋다지만 설하는 사람이 없으면 알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등(燈)이란 밝히는 것이 사명(使命)이요 책임(責任)입니다. 아득한 세월 업(業)에 절이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심성(心性)에 부처님의 광대무변(廣大無邊)한 자비의 광명이 아니면 도저히 씻어낼 수 없으며 칠흑처럼 캄캄한 생사의 거센 물결을 건너감에 있어 지혜의 등불이 아니면 절대로 피안(彼岸)에 도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을 밝혀 짙은 업을 참회하고 쌓여있는 더러운 업을 불살라 다음 생에는 보살의 육도(六道) 만행(萬行)을 닦고 일체 중생을 널리 제도 하겠다는 홍원(弘願)을 한층 굳히기 위하여 우리 흥천사(興天寺)에서는 경제 살리기 및 가정 성불(成佛)을 위한 천일기도 회향 날에 만등(萬燈)불사(佛事)의 넓은 문을 열어 놓고 자타(自他) 모두 함께 성스러운 기도와 수행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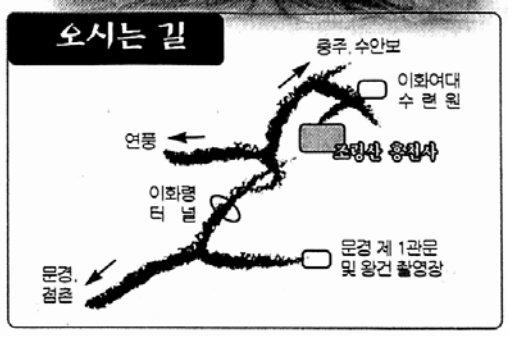
자아(自我) 진아(眞我)를 깨치고자 하는 이는 광명의 등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애정(愛情)의 등을, 미워하는 이에게는 용서(容恕)의 등을, 소외(疎外)된 이에게는 관심(關心)의 등을, 병고(病苦)에 시달리는 이에게는 쾌유(快癒)의 등을, 조상 영가에게는 왕생극락의 등을, 불법을 만나지 못한 이에게는 인연의 등을 밝혀 청정한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 하시고 가정마다 지극한 서원(誓願)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 흥천사 만등법회

- 주 최 : 조령산 흥천사 신도일동
- 일 시 : 불기 2545년 10월 14일 (음력 8월 28일)
- 장 소 :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8번지 조령산 흥천사
- 진 행 : 무형문화재 제 50호 법산 스님외 4명
- 1인1등 : 1만원
- 전 화 : 조령산 흥천사 043-833-6640, 833-5525
  대 구 포교원 053-635-5932
  스 님 휴대폰 011-503--9737
- 계 좌 : 15008-51-001366 농협
- 예금주 : 흥천사(동봉)



오시는 길



문경새재 조령산 흥천사 조실 동봉(東奉) 합장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5. 잊혀진 불교의 산하, 아프가니스탄

뉴욕 테러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은 인류의 고뇌를 압축하여 보여주는 비극과 통한의 땅이 되고 말았다. 그 누구도 이 악몽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지금, 불교시대의 아프가니스탄을 생각한다. 지금은 최첨단 무기로 둘러싸여 있지만 이슬람시대 이전은 불교의 학문과 예술로 불교의 휴머니즘이 꽃피어나고 동·서양을 연결하던 실크로드의 요충지였다.

아프가니스탄에는 이미 아쇼카왕 당시부터 불교 포교사들이 파견되었다. 비교적 최근에 속하는 1949년과 1958년에는 불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은 아쇼카의 칙령, 정법과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마애법칙이 아프가니스탄의 람파카와 칸다하르에서 발견되어 학계에 보고되었다. 그리고 서기 1세기 중엽 쿠산왕조의 쿠줄라 카드피세스가 캐슈미르와 카불일대를 통치하면서 서북인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불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특히 쿠산왕조의 제3대 황제 카니시카는 승단을 적극 후원하여 4차 결집을 행했으며 잘랄바바



◇1933년 영국인에 의해 비마란에서 발견된 사리기.

연한 불교예술품을 찾아낸다. 그들은 거의 도굴꾼 수준이었지만 1933년 영국의 참스 매슨은 카피시의 옛 불탑에서 황금과 보석으로 장엄된 비마란의 사리용기를 찾아냈다. 이 사리용기는 지금 대영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 그뿐인가. 베그람의 도성지, 핫다의 유적, 쇼토라크의 유적, 바미얀에서는 불교시대의 지혜와 평화를 증언하는 불상과 벽화, 귀금속으로 조성된 엄청난 성보문화재와 법구들이 쏟아져 나와 전 세계의 박물관으로 흩어졌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책상 위에 놓여진 카불국립박물관의 옛 도록집(1975)을 바라보는 나는 또 한가지 불행한 예감을 감출 수 없다. 지난 3월 파괴된 바미얀 대불은 물론 간다라 불교예술을 소장하고 있던 카불박물관의 불교문화재들이 모두 파괴되어 버리거나 약탈되어 암시장으로 흘러 다니고 있다. 이곳이 전쟁터로 변한다면 이번 세기에 벌어진 가장 대규모의 불교문화유산의 파괴, 인류의 문화유산 파괴로 기록될 것이다. 더욱이 아직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은 옛 불교사원의 유적과 발굴을 기다리는 성보문화재들이 셀 수 없이 많아서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다.

동-서양 연결 실크로드 요충지

드는 이웃한 파키스탄의 페샤와르와 함께 간다라불교예술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신라 혜초 스님은 바미얀 대불 앞으로 지나갔으며, 중국의 현장 스님도 바미얀 대불을 바라보며 구법의 의지를 다졌다.

바로 그 불교의 산하에 이슬람의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한 때는 투르크족 노예출신인 알프테긴이 카불을 점령하고 가즈니에 이슬람왕조를 세운 962년이다. 977년 알프 테긴(Alp tegin)이 죽고 그의 사위, 사복테긴(Sabuktigin)이 즉위하여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정복하면서 불교는 이슬람의 폭풍 앞에서 사라져갔다. 997년 사복 테긴의 아들 술탄 마흐무드는 매우 광신적인 이슬람의 물결을 일으켰으며 그 결과 불교는 마흐무드의 통치기간이 끝나는 1030년을 최후로 아프가니스탄의 산하에서 떠나야 했다.

그러나 불교는 문화와 예술을 남기는 종교이다. 19세기 후반부터 아프가니스탄의 계곡에 산재한 불교유적지들을 뒤지던 유럽인들은 찬

아프간뿐만이 아니다. 현재 우리는 중앙아시아의 여러 지역들 예를 들어 쿠챠, 투르판, 코탄과 같은 옛 불교왕국들이 언제 어떻게 이슬람의 물결에 사라져갔는지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왜 〈화엄경〉의 고향, 코탄의 불교도들은 962년 이슬람을 몰고 온 카라한왕조로부터 불교를 지키기 위해서 41년의 전쟁을 치르고 소멸해버렸다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는 왜 이 모든 패배를 침묵 속에서만 기억하려고 하는가.

경학회 회주

"편액 보면 모셔진 불상 알 수 있어요"

참불자의 길 전각과 불상

대웅전-석가모니불 적광전-비로자나불

무량수전-아미타불 원통전-관세음보살



◇화엄사 각황전(국보 제67호)에는 3개의 여래불상과 4개의 보살상이 봉안돼 있다. 사진은 오른쪽부터 지격보살상, 다보여래불상, 문수보살상, 석가모니불상, 보현보살상, 아미타불상, 관세음보살상.

대웅전에는 왜 석가모니부처님이 본존불일까?

사찰을 한 번이라도 찾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어봤을 의문이다. 이렇게 사찰순례가 답사 여행의 주요 테마가 되면서 사찰의 전각과 그곳에 모셔진 불상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 전통 사찰의 전각에는 건물에 모셔진 불·보살에 따라 ○○전, ○○각과 같은 이름이 붙여져 있다. 그래서 전각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밖에서 편액단 보면 그곳에 모셔진 불상이 어느분의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전각의 현판만 보고 안에 모셔진 주불을 알 수 있을까.

어느 사찰에서나 가장 흔히 만날 수 있는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왜냐하면 '대웅(大雄)'이란 석가모니부처님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석가모니불은 삼국시대에는 입상일 경우 시무외인(施無畏印)·여원인(與願印)의 수인(手印)을 하고 있으며, 좌상일 경우에는 선정인을 하고 있는 이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다가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는 석굴암 본존상처럼 왼손을 펴서 가운데에 올려놓고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떨어뜨리는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하는 것이 통례였다. 협시보살상은 문수보살상과 보현보살상이 좌우에 배치되거나 관음보살상과 허공장보살상, 관음과 미륵보살상을 배치하는 예도 있다. 드물지만 석가모니불의 좌우로 아미타불과 미륵불 등 3불을 봉안하기도 한다. 특히 대웅전과 비슷한 것으로 대웅보전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석가모니부처님을 비롯해 아미타부처님과 약사여래부처님을 함께 모신다. 이때 약사여래불은 불교가 대중화되면서 질병의 고통을 없애주는 의사격으로 출현한 부처다.

법신불인 비로자나부처님을 본존으로 모신 전각은 비로전, 화엄전, 대적광전 등으로 부른다. 법신은 빛깔이나 형상이 없는 우주의 본체인 진여실상(眞如實相)을 의미하는데 이 부처를 형상화시킬 때는 단상에 결가부좌를 하고 앉아, 왼손은 무릎위에 놓고 오른손은 가볍게 들고 있는 모습을 취한다. 즉 지권인을 한 비로자나불상은 지(智)의 활동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모든 부처님의 진신(眞身)을 나타내는 보신불증 수행을 통해 얻어진 내적 체험에 의해 스스로 증득한 법을 스스로 수용하고 즐기는 불신인 자수용보신불을 노사나불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독립전각에 안치돼 있지 않다. 다만 대적광전에서 왼쪽 협시불로 봉안될 뿐이다. 우리나라 대적광전안의 노사나불은 대부분 부처님 모습보다 보관을 쓰고 보배구슬로 장식한 보살로 더 많이 형상화 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미타불은 한량없는 광명을 지니고 중생의 번뇌와 어둠을 밝히는 생멸이 없는 부처님을 가리킨다. 어떤 중생이라도 착한일을 하고 아미타불을 지극정성으로 부르면 서방극락의 아름다운 정토로 가게 해주는 부처님이다. 아미타부처님을 모신 건물은 무량수전, 극락전, 아미타전 등으로 부르고,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신 곳은 약사전이라 지칭한다.

보살들의 경우에도 관세음보살이 본존일 때는 관음전, 광명전, 대비전, 원통전 등으로 부르고, 지장보살이 본존일 때는 지장전, 명부전으로 부른다.

김주일 기자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㉜

왕장원(往狀元)에 대한 답서(1)

법으로 보면 오직 이 '하나' 일 뿐



김태완
부산대 강사·철학

"그대의 안목을 보니, 옅에 아홉은 이해하고 있으나 다만 마지막에 한 번 내려놓는 힘이 부족하더군요. 만약 한 번 내려놓는 힘을 얻고 나면 유학(儒學)이 곧 불학(佛學)이고 불학이 곧 유학이며, 승(僧)이 곧 속(俗)이고 속이 곧 승이며, 범(凡)이 곧 성(聖)이고 성이 곧 범이며, 내가 곧 그대이고 그대가 곧 나이며, 하늘이 곧 땅이고 땅이 곧 하늘이며, 물결이 곧 물이고 물이 곧 물결이니, 우유와 제호를 섞어서 한 맛을 이루고 그릇과 비녀와 팔찌를 녹여서 하나의 금을 이룸이 나에게 있고 남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속으로 들어오면 내가 모든 것을 지휘하니, 이른바 내가 바로 법왕(法王)입니다. 법(法)에서 자재(自在)하니 얻고·잃고·옳고·그름에서 어찌 거리낌과 장애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본래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몇년 몇월 며칠 몇시 몇분 몇초이고, 여기는 대한민국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이고, 나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분별심에서 하나하나 생각을 따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른 안목에서 말하면, '지금'이 이것이요, '몇년 몇월 며칠'이 이것이요, '몇시 몇분 몇초'가 이것이요, '여기'가 이것이요, '대한민국'이 이것이요,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이 이것이요, '몇 번지'가 이것이요, '나'가 이것이요, '책상'이 이것이요, '앉는 것'이 이것이요, '컴퓨터'가 이것이요, '두드리는 것'이 이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것이요, '분별심'이 이것이요, '하나하나의 생각'이 이것이요,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요, '말하는 것'이 이것이요, '이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다.

분별하면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사물이 있어서 하나하나 생각하고 말하고 지적할 수 있지만, 바른 안목에서 보면 시간·공간·사물·생각·말이 모두 한결같이 법(法)일 뿐이다. 그러므로 바른 안목이 없으면 손대는 일마다 마주치는 인연마다 걸리고 부딪혀서 구속을 받지만, 바른 안목을 갖추면 하나하나의 일과 하나 하나의 인연이 한결같이 다만 이것일 뿐이니 걸릴 것도 없고 부딪힐 것도 없고 구속받을 것도 없어서 늘 자재하고 거리낌이 없다. 요컨대 법을 모르면 일마다 물건마다 걸리고 구속받아서 일과 사물에 부림을 당하지만, 법을 알면 앞에 나타나는 모든 일과 모든 사물의 정체를 남김없이 다 알기 때문에 일과 사물을 능동적으로 부릴 수가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알고 보면 세계의 실상(實相)이 원래 이런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곳 눈앞에서 세계는 펼쳐지고 있는데, 무한히 작은 것에서 무한히 큰 것에 이르기 까지 모든 사물 하나하나가 다만 이것 뿐으로서 한 맛이다. 이 한 맛이 무엇인가? 손가락을 움직이고, 눈을 깜박이고, 심장이 뛰고, 밥 먹고, 똥 누고, 바람이 불고, 선풍기가 돌고, 자동차가 달리고, 태양이 떠오르고, 별이 반짝이고, 강물이 흐르고, 파도가 치고, 텔레비전의 연속극을 보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의 움직임이다. 그러므로 별과 태양의 움직임이 바로 내 손가락의 움직임이며, 손가락의 움직임이 바로 자동차의 움직임이며, 자동차의 움직임이 바로 내 생각의 움직임이며, 생각의 움직임이 바로 태평양 바다 깊숙이에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의 움직임이며, 물고기의 움직임이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의 눈동자의 움직임이다. 그러므로 모양을 따라가면 천차만별로 다른 세계가 있지만, 법으로 보면 오직 하나일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오직 이 하나일 뿐이라는 말을 듣고, 생각으로 헤아리고 뜻으로 이해하여 그렇구나 하고 여긴다면, 이 하나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마치 앞에서 보면 형형색색의 다양한 그림이지만 뒤집어 보면 다만 한 장의 종잇장일 뿐인 사진처럼, 우리도 분별의식을 한 번 뒤집어서 내려놓는 체험이 있어야 비로소 이 하나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http://www.mindfree.net/

아미타부처님 몸에 꽃핀 200일기념 큰스님 초청 무차대법회

법화경속에 부처님 몸에 꽃핀 깊은 뜻은 앞으로 이나라에 전륜성왕이 출현한다는 의미이며, 전륜성왕은 복과 지혜가 충만하신분으로 무력을 쓰지 않고 세상을 안락과 평화로서 구제하신다 하셨습니다.

3000년마다 한번 피는 우담바라가 상상의 꽃으로 간주되지만 저희 부산 해운대 반송동의 백운사에서는 아미타 부처님 개금불사를 위해 탁좌에 내려놓고 털고 닦는 도중 눈에 물체가 환하게 비쳐온 열여섯송이의 꽃이 피어있는것을 발견하고 그간 많은 불자님들께서 친견하였습니다

아미타부처님 몸에 꽃핀 200일을 기념하면서 아미타,관음기도의 3차 백일기도 입제와 천불관세음보살 점안 법회및 국가경제,문화발전, 부산아시아게임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무차대법회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가지는 큰스님 및 저명인사초청 무차대법회에 많은 불자 신도님들께서 함께 동참하시어 부처님 몸에 핀 아미타부처님의 거룩한 자비광명을 기리시며 설법의 경청공덕과 삶의 보람을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발원합니다.

— 다 음 —

■일 시 : 불기 2545년(2001년) 10월10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오전 10시30분

■장 소 : 운봉산 백운사 대웅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동부산대학뒷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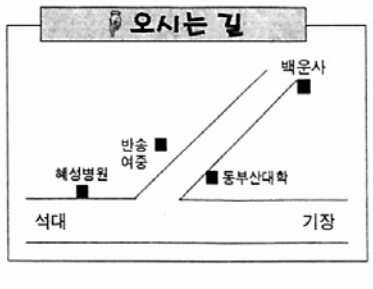
■문 의 전 화 : 백운사 종무소 (051)542-4630

■법회일정안내
10월10일 수요일 대한불교원효종종정 법흥대종사
11일 목요일 동국대 박 완일 교수
12일 금요일 제주도 약천사 회주 혜인큰스님
13일 토요일 부산미룡사주지 김정각큰스님
14일 일요일 前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정 암도큰스님

불기 2545년 10월 좋은날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산 136번지
아미타불성지 운봉산 백 운 사 주지 마나
신도회장 강공덕화 신도회 천불회 지장회회원 일동

오시는 길



이렇게 들었다

또 권력형 비리

이 시대 청백리 없는가

"나라의 중신이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사리만 생각하고 부지런히 뇌물을 챙기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진다. 부정직한 공직자들은 백성의 복리를 훔치는 도둑일 뿐 아니라, 임금과 백성을 속여 나라를 불행하게 하는 원흉이다." <법구경>

또다시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이 터졌다.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 다. 지난번 옷로비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용호 게이트는 지연 · 학연으로 맺어진 정치인과 검찰, 경찰 간부 등 이른바 정 · 관계의 실세들이 고루 연루되어 있다.

법을 수호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고위 공직자들이 '범법' 의 비호세력으로 의심받는다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 아닐 수 없다.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끼리 두루두루 봐주고 뇌물을 챙기는 관행은 개혁을 외쳐온 현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다.

건교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본인에게는 직접적인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친동생이 떳떳하지 못하게 재산을 형성하고 뇌물을 받았다면 어떤 국민이 그 공직자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하더라도 벼슬자리에 나가면 그동안은 이별한 셈 쳐야 한다"는 〈목민심서〉의 가르침을 들먹이기에도 아깝다.

이처럼 되풀이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도덕적 무책임성은 조선시대의 청백리(淸白吏) 제도의 교훈을 떠올리게 한다.

청백리 제도는 조선조에 관리들 중에서 청렴결백한 사람만을 선발하여 후세에 길이 거울삼게 했던 관기숙정(官紀肅正)을 위한 제도였다. 여기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 심사를 거쳐 임금의 재가(裁可)를 얻어야 했다. 또 녹선(錄選)이 되면 그 자손들이 벼슬길에 나갈 수 있는 특전도 주어졌다. 그러다 숙종 이후로는 이들 청백리의 자손이 너무 불어나 삼상(三相)과 고관이 추천하여 대개 5명 정도가 특채 등용되었는데, 그럼으로써 청백리가 많이 난 씨족들은 그것을 큰 자랑으로 삼았다.

"한 오리의 털과 한 개의 겨자알이라도 모두가 중한 과보가 있나니 차라리 손을 끊을지언정 자기 재물이 아닌 것을 취하지 말고 항상 청렴한 마음을 갖고서 선근을 키워야 한다"는 〈능엄경〉의 가르침처럼 조상의 선근공덕으로 자손이 잘 살게 된 교훈을 보여준다.

물론 많은 공직자들은 아직도 스스로 '청백리' 임을 자임하면서 묵묵히 맡은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문제가 되는 이들은 권력을 잡고 뇌물에 길들여진 공직자들이다. 이들은 다시 한번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른 공직자상을 되뇌어보고 이 시대의 청백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나라를 위해 벼슬에 있더라도 탐욕하지 않아야 한다. 잔인하지 않아야 하며 승진에만 매달려서도 안될 것이며, 오욕락에 빠지거나 청탁에 개입해서는 안되느니라." 〈불반니항경〉 김재경 기자

일상화된 폭력·쾌락주의가 더 위험

물자 세상보기

'테러' 인터넷 접속 1위

"폭력의 순환 끊고 생명의 세계로 가자"



정호영 충북대 교수 철학과

최근 미국 세계무역센터 및 국방부 건물에 대한 항공기 테러 사건으로 온 세계가 떠들썩하다. 그리고 그 영향은 세계의 정치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인간의 정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인터넷에서 접속건수가 가장 많은 사이트는 섹스 관련 사이트였는데 최근에는 테러 관련 사이트의 접속건수가 급증해 인터넷사상 최초로 1등 검색어가 바뀌었다고 한다.

그러면 섹스와 테러의 어떠한 점이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하는가? 이들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이들에게는 아무래도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쾌락과 가학성에 있는 것 같다.

쾌락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다. 쾌락이라는 어휘가 갖는 부정적인 인상을 제외한다면, 쾌락은 즐거움이며 즐거움은 우리의 건강을 돌보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폭력성이다. 사실 성은 본래 조화와 합일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어 온 것은 이에 내포되어 있는 폭력적 요소 때문일 것이다. 합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일방적으로 강요될 때 여기에는 필히 폭력이 등장하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테러는 그 자체로 폭력의 최고 형태다. 할리우드의 연출가들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폭파 장면들이 온통 TV화면을 점령하고, 신문들도 이에 질세라 온갖 해설기사를 싣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 피해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직 가해자의 분노만이 비칠 뿐이다.

그러면 폭력성은 우리에게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본성과 같은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심리학자 융이 세대간에 전승되는 집단무의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폭력성이 단순히 개인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은 확실할 것 같다. 사회적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길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폭력성의 연원에 관한 것은 남겨 두고 우리가 이러한 사회현상에서 반성해야 할 대목은 폭력은 폭력을 낳을 따름이라는 점이다. 폭력은 폭력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폭력을 폭력으로 대처한다면 무한 소급의 폭력이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폭력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폭력 이외의 방법이 사용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폭력의 해소만이 폭력의 해결책이 되는 것이다.

그 해결책으로 우리는 중중무진(重重無盡)의 연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서로간의 긴밀한 관계가 겹치고 겹쳐 다함이 없다는 불교의 지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의 어떠한 생명도 고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연기의 법칙은 폭력의 순환을 끊고 우리를 깊은 생명의 세계로 인도한다. 오늘날 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그리고 쾌락주의가 득세하는 것은 상즉(相卽) · 상입(相入)의 가치가 상실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테러에 관한 기사가 모든 언론 매체를 장악하고 그럼으로써 폭력이 재생산되는 세태에서,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 원인을 분석하고 자신과 사회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모두는 동정 · 연민 · 분노 · 정의 따위로 포장한 또다른 형태의 폭력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폭력의 일상화, 이것이 더 위험하다.

열린마당

제도화 앞둔 '문화유산 해설사'

사찰, 사적 등 지역 문화유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유산 해설사가 제도화된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문화유산 해설사의 법적 제도화 및 지원근거 마련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현재 시행과정에서 사찰에서 활동하는 해설사가 불교를 전혀 모르는 등의 문제점이 일부 지적되면서 제도화에 앞서 개선의 목소리도 높다. 법적 제도화를 앞두고 담당부서와 문화재전문가, 불교계의 의견을 들었다.

"사찰 지원 · 신도 참여 기대"



최태현 〈문화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누구나 한번쯤은 문화, 유적, 사찰 등 우리의 문화관광지를 방문하였을 때 그 문화유산에 담긴 뜻을 정확하고 흥미롭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이다. 문화유산 해설사 제도는 이러한 국내외 관광객 욕구를 충족해주고 이를 통해 문화유적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이를 정착시키고 법적 제도화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9월 14일 입법예고한 관광진흥법중 개정법률안에 이를 포함시킨 바 있다.

물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몇몇 문제점들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사찰에 배치된 문화유산 해설사 가운데 일부가 사찰문화나 사찰예절, 불교문화재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사찰 측과 잡음을 빚기도 했다.

이는 문화유산 해설사들의 배치 지역이 불교문화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나 유물 위주의 교육이 중심이 되다보니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사찰에 배치된 문화유산 해설사에 대해 사찰측에서 스님이 나서 보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사찰에 배치된 문화유산 해설사들은 불교에 대해 어느 정도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원한 사람들이다. 사찰측에서도 다소 미흡하더라도 좋은 뜻을 가지고 이들을 자기 식구처럼 생각하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었으면 한다.

문화관광부에서도 올해 추진과정에서 나온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보다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우선 구체적인 내년도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사찰측에 이를 알려 사찰문화에 대해 더 자부심과 애착을 가진 유능한 신도들이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에 많이 참여하여 충실한 해설활동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실습위주 장기연수 필요"



이강근 〈경주대 문화재학과 교수〉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문화유산 해설사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해설사' 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설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해설사 교육 자체가 단기양성 코스라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단기 코스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 애초 취지와는 달리 단순한 유물 해설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총 40시간 정도의 암기식 강의를 받았을 뿐 문화재의 역사적 배경까지도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은 기르지 못했다는 말이다.

교육에 대한 검정 과정이 없는 것도 한몫 거든다고 볼 수 있다. 해설사는 교육을 마친 뒤 시험 과정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된다. 지금의 방식에서는, 예를 들어 실제 절에 배치됐을 때 당장 외국인에게 '절' 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부딪치기 마련이다. 문화유산 해설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장에 투입됐을 때 실제로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단기 교육에 그쳐선 안 된다. 실무 실습 위주의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론 교육만으로 해설까지 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지금 교육과정에도 실무교육 시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의 방식은 남이 설명하는 것을 듣는 방식이지 자기가 직접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절에 대해 안다는 것과 막상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교육받은 사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대학도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의 설립 목표가 다르듯 지금 시행하고 있는 관광 가이드와는 어떻게 차별성을 둘 것이며, 이들에게 어떤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

"사찰 예절 · 교리 교육 필수"



진병길 〈신라문화진흥원 원장〉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문화유산 해설사를 양성하고 있다. 이를 제도화시키기 위해 문화관광부에서는 최근 관련 내용을 관광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입법예고했다. 굴뚝 없는 공장인 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는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강사와 해설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중 가장 큰 문제가 불교문화재를 설명하는 해설사와 관련된 부분이다. 사찰과 불교문화재를 안내할 해설사를 배치할 때 종교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국사 대웅전 구역을 설명함에 있어 석가탑은 석가여래를 상징하고 다보탑은 다보여래를 상징하며 대웅전 구역은 법화경에 근거한 배치구조라 할 때, 석가여래와 다보여래, 법화경, 그리고 탑의 발생과 관련된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 등을 모두 알아야 설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교문화재에 담긴 선조들의 신앙까지도 살려낼 수 있어야 참다운 문화재 해설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모두 교육할 경우 상당기간이 걸리며 교육을 한다해도 기본적인 종교성향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불교적인 소양과 문화에 대한 인식이 풍부한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기독교인이나 타종교인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불교사상이나 교리, 사찰예절 강의가 뒤따라야 한다.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는 문화재는 단순한 조각이나 건축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해설사를 선발할 때 민간문화단체와 불교기관과 연계하여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해설사를 추천 받아 선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유적지 배치에 있어서도 반드시 해설사의 종교성향을 검토한 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육 내용 중에 불상과 탑, 불교기초교리, 사찰예절 등은 필수과목으로 넣어야 한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송신식(2개월 50만원), 송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구중구보(2개월 150만원), 유황간장(2개월 50만원), 유황된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물질로 자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제조 총판 의료법인 효성양방 · 한방병원

이사장 김 시 연 합장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효성양방한방병원 (052)254-2600 (011)545-550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솔선식(松仙食)」,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53-655-3027) 최 청정심 올림

사·부·대·중

차량 염주를 願佛로



이귀인
한국석불선양회 회장

나는 몇 년전부터 운전 중에 마주치는 차량을 유심히 살피는 버릇이 있다. 왜냐하면 차량 실내백미러 장치대에 어떤 호신용(護身用) 부적(?)을 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전자의 종교를 알수있기 때문이다. 평균 50% 정도의 차량이 불교의 염주나 작은 연꽃등을, 20% 정도가 기독교의 십자가를, 10% 정도가 천주교 묵주를, 그리고 20% 정도는 아무것도 부착하지 않았다. 같은 불자로서 흐뭇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염주나 연꽃등을 달고 있는 차량운전자의 위반 및 횡포 때문에 불교계 전체가 욕을 먹고 초발심자의 불심이 꺾이지는 않을까 하고 마음 조아리기도 한두 번이 아니다.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하는 차량, 차창문을 열어놓고 고막이 터져라고 틀어대는 음악소리, 갑자기 끼어드는 얌체운전자, 수시로 울려대는 경적의 소음, 비좁은 길에서 곡예 운전하는 택시운전자, 양보 운전자의 나이는 아랑곳 없이 손가락에 담배끼우고 손을 흔드는 젊은이 등 교통체증의 요인 또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운전자의 80% 정도가 차량에 염주나 연꽃등을 달고 있으니 외형상으로는 틀림없는 불자들이다.

우리가 무심코 달고 다니는 염주나 연꽃등이 부적이 될수는 없다. 염주는 항상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정진수행할 때 사용하는 불구(佛具)의 하나요, 연꽃등은 내 마음의 미혹함을 밝히는 법등(法燈)인 것이다.

난폭한 운전으로 남보다 빨리 가려는 조급한 마음을 이제 모두 부처님전에 내려놓자. 그리고 운전에 앞서 잠시 눈을 감고 안전운행을 하겠노라고 발원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그 염주는 요행성 부적이 아닌, 살아 숨쉬는 부처님으로서 각자의 원불(願佛)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을 차 안에 모신 불자는 운전을 조심하게 되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할 것이며 양보의 미덕으로 교통문화 창달의 선도자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목탁소리

눈길 끈 공불련 1돌

오 종 욱 (취재1부 기자)

7일 창립 1주년을 맞는 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가 104개 불자회의 연합체로 성장해 불교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창립 당시 47개 불자회가 소속되어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두 배 이상의 급성장을 한 셈이다.

공무원 조직상 스스로 불자라고 드러내길 꺼려하고 불자회 결성도 매우 힘겨웠던 것이 불과 얼마전인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실한 신행 생활로 부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공무원 불자들의 활약에 치하를 보낸다.

공불련은 창립 당시부터 교리강연회, 경전강독회, 선법회, 기도법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회원들의 불심을 갈고 닦는 데 게으르지 않았다.

여기에 불자회가 없는 다른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공불련 지도부의 공의를 모아 불자를 찾고, 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정한 도반의 모습도 오늘의 공불련이 있게 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직장직능단체가 같은 모임에서 활동하고는 있지만 서로 다른 종파, 서로 다른 재적 사찰, 서로 다른 근기 등으로 끈끈한 결속력을 찾기가 힘든 부분이 많다.

그렇지만 창립 이후 공불련이 보여준 '참불자' '참도반'의 모습 앞에서는 회원간의 서로 다른 종파, 사찰, 근기 등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공불련' 활동이 여타 직장직능단체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공불련은 상징 로고, 뱃지 제정, 불자회 기관지 창간 등 또다른 도약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부지런히 정진해 내년에도 두 배 이상의 공무원 불자들이 참여하는 2주년법회를 기대해 본다.

종교사회복지포럼 '불교복지의 방향' 조명

"수탁 운영 급급…신행차원 복지불사로"

종교사회복지포럼(회장 권경임)이 9월 25일 '시민사회에 있어서 종교사회복지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는 그 동안의 불교계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이날 불교, 원불교, 가톨릭계의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시민사회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종교사회복지 모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불교계는 80년대 목동청소년사회복지관을 수탁 받은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회복지에 뛰어들었다.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불교계는 50여개의 사회복지법인에서 400여개의 시설을 운영할 만큼 급성장했다. 물론 〈한국불교사회복지총람〉의 이 같은 통계에는 비인가 시설이 제외돼 있어, 양적인 면에서 사회복지 영역에서 불교의 역할은 지대하다.



◇불교사회복지 관계자들은 "불교사회복지는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복지관의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고 있는 어르신들 모습.

● 자비, 사회복지의 시작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慈悲)'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불교의 중생제도에는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다. 고려나 조선시대의 사하촌 주민들이 궁핍한 시절 곳간을 열어준 스님의 자비심을 기리며 세웠던 '공덕비'는 사회복지라는 말 이전에 불교가 그와 같은 일을 중시했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관련 학계에서 '새로운 모델의 종교사회복지'를 요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학계의 요구는 이렇다. 종교사회복지란 국가나 민간 차원 복지기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하는 데, 장애인이나 무의탁독거노인 등과 같이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의 자선구호에서부터 노숙자와 같이 사회의 구조개혁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종교복지계가 자체적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 불교계 복지시설 현황

〈한국불교사회복지총람〉(2000년)에 따르면 불교계는 50여개의 사회복지법인에서 400여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봉사를 위해 결성된 신행단체가 100여개 남짓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불우청소년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기 위한 30여개의 장학회가 있을 정도로, 수적인 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들 복지시설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이용시설이 300여개, 수용시설이 100여개로 이용시설이 수용시설에 비해 3배 정도 많다. 수용시설이 이용시설보다 더욱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최하층 사람들을 구휼하는 데 불교계의 복지 체제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이는 불교계 복지시설 가운데 90년대 이후 설립 및 위탁 운영하기 시작한 시설이 전체 시설의 73%에 이른다는 점에도 그 연유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불교계 복지시설은 대상자나 지역분포에서 특정 분야에 편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설의 88.8%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이 역시 수도권이나 경상남북도 지역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자원봉사자나 후원금의 규모는 시설이 소재한 곳의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데, 자원봉사자의 경우, 1주일 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평균 인원수는 29명이고, 가장 작은 인원은 5명, 가장 많은 인원은 120명이다. 후원자의 경우 역시, 1개월을 단위로 한 평균 인원수는 89명이었으며, 가장 작은 경우가 10명, 가장 많은 경우가 500명에 불과하다. 이는 소수의 시설만이 후원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계시설 400곳 수적 성장 불구
최하층 이용률 저조-지역 편중

● 대책은

이에 따라 "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다. 종교사회복지포럼 권경임 회장은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불교계는 우선 위탁사업에 치중하는 것에서 탈피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탁사업이란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지' 이미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교계 복지영역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의 폭을 넓힐 수 없다. 특히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다. 타종교와 비교해 불교계 복지시설 중에서 노숙자 보호 시설이나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수용하는 호스피스 시설이 부족하고 에이즈나 나병 환자의 수용 시설이 전무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이와 함께 불교계 NGO의 활동방향이 생명을 가진 모든 중생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들을 구제하려는 불교정신을 기반으로 한 사회참여와 실천방향을 모색하는 데 주력, 이들과의 연계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이티에스나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등의 활동에 주목해야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국가나 민간 차원의 복지 사각 지대를 채워주는 소극적인 불교사회복지에서 공공역에서 개인의 생활권을 확보하는 보다 적극적인 불교사회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복지관 못오는 노인에도 자비 베풀어야"

인터뷰 권경임 종교사회복지포럼 회장



"불교계 복지 분야에서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면에서 자생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는 위탁에 의존하지 않는 불교사회복지의 장을 한시라도 빨리 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교사회복지포럼 회장 권경임 씨는 불교계의 사회복지 영역에서 '자생력'이 가장 시급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녀에 따르면 불교사회복지는 국가나 민간복지의 사각 지대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설 위탁에 치중할 경우 그 역할을 다할 수 없다.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의 수가 증가하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그 수만으로 불교사회복지의 척도를 가늠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게 권 회장의 지론이다.

권 회장은 "복지관 위탁 운영하기에 앞서, 복지관에 오지 못하는 가장 소외받은 어르신들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 요구되는 게 바로 인력과 재정이다. 타종교에 비해 노숙자 시설이나 간병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에이즈 환자 보호 시설이 없는 것도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권 회장은 "'불교사회복지학'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에 따르면 불교 사상과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불교사회복지가 가장 소외 받을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체계를 잡는 첩경이라는 것이다.

"복지란 쉽게 말해 복을 짓는 일"이라는 권 회장은 "복인(福因), 복행(福行), 복과(福果)라는 말은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지를 보여 준다"며 "불교사회복지의 과정, 즉 그 체계를 잡는 일에 불교 복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 — 2001년 9·10월호

불교와 문화

이제 인터넷에서도 『불교와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www.kbpf.org

인터넷이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니라 쌍방향이 서로 교류하여 법전을 도모하는 장인만큼 『불교와 문화』도 지역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유로운 사이버공간에서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합니다.





특집

종교 민영교도소 도입과 불교계의 방안
2003년 종교 민영교도소 개소에 앞서 불교계와 타 종교계의 추진현황 및 외국의 민영 교정시설의 운영사례와 효과를 집중 조명한다

특별기고 / 2001 중국기행 1
장장 40여 일 동안 광활한 대륙의 여정이 현장감 넘치게 권처지는 일지
스님의 중국 여행기.
제1화 - 실크로드의 관문, 장안(長安)에서 현장과 의정을 만나다

해외불교 법문 - 일본 釋불교를 미국에 포교한 스즈키 순류 선사
따뜻한 마음으로 하는 수행

연암 박지원의 불교이야기
「선귤당기(蟬橘堂記)」 - 사람의 이름은 매미의 허물이나 귤의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

화보특집 - 밀교의식이 강한 일본의 불교 의식구



부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Buddha do?
옛사랑이 그리워질 때…

성낙주의 문화재소설 - 경주 분황사 '약사불과 모전석탑'
풍일의 승천(昇天)

안물포커스 - 한국불교의 거목을 찾아서(마지막 회) · 보시/신행
춘회 고자화 거사, 불국생 김미희 보살

▶ 그동안 연재된 7개 분야 총 26명의 불자들
· 학술 - 김잉석, 김영수, 황의돈, 박봉석
· 재가불교운동 - 장경호, 조인화, 윤주일, 여동명
· 언론/출판 - 장상문, 이한상, 이희익
· 문화/예술 - 고유섭, 한영숙, 서창업
· 문학 - 김달진, 조지훈, 오상순, 양전식
· 사회운동 - 유대치, 김기추, 김성숙, 전진한
· 보시/신행 - 백선행, 김부전, 고자화, 김미희

격월간 불교와문화 전화 : (02) 719-2606, 팩스 : (02) 719-5052 인터넷 홈페이지 : www.kbpf.org ▶ 정가 7,000원, 1년 6호간 구독료 42,000원

불교의식 (범음 범패) 수련생모집

바라작법 특별반 모집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범패)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 합니다.

● 수련과정 : 특별속성반 3개월 과정
● 지도과정 : (1) 출강 …… 매주 수요일·금요일 오후 5시~7시(2시간)
(2)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 학습내용

① 송주편 (도량석·조석종성 등)
② 예경편 (상단예불·조석예불·각단예불·향수해례·사성례·신중단 등)
③ 헌공편 (삼보통청·중단퇴공·불공시식·관음·지장·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49재·시다림·기제사·명절제사·방생의식 등)
⑤ 시식편 (관음서식·화엄시식·구병시식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 접수마감 : 2001년 10월 9일까지(현재 접수 중)
●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서류 제출
● 개강일시 : 2001년 10월 12일 금요일 오후 5시, 본 대학 강의실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원의 특징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지도와 편의 제공
· 실제로 법회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위 치 : 서울 조계사 근처

바라작법반 모집

● 49재, 천도재 등 법회시 바라 작법 및 북·태징·사물 다루는 법을 자세하고 완벽하게 지도합니다.
● 수련기간 : 6개월
●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목요일 오후 4시~ 6시 (2시간)
● 개강일시 : 2001년 10월 16일 화요일 오후 4시
● 학습내용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법주·바라지 교육전문)
· 작법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복청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 사물 : 북, 태징, 사물교육포함
● 접수방법 : 불교의식 속성반과 동일함

한국불교법사대학 부설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전화 (02)720-1836·733-1959
Fax (02)737-5305
http://pubsa.buddhism.org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㉗

이어서 여래출현의 10가지 모습 가운데 '여래의 신업(身業)'에 대한 게송을 보자.

"비유하면 마나사 용왕이 이레 동안 구름 끼고 비 안 내리며 중생들이 하던 일 다 마친 후에 비로소 비를 주어 이익하나니(譬如摩那斯龍王 興雲七日未先雨 待諸衆生作務竟 然後始降成利益) / 십력(十力) 세존 법문도 그와 같아서 중생을 먼저 교화 성숙케 하고 그 뒤에 매우 깊은 법을 말하여 듣는 이를 놀라지 않게 하오며(十力演義亦如是 先化衆生使成熟 然後爲說甚深法 令其聞者不驚怖)."

이 내용은 마치 법화경에서 '중생의 근기가 무르익기를 기다려 비로소 일불승의 차원 높은 법을 연설하신다'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니, 부처님의 한없는 자비를 느끼게 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여래의 의업(意業)'에 대해 '허공의 비유'로 말하였다. "마치 허공이 모든 물건의 의지가 되지마는 허공은 의지한 데가 없나니, 여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세간 지혜와 출세간 지혜의 의지가 되지마는, 여래의 지혜는 의지한 데가 없느니라(譬如虛空 爲一切物所依 而虛空 無所依 爲一切世間出世間智所依 而如來智 無所依)."

이어서 여래의 지혜가 모든 중생에게 이미 골고루 갖추어졌음을 말하고 있다. 세존이 말씀하시기를, "이상하고 이상하다. 중생들이 여래의 지혜를 구족하고 있으면서도 어째서 어리석고 미혹하여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가(奇哉奇哉 此諸衆生 云何具有如來智慧 愚癡迷惑 不知不見고). 내가 마땅히 성인의 도(道)로 가르쳐서 허망한 생각과 집착을 영원히 여의고 자기의 몸 속에서 여래의 광대한 지혜가 부처와 같아서 다름이 없음을 보게 하리라"고 하신다. 그리고 결론으로, "만일 허망한 생각을 여의기만 하면 온갖 지혜와 저절로 생기는 지혜와 걸림 없는 지혜가 곧 앞에 나타나게 되리라. …어리석은 이는 허망한 생각과 집착함으로써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이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런 부분도 선사들이 법문에서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다.

여기서 잘 알려진 '약나무(藥王樹)와 큰 경책(大經卷)의 비유'를 보자.

"설산에 있는 약나무 다하지 않는 뿌리라 이름하여 모든 나무의 뿌리와 줄기 잎새와 꽃과 열매 내나니 / 여기 크나 큰 경책 있어서 삼천 세계와 분량 같은데 한 작은 티끌 속에 있으며 온갖 티끌도 모두 그러해 / 어떤 총명한 사람이 있어 맑은 눈으로 분명히 보고 티끌 쪼개고 경책을 내어 여러 중생을 모두 이익케 하네."

이처럼 '온갖 곳에 다 있는(無處不至) 여래심'은 화엄학자들이 여래장(如來藏) 사상의 증거로 보아서 '법계연기(法界緣起) 사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어서 '여래의 반열반(般涅槃)'에 대한 경문을 보자. 이른바 '출현하시나 열반하시나 항상 고요한(出沒常寂) 모습'이다. "불자여, 부처님 여래는 중생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내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사모함을 내게 하려고 열반함을 보이지마는, 여래는 참으로 세상에 출현함도 없고 열반함도 없느니라(佛子 諸佛如來 爲令衆生 生欣樂故 出現於世 欲令衆生 生戀慕故 示現涅槃)."

"이는 세상 뛰어난 제일 보배며 이는 여러 중생 구제할 이며 이가 능히 청정한 도를 내리니 그대들이 지니고 방일치 말라(此爲超世第一財 此能救度諸群品 此能出生清淨道 汝等當持莫放逸)."

▩봉선사 능엄학림 연구원

망념 여의면 지혜 나타나

불성 누구나 지녀 … 방일 말고 수행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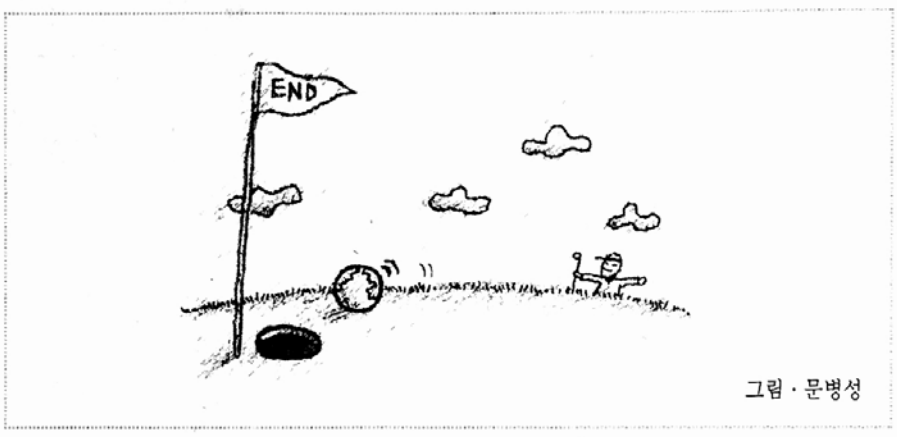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연기사상, 환경위기 탈출구

불교와 과학 〈46〉

후기 산업사회라고 불리는 오늘의 문명 사회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극대화하고 있지만 그 대가로 우리들은 많은 부분에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러한 강요된 희생 속에서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자조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이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구도와 약육강식론이라는 오늘의 산업사회를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 구조적 이해는 서구 문명사에 대한 역사적 조망 아래서 가능하다. 그리고 그 질문은 반드시 대안을 찾아나서는 위기 해결의 적극적 프로그램과 연계되어야 한다.

불행히도 그러한 질문은 직접적인 해결책에 대한 답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어찌 보면 우리 시대의 진정한 질문은 직접적인 해답을 강요한다기보다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 아닌 것으로 알고, 문제가 되는 것을 진짜 문제로 삼고 풀어 가려는 올바른 문제 상황의 진입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역사 현실에 대한 잘못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날 가장 큰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환경 문제이다. 오늘의 환경 문제는 심각한 인간 위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전 지구적인 환경 파괴 문제 그리고 경제적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오늘, 나의 삶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하는 실존적 질문은 왜곡된 이 시대의 신념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 그 중의 하나는 과학과 기술이 오늘의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환경문제

산업사회 과학 기술
물질 풍요 이뤘으나
인간소외 · 생태파괴
이기심 · 허영의 수렁

이러한 오도된 신념들을 비판하는 문명비판은 여전히 소수의 불평으로만 여겨지고 있다. 진짜 심각해져만 가는 현대 문명사회의 인간성 상실과 인간 소외의 문제는 희망찬 문명 옹호의 과학주의 미래학에 밀려가고만 있다. 문명비판과 문명 옹호가 공존하는 사태의 한 사례가 바로 오늘의 환경문제이다.

이제 환경 문제를 단순히 쓰레기 종량제나 우유팩 모으기 혹은 계몽 차원의 자연보호운동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보다 먼저 오늘의 환경 위기의 정신적 배경을 제공한 물질문명의 역사를 제대로 보는 사회적 안목이 요구된다. 동시에 자연과 나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하는 생태학적 안목이 요구된다. 환경 논의에서 생태학은 매우 중요하다. 살아 있는 생명의 생태계를 죽어 있는 무생명적인 기계처럼 다루는 일일랑 그만두고 물질에 얽매여 있는 중생들의 실증주의적 사연(使然)의 피폐함을 지적하고 자연의 호흡을 같이 하자고 말하는 것이 바로 생태학적 안목이다.

예를 들어보자. 좁은 이 땅에서 골프를 치러 가기 위해 그 비싼 회원권을 사야 하고,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산림이 파괴되고 그 와중에 골프장 허가를 받기 위해 거액의 뇌물이 오간다. 또 환경 영향 평가를 조작하기도 해서 주민의 의사를 묵살하는 경우도 나온다. 그렇게 만든 골프장의 외국잔디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살충제를 뿌리다 보니 지력이 급속히 약화되어 해가 갈수록 더 센 농약을 뿌려야 한다. 그러니 비 올 때마다 잔류 농약이 흘러 내려가 마을의 수원지를 오염시킨다. 싸움에 지친 골프장 주변의 농민들이 하나둘씩 보상금 몇 푼 쥐고 도시로 와서 도시 빈민을 형성하고, 정부와 언론 매체는 이를 사회 문제라고 매도한다. 농약은 근처 하천으로 흘러와 결국은 대도시 상수원 보호 구역까지 오염시켜 도시 사람이 집에서 마시는 물이 오염된다. 그래서 이름 모를 관절통이나 암에도 걸릴 수 있게 되자 부자들은 몇 백만 원 하는 정수기를 들여와 빈부간의 위화감을 만들어 더 큰 사회 문제를 낳는다. 결국 골프와 수돗물 오염 사이의 생태적 인과 관계, 골프장과 사회 문제 사이의 생태적 인과 관계가 너무 멀어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과 허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현대 과학의 성과는 우리에게 풍요로운 물질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생명의 생태학적 인과의 끈들을 잘라 버리고 말았다. 그로부터 오는 인간 소외는 말할 것도 없으며, 환경 파괴는 볼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생태학적 인과의 끈은 과학적 인과관계와 달리 매우 우회적이고 멀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끈을 되살려야만 우리 현대문명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 생태학적 인과관계는 진여의 인과 관계인 연기의 틀과 그 모습을 같이 한다. 그래서 현상적인 물질의 인과 관계에 눈이 어두워 몸이 팔려 가는 현대문명의 아픔은 생태학적 관계를 수용할 때 조금은 극복할 수 있다. 불교의 이야기를 단순히 너무 멀고 추상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인과의 긴 끈을 보지 못하고 있거나 개발의 도구로서 겉치레 환경을 말하는 것이다. 불교의 생태학적 사유 방식이 비록 물질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가장 빠른 환경 위기 탈출의 길임을 자신 있게 말해도 될 것이다.

▩최종덕/상지대 교수 jdchoi@chiak sangji ac kr

타종교 이해할 때 폭력 · 갈등 사라진다

지구촌 불교 / 美 종교지도자회의

미국 테러 참사가 종교 간의 대화와 화해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9월 24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리하이(Lehigh) 계곡에 700여 명의 종교지도자들이 모였다. 이곳 유대교 교당에 불교, 기독교, 가톨릭, 이슬람교, 유대교, 시크교 등의 종교지도자들이 모여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는 한편, 테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종교의 역할을 자문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자리를 마련한 크리스틴 넬슨(Christine Nelson) 목사는 "리하이 계곡에서 전례 없는 종교지도자 모임을 계획한 것은, 다른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에서 오는 오해나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미국 종교계의 다양성을 상징하는 펜실베이니아 주의 종교지도자들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리하이 계곡에 개원된 30여 수행기관의 협의회 회장이다. 펜실베이니아 주는 미국의 주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종교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리하이 계곡은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각 종교의 수행기관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이날 펜실베이니아 불교계 대표로 참석한 케빈 워텔(Ven. Kevin Wartell) 스님은 "문명 간 차이가 폭력적 충돌을 이끌어 왔다는 주장은 허구이며, 오히려 20세기에 가장 폭력적인 충돌은 문명들 안에서 일어났다"며 "역사적으로 전쟁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은 종종 왜곡되어 왔고, 위정자가 정치적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을 선동하는 데 이용해 왔다"고 말했다. 스님은 리하이 계곡에서 베스 엘(Beth El) 선원을 운영하고 있다.



◇2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테러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한 종교지도자들.

불교 · 기독교 · 이슬람 등 700여명 모여
테러 희생자 추모 … 종교간 대화 역설

엘타운시에서 성당을 운영하고 있는 리차드 포드(Rev. Richard J. Ford) 신부는 "진정한 종교간 대화는 개인의 종교성을 심화시켜, 이웃 종교와 평화롭게 협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준다"며 "이 모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 연방, 세계로 확대될 때 진정한 종교 화해의 시대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유대교 협의회 의장인 필리스 미덴도르프(Phyllis Middendorf) 는 "어느 시대에서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삶의 방식을 잃지 않았다"며 "이 방식이야 말로 인류 발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모닝 콜(Morning Call) 지는 "종교 지도자들은 정의나 가치가 특정 종교나 문화에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세계화 시대에 오히려 서로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에선 과거보다 더 문화적 차이가 민감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고 평가하고, "이해와 상호 존중의 원칙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임을 재확인하고, 인접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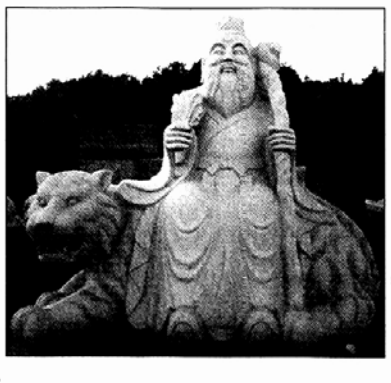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특허

"BBS불교방송 (길을 찾아서) 출현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 · 법복 · 누비 · 바랑 판매 안내

◉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 특징 :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연꽃, 옴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등록됨.

◈추동복 : 촉감이 매우좋고 맵시가 있으며 착용감이 아주편함.
◈누 비 : 고급원단으로 촉감이 부드러우며 소매 끝에 바람이 들지않게 보온성이 우수함. (누비상하, 누비두루막, 누비방한복, 누비보온복)
◈장 삼 : 추동장삼으로서는 아주 가볍고 구김이 많이 가지않는 고급스러움을 더한 장삼.
◈가 방 : 이중방수처리하여 물이 스며들지않고 언제나 모양새가 일정함이 특징.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제팔란을 소멸함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판매가격표

스타일		구 분	판매가
추동복	저고리 바지, 조끼	남 · 여	150,000
	두루막	남 · 여	130,000
	동 방	남 · 여	120,000
누비	上 下	남 · 여	190,000
	두루막	남 · 여	160,000
	방한복	남 · 여	130,000
	보온복	남 · 여	70,000
장 삼 (조계종 태고종)		남 · 여	220,000
손가방		中	28,000
		小	23,000
마당 (연꽃무늬)			30,000

※ 차이나, 라운드, 신도복등 다양한 제품을 준비함.

지역 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섬유

본 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F302호
전 화 : 053)764-4114 H · P : 011)9850-4400





◇속사댐 예정지. 왼쪽에 물막이 공사가 끝나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마을이 물에 잠기게 된다.

조계종 환경위 · 불교환경연대, 울진 속사댐 예정지 답사

"수달 뛰놀고 은어 노닐게 그대로 둬라"



◇한국 최대의 금강송 군락지.



◇속사댐 인근 지역인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삼층석탑(보물 498호).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댐 건설 예정지 중 한곳인 경북 울진의 왕피천.

'우리나라의 마지막 남은 원시하천' '전국 유일의 1급수 하천'으로 일컬어지는 왕피천이 댐 건설 예정지 선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직면하자 지역 주민은 물론 댐 예정지인 통고산에 등을 맞댄 천축산의 불영사(주지 일운)는 적극적인 반대에 나섰다. 8월 17일 불영사 스님 70여명과 신도들은 왕피천의 자연 생태적 가치를 지키기위한 댐 건설반대투쟁위를 결성했고, 24일에는 '7만 군민과 불제자들은 왕피천에 댐을 건설하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속사댐 건설 결사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처럼 불영사를 중심축으로 하여 댐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성타)와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9월 24, 25일 양일간 불영사를 방문하고, 댐 건설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손병일)의 도움을 받아 왕피천 현장답사에 나섰다.

현장답사에 앞서 성타스님은 일운스님과 손병일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 일에 불영사가 적극 활동해줘서 감사하다"며 "이번 답사는 댐 건설 예정지를 둘러보고 그곳의 생태적 가치를 확인하는 한편 수행환경보존과 함께 생태계 보전이라는 중요한 일에 뜻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피천은 56km에 이르는 계곡을 끼고 있어 수량이 풍부할 뿐 아니라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 천연기념물 217호 산양을 자주 볼 수 있을 정도로 생태계가 안정되어 있다. 또한 하늘다람쥐, 담비, 까치, 삼모사, 자라, 구렁이, 물두꺼비 등 각종 희귀 동식물이 자생하고 있는 생태의 보고이다. 그리고 왕피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은어와 연어떼를 만나는 일. 봄에는 황어, 여름엔 은어와 참게, 가을에는 연어가 이곳을 찾는다.

그동안 수백번도 넘게 왕피천을 드나든 손병일 댐 건설반대투쟁위원장은 "이곳이야말로 가장 미래적인 자산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댐건설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의 자연유산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천축산 불영사 일운스님,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장 성타스님, 댐건설 반대투쟁위원회 손병일 위원장 등이 속사댐 예정지 현장 답사에 나섰다.

56km 계곡-금강송 군락지 훼손 불보듯

'왕피천 지키기' 스님과 주민들 뭉쳤다

빼곡히 들어선 송림을 뚫고 달려 건교부가 종저수용량 약 2억톤의 댐을 짓겠다고 발표한 댐예정지인 울진군 서면 왕피리 속사마을에 도착했다. 왕피천 상류부터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마을은 댐이 건설되면 모두 수몰된다.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 2천5백여 명과 정부로부터 10억의 지원금을 받아 조성된 친환경농업 조성지구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건교부는 계곡이 깊은 이곳의 산세를 이용해 쉽게 물길을 막아 유역면적 215.3㎢, 저수면적 4.8㎢, 높이 118m의 댐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을 둘러본 답사단 일행은 수심이 330m에 이르는 댐 건설은 인근 계곡의 심각한 자연 생태 파괴와 더불어 왕피천 하류의 건천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황당한 발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댐이 건설되면 우리나라 보종소나무인 금강송의 최대 군락지인 이곳과 인근 소광리에 위치한 1,610ha 면적의 금강송 유전자보호림에 피해를 줄 것은 불보듯 뻔하다.

답사를 마친 후 일행 모두는 "자연과 공생하는 인간이 너무 과욕을 부리고 있는게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영사가 불교수행환경 지키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문제나 자연환경을 지켜내는 보다 포괄적 환경문제에 연대했다는 값진 의미를 확인하며 답사는 끝이 났다. 그러나 불교계 환경운동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게 될 앞으로의 행보는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10월부터는 불영사를 주축으로 서명운동, 가두캠페인, 왕피천 살리기 탯목행사 등을 펼치며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한다. 원시의 적막을 담고 흐르는 왕피천의 맑은 물줄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천미희 기자 mcheon@buddhapia.com



"가꾸고 보존할 자연환경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복입니다. 온 노력을 기울여 왕피천의 속사댐 건설을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불영사 주지 일운스님의 속사댐 건립 반대 의지는 확고했다. 스님은 "우리나라 으뜸의 생태적 보존가치까지 갖춘 왕피천을 지키는 것은 한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스님은 "나부터 불한방울이라도 아끼겠다는 바른 마음과 실천이야말로 댐 건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며 "정부도 댐 건설 중심의 수자원 정책을 지양하고 다각적인 물부족 해소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일운스님이 댐 반대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불영사 대중 80여 스님의 친환경적 생활태도로 볼 때 가만 있는다면 더 이상한 일이다.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밀가루를 풀어 설거지 하는 등 불교적 환경관에 투철한 스님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 내의 크고 작은 일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불영사로서는 망설일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일운스님은 "수많은 선지식들이 불영사를 창건하고 지켜왔듯이 불영사를 있게 한 이 계곡과 자연을 지키는 것은 스승님들의 노고를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또한 자연을 보존하는 일은 복을 짓는 신나는 일"이라며 "많은 분들이 왕피천 살리기에 뜻을 모으고 있으니 반드시 속사댐 건설계획은 백지화될 것"이라고 수행자다운 전망을 내 놓았다.

'속사댐 반대' 불영사 주지 일운스님

"자연환경 보존은 복짓는 일입니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오미자순채차



"스님, 저와 함께 하산하시죠. 이제 곧 눈이 쌓이면 거동이 불가능합니다." 노 선사는 눈 한번 뜨지 않고 앉아 있었다. 개화승 이동인이 스승 대치 거사를 마지막으로 볼 때였다. 이동인은 준비해 간 식량만 내려놓고 혼자 하산해야 했다. 대치 거사의 본명은 유홍기(劉洪基)로, 당시 품도 없는 대현(大賢)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가 머물던 서울 관철동은 청포(靑布), 갓(笠), 신발(鞋), 철물 등을 파는 전(廛)들이 많아서 북촌(北村)의 양반들은 체면 때문에 잘 찾지 않았던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 사대부가 귀인(貴人)들이 행차하고 부마(夫馬)까지 머리를 낮추어 찾아들었다. 그중 고종이 오직 그의 담만 믿었다는 김옥균과 철종의 사위 박영효, 승지 서광범, 중국 원세개의 통역관이던 오경석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드나들었던 것이다. 대치 거사의 초막 주위엔 긴장이 감돌고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던 그날은 갑신정변 쿠데타 전야로 주역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들었다.

"제군들은 일본의 정략을 아는가?" 대치 거사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기껏 보병 일백이 청병(淸兵) 5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겠네. 때를 기다리며 불교숭신(佛敎崇信)으로 일하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대치는 말없이 차를 끓여 건네었다. "이 차맛이 내 가슴일세. 이건 오미자 열매인데 음식 중에 이만한 것이 없어 오늘 그대들과 마지막 음식을 삼고 싶네." 대치는 이미 앞일을 예견하고 있는 듯했다. 다음날 삼일천하가 선포되고 혁명이 성공하는 듯했지만, 대치는 광동전에서 오미자 몇되를 사 곱게 가루로 만든 다음 어둠을 뚫고 총총히 한양을 빠져나가 오대산을 향했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모색)의 저자

기침에 좋고 장복하면 활력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오미자액 4컵, 순채 20그램, 꿀 1컵, 녹두녹말가루 3큰 술

요리법 ① 미지근한 물에 오미자를 우려낸 물에 꿀을 타서 차게 해둔다. ② 순채잎에 녹말가루를 입혀 끓는 물에 살짝 데쳤다가 재빨리 건져 찬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뺀다. ③ 이를 오미자꿀물에 띄워낸다.

재료 ① 호흡기계통의 기능 저하를 개선하고 기침, 가래를 없앤다. ② 체력 증진, 자양강장제 ③ 피로회복 및 눈을 밝게 한다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함월 선사 '覺心'

漏屋虛窓影自淸(루옥허창영자청)

선사의 법명은 해원(海源), 법자는 천경(天鏡), 법호는 함월(涵月)이며, 속성은 국씨(鞫氏)다.

함경도 함흥에서 살고있던 어머니 조 씨는 어느날 꿈에 큰 물고기가 몸을 감싸는 것을 체험하고 잉태하여 열달이 훨씬 지난 조선 숙종 17년(1691)에 태어났다.

선사는 세 살 때 어머님을 여의고 계모 밑에서 유년을 보내다가 14세에 문주(지금의 함경도) 도창사 석단 장로를 찾아가 출가하였다. 그 후 영지 대사에게 구족계를 받았고, 환성 지안 선사에게 수참하였다.

선사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축시에 잠을 자고 인시 초에 일어나 정진하였다. 잠자는 시간은 하루 2~3시간이었으며, 백우선(白牛禪:〈법화경〉 비유품에 나오는 일화의 주인공 하얀소가 비장다력하고 그 행동이 바람과 같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선)수행을 하였다. 이러한 수행은 10년만에 종문(宗門)의 묘전(妙詮)을 모두 배워 마쳤다.

선사는 용맹정진 10년만인 가을의 어느날 밤 가부좌하고 입정에 들어있는데 갑자기 불어온 회오리바람에 낙엽이 창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확연대오(廓然大悟)하였다.

永劫燈光破暗來(영겁등광파암래)
滅時虛空影自淸(멸시허공영자청)

영겁(永劫)따라 밝혀온 등불,
꺼지고 켜짐도 없는 아름다운 밝은 빛.
삼라만상 깨끗이 할 청아한 바람 일어난다.
타락된 선실 허공의 창에 비친 나의 맑고 맑은 마음이어라.

자연을 초월하는 선사의 깨침은 청아하다 못해 생멸(生滅)도 없어 보인다.

당시 쇠잔해지는 지리의 등불에 불을 켠 선사는, 삶에 있어서 허망 속에 내재한 진실된 그 무엇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이의 구현에 힘쓰라고 가르쳤다.

선사께서 깨친 혜안은 현종(玄宗 : 현묘(玄妙)한 종지(宗旨), 즉 부처님(佛)의 통각(通覺))이다. 세속적 물욕에서 벗어나 청아한 삶을 살라는 선사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미혹한 중생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다.

돌아보니 천지는 삼천대천세계
견줄수 없는 마음 어떻다 말하리

각심(覺心)

範圍天地大(범위천지대)
絶對有何倫(절대유하종)
可笑觀心者(가소관심자)
量空又繫風(양공우계풍)

돌아보니 천지는 삼천대천세계,
견줄 수 없는 마음 어떻다 말하리.
이렇게 맑고 밝은 마음,
그 크기와 무게를 어떻게 논하리.

심등화(心燈花)

歷劫傳傳無盡燈(역겁전전무진등)
不會桃別鎭長明(불회도별진장명)
任他雨麗兼風亂(임타우쇄겸풍란)

선사는 "가장 행복한 삶은 어떻게 사느냐"는 질문에 언제나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終日忘機坐(종일망기좌)
諸天花雨飄(제천화우표)
生涯何所有(생애하소유)
壁上掛單瓢(벽상괘단표)

세상일 잊고 고요히 앉아있노라니,
천지엔 온통 분분한 꽃과 비 뿐이네.
내게 있는 건,
다만 벽에 걸린 표주박 하나뿐.

이것이 선사가 설한 가르침의 정수이다. 선사는 살아있을 때 어금니가 빠지면서 그 자리에서 사리(舍利)가 나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에 선사를 천하제일의 각자(覺者)라고 종도(宗徒)들은 입을 모았다.

영조 46년(1770)에 안변 석왕사에서 열반에 드셨다.

■경주 해회선원 회주

가까이서 뵌 큰스님

법공스님

도안사 조실

"마음자리 깨닫는 것이 가장 큰 복"

기자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은 충혈돼 있었다. 책 한 권과 그 옆에 나란히 펼쳐져 있는 앨범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84살이라고 하기어는 매우 건강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세월은 세월인 것을, 골똘히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이런 추측은 빗나갔다. 오전부터 법공스님은 지관스님이 쓴 〈한국고승비문〉을 보고 있었다고 하셨다. 〈한국고승비문〉은 우리나라 고승 332명에 대한 비문을 수록한 책으로, 여기에는 스승인 한영스님의 비문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다. 스님은 한영스님의 비문을 보다가 옛 생각에 앨범을 꺼내 지난날을 회상하고 계셨던 것이다. 스님의 요즘 근황을 여쭈었다.

"나이가 들어 뭐 할 게 있나. 때 되면 예불하고, 가끔은 사찰에서 진행되는 의식을 집전하고, 경전이나 보는 게 전부지. 매달 보름에 도선사에 가서 법문을 하고. 도선사에서 법문한지는 10년이 넘었을 거야. 요즘엔 〈한국고승비문〉과 〈화엄경 현담〉을 보고 있는데, 아직 다 보지는 못했어."

매달 보름 도선사서 법문

〈한국고승비문〉의 몇 쪽을 넘기자 332명 스님의 목차마다 검은 펜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이 보였다. 표시해 놓은 스님은 읽은 부분이라고 하셨다. 어림잡아 100여 명은 될 것 같았다. 스님은 그 중 선조 때 선승으로 명망이 높았던 진묵스님에 대해 말씀하셨다.

"존경할 만한 큰스님들이 많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진묵스님을 좋아하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 진묵스님이 출가한 절이 봉서사였는데, 그 절 주지스님이 신중단에 다기물 올리는 일을 진묵스님에게 시키셨던가봐. 하루는 주지스님 꿈에 신중이 나타나서는 부처님이 올리는 다기물을 앉아서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는 거야. 그때부터 그 주지스님은 진묵스님에게 다기물 올리는 것을 그만두게 했다는 얘기가 있지."

법공 스님은 〈진묵스님 행장〉이라는 얇은 책을 펼쳐 보이셨다. 온통 한문으로 돼 있어 기자로서는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었다. 스님은 자상하게도 한문을 읽어내려가면서 책 내용을 설명해 주셨다.

"봉곡 선생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봉서사 아래 살고 있었는데, 진묵스님은 봉곡 선생에게 책을 빌려서는 절로 올라가면서 한장 한장 찢더라는 거야. 봉곡 선생이 화를 벌컥 내며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까짓 글자에 왜 매달리느냐"며 되려 봉곡 선생을 나무랬다고 그래. 그러더니 찢어진 책 내용을 글자 하나 빠짐없이 모두 외더라는 거야. 공부하는 집중력이 엄청나다는 얘기지. 그렇게 공부하는 스님을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그러나 스님이 진묵스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진묵스님의 효심 때문이었다.

"진묵스님은 출가하고 나서 어머니 제사상을 차려줄 사람이 없는 것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셨지. 누님이 한 분 있었지만 출가외인이라 그럴 형편이 못되고 해서 지금의 전라도 만경평야에 산소를 모시고 제사가 끊이지 않도록 했다는 거야. 어머니가 밥을 굶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셨던 게지."

법공스님은 효야말로 모든 행위의 근본이라고 하셨다. 뿌리 없는 자식 없고, 효가 없으면 충신도 없다고 하셨다.

> "모든 행의 근본인 효심이 사라지니 사회가 혼란스러워"

"부처님께서도 일찍이 대부모은중경을 설하셨지.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다가 해골을 보고는 절을 하며 내 전생의 부모님 유골이니 잘 받들어 봉안하라고 하신 것은 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지. 효는 인간의 근본이자 인류의 근본이기도 한 것이야.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효심이 있기 때문이지. 불교의 바탕이 효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스님은 효 정신이 아예 실종된 요즘 사회를 개탄하셨다. 손자가 할머니를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세상이 그토록 효를 생각하는 스님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는 자명한 일이었다. 스님은 경제가 불안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밑바탕에 효가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셨다.



◇법공스님은 참선하고 경 읽고 염불하는 것이 복 짓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방안이 후덥지근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무렵 도안사 보살이 점심공양을 하시고 말씀을 나누시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스님은 기자와 함께 공양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어려운 자리가 될 것 같아 사양했다. 공양간에서 막 공양을 시작할 무렵 스님께서 손님 한 분을 직접 데리고 공양간으로 내려 오셨다. 공양간이 어디인지를 설명해 주어도 될 것을, 스님이 직접 안내하시기 위해서였다.

스님께 〈화엄경〉 이야기를 들기 시작한 것은 스님의 처소에 놓인 〈화엄경〉 '서문'을 직접 쓰신 병풍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문외한이 보기에도 글씨가 세련되고 힘이 있어 보였다. 요즘에는 80권 화엄경을 압축한 〈화엄경 현담〉을 읽고 계신다면서 손가락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가리키며 마치 강의를 하시듯 말씀을 이어 나가셨다.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가. 대(大)는 다함이 없는 수다라(모든 경전)를 말하지. 작은(小) 것에 대한 상대적인 큰 것이 아니라, 무한 절대의 대(大)를 말하는 것으로, 마음 밖에 진리가 없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지. 방(方)은 바른 법을 스스로 가진 것을 말하며, 모든 존재는 이 법칙을 떠날 수 없지. 광(廣)은 마음을 여의지 않고 모든 진리를 두루 싸고 있는 것을 뜻하며, 불(佛)은 이런 진리를 깨달은 분을 의미하지. 화(華)는 꽃이 피면 모두가 좋아하

국제 불교 유적 성지순례 인도 · 네팔 · 중국 · 미얀마

인도 9일 상품가 1,690,000원

▣일 정 : 서울-방콕-캘커타-파트나-라지기르-보다가야-바라나시-쿠쉬나가르-룸비니-사라와스티-곤다-아그라-델리-방콕-서울
▣출 발 일 : 매주 목요일 출발
▣포함 사항 : 방콕 초특급 호텔 1박(관광 없음), 국제선 왕복 항공(타이 항공 이용), 인도 전지역 디럭스 호텔 숙박, 식사, 에어컨 디럭스 차량, 전일정 쓰루 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불포함 사항 : 김포공항 출국세 (25,000원), 인도 비자피 (55,000원), 카메라피, 음료수, 기사및 가이드 팁등 개인 비용

○ 캘커타 국립 박물관 관광-부처님 진신 사리 친견
○ 세계 최초의 불교대학, 날란다 대학 관광
○ 마하보디 사원 관광
○ 갠지스강 보트유람 및 황금사원 관광
○ 부처님의 탄신지 룸비니 관광

인도 - 네팔 11일 상품가 1,990,000원

▣일 정 : 서울-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파트나-쿠쉬나가르-룸비니-포카라-카트만두-방콕-서울
▣출 발 일 : 매주 목요일 출발
▣포함 사항 : 전일정 디럭스 호텔 숙박및 식사, 에어컨 디럭스 차량, 전일정 쓰루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불포함 사항 : 김포공항 출국세 (25,000원), 인도 비자피 (55,000원), 네팔 비자피 (40,000원), 카메라피, 음료수, 기사 및 가이드 팁등 개인 비용

○ 라지가트, 인디아게이트, 대통령궁
○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 불리는 타지마할, 아그라성 관광
○ 갠지스강 보트투어로 갠지스강 일출, 화장터, 황금사원,힌두인의 목욕의식 관광
○ 세계 최초의 불교대학인 날란다 유적지
○ 열반지에 세워진 보리수나무와 불교사원
○ 포카라 향발중식후 포카라 시내 관광 - 페와 호수, 데비폭포 등
○ 히말라야 일출 감상
○ 스와얌부나쓰 사원, 황궁광장, 보드나쓰 불교사원

중국 - 북경, 대동, 오대산, 태원 5일 상품가 : 599,000원

▣일 정 : 인천-북경(대동)-오대산-태원-북경-인천
▣출 발 일 : 수시 출발
▣포함 사항 : 디럭스 호텔 숙박및 식사, 디럭스 차량, 전일정 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불포함 사항 : 김포공항 출국세 (25,000원), 중국 비자피 ,음료수, 기사및 가이드 팁등 개인 비용

미얀마-양곤/바간/만달레이/사가잉 6일 상품가 : 1,690,000원

▣일 정 : 인천-방콕- 양곤-바가-폽빠-바간-파간-마달레이-민군-만달레이-양곤-방콕-인천
▣출 발 일 : 수시 출발
▣포함 사항 : 디럭스 호텔 숙박및 식사, 디럭스 차량, 전일정 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불포함 사항 : 김포공항 출국세 (25,000원), 미얀마 비자피(30,000원), 음료수, 기사 및 가이드 팁등 개인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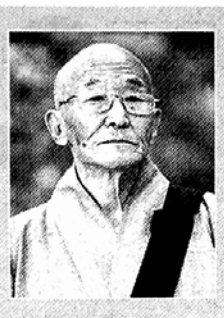


불교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주) 투바드 투어
TUVAD TOUR. CO. LTD

서울 용산구 한남동 258번지 현대리버티하우스 102-4호
Tel : 02-797-7686~7 / Fax : 02-798-3877
URL : www.gagatour.com
E-mail : master@gagatour.com

법공 스님은?

주요 강원서 20여년 강의
공부 열정 후학들에 귀감



법공스님은 성격이 다소 급하기는 하지만 자상한 성품을 지녔다. 한 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고집으로 유명하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신도들을 잘 만나지도 않는다.

법공스님을 모시고 있는 도안사 주지 혜자스님(조계종 총무원 사서실장)은 "80이 넘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포교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면 존경심이 절로 우러난다"고 말한다. 또 "옛날에 하시던 그대로 지금도 경전을 하루도 쉬지 않고 보시는 것을 보면 그 열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는 분이라고 덧붙였다.

6년째 스님 수발을 들고 있는 도안사 보리심 보살은 "스님을 보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과묵한 성격이시긴 하지만 막상 얘기를 나누면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법공스님은 1918년 서울생으로, 35년 봉선사에서 운경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40년 서울 개운사 대원암에서 한영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49년 동국대 문리대를 졸업하고 49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65년 가평 현능사 주지를 역임했다. 64년부터 82년까지 법주사 강원을 시작으로 백양사 불국사 화엄사 청암사 강원서 강사를 지냈으며, 95년부터 도안사에 조실로 주석하고 있다.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 법공스님. 80이 넘은 지금도 수행과 포교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듯 바라밀과 공덕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하며, 엄(嚴)은 이 법을 갖춰서 알리는 것이요, 경(經)은 이러한 진리를 토대로 큰 바다처럼 중생을 포용하고 몇 천 년이 흘러도 끝이 없는 규범이 되는 것이지. 서문은 〈화엄경〉의 진리를 간결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처음 〈화엄경〉을 접했을 때 모든 만물이 성불할 수 있다는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 닿았는지, 그때의 벅찬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지."

스님은 경전 중에서도 〈화엄경〉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하셨다. 여러 경전 중에서 가장 어렵기는 하지만 〈화엄경〉을 읽지 않고서는 경전의 오묘한 이치를 터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요즘 '화엄경 현담' 읽어

"불법을 공부하는 불자들이 어떤 경전부터 읽는 것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 21일간 〈화엄경〉을 설하신 다음에 12년간 〈아함경〉을 설하셨고, 그 다음 8년간은 〈방등경〉을, 21년간은 〈금강경〉을, 그 뒤 8년간 〈법화경〉을 설하셨지. 경전마다 다 특색이 있는데, 경전 공부를 하려면 〈법화경〉부터 거꾸로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렇지만 경전을 다 읽는다는 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 그게 어렵다면 〈반야심경〉만이라도 제대로 공부하는 게 좋지. 〈반야심경〉은 〈금강경〉 600부 반야를 260자로 압축해 놓은 것인데, 고(苦)도 고(苦)가 아니요, 낙(樂)도 낙(樂)이 아니요, 고가 낙이요, 낙이 고라는 중도의 이치가 담겨져 있어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조계종 교육원에서 발간한 〈강원총람〉에는 한국불교의 강맥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도표가 있다. 맨 처음 설유스님으로 시작돼 한영스님을 거쳐 운허 · 운기 · 운성 스님으로 이어져 온 강맥은

> "복이라는 것은 진리 따르다보면 자연스레 오는게지"

다시 법공 · 월운 · 지관 · 묘엄 스님 등으로 이어졌다. 웬만한 불자라면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스님들. 법공스님이 한국불교 강맥의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위상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법공스님은 운경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지만 운허스님으로부터 경을 배우고, 한영스님 밑에서 7년간 본격적인 공부를 했다. "한국불교 최고의 강백으로 꼽히는 한영스님과 운허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했다는 것만으로도 복이 터진 셈이지. 복 중에서도 인연복이 제일 아닌가. 먹고 산다는 것이 어렵던 시절에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으니 큰 복이지."

"복 말씀을 하시기에 여쭙겠습니다. 요즘 불교계에서는 기복불교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마음을 깨달아 자기 심성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기도하면서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은 옳지 않아. 장사도 투자를 해야 이득을 남기는 것인데, 하물며 복을 바라면서 자기에게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무슨 복이 오겠나. 복이라는 것은 진리를 따르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오는 게지, 달라고 해서 오는 게 아냐, 복을 지어야 오는 게지. 복 짓는 방법은 간단해, 참선하고 경 읽고 염불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 마음자리를 깨닫고 선행을 쌓는다면 그게 가장 큰 복 아닌가."

스님은 법주사, 백양사, 불국사, 화엄사 청암사 강원 등에서 20년간 강단을 지키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다. 그 가운데 스님이 말씀하시는 불국사 강원으로 가게 된 이유는 자못 재미있었다.

영월의 포교당에 있던 어느날 당시 불국사 주지 월산스님이 별안간 와서는 다짜고짜로 차에 태우더니 불국사로 데려가서는 강원에서 학인들을 가르쳐 달라고 했단다. 그래서 법공스님은 불국사가 강원을 열었던 1975년 초대강사를 지내며 3년간 이곳에서 학인들을 가르치게 됐다고 했다. 법공스님의 학문의 깊이와 열의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래, 한다고 했지. 그런데 지금은 후회스럽고 애석한 생각이 들어. 중노릇을 잘못한 게지."

강원 강단에 서서 20년간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던 법공스님이었다. 선방에서 20안거를 성만하며 쉬지 않고 정진해왔다. 근자에는 도선사에서 12년간 강설하고 법문을 하며 포교에도 열과 성을 다했다. 그런 스님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일까

"노장님을 뵐 낯이 없어." 스님은 한영스님을 이렇게 호칭했다.

"노장님 가르침을 따르지 못했어. 젊어서 좀 더 공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워. 지금은 절 밥이나 축내고 있으니 이게 어디 중이 할 짓인가. 세속에 나온 것이 잘못이지. 노장님이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는데…."

잠시 생각에 잠기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던 스님이 갑자기 웃으시며 말씀을 이으셨다.

"우리 노장님 말이야, 배를 참 좋아하셨지. 사과나 다른 것은 학인들이 훔쳐 먹어도 아무 말씀 안하셨는데, 배만 없어지면 불호령이 떨어졌거든. 공부는 참 엄하게 시키셨어. 그래서 훌륭한 강사가 많이 나왔지. 처음에 나를 가르치시더니 쓸만하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어."

한국불교 강맥의 한 위치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이치를 알만한 나이가 되면 회한에 젖어드는 것은 인지상정이리라. 법공스님도 그랬다. 지난 삶에 대한 미련은 늘 남게 마련이다. 이룬 것 보다는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클 수밖에 없다. 다만 사람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아쉬움을 채우려는 열정이 남아있느냐는 것이다.

스님은 아직도 젊은 시절 못지않은 열정이 가득했다. 80이 넘은 나이에 법문을 하고, 사찰 일을 돌보고, 아직도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에게 게으르다고 질책하고 있으니. 한국불교 강맥의 줄기에서 비중 있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끊임없는 수행의지가 아니었던들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수락산 자락에 자리 잡은 도안사의 주변 풍경은 광활하고도 아름답다. 하지만 도안사를 찾는 사람들은 그 풍경보다는 후학양성을 위해 자신을 바쳤던, 쉼 없이 탐구하고 노력하는 법공스님을 분명 기억에 담을 것이다.

글=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원욱스님의
스 님 이 야 기
경원스님

우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 깊은 잠 언저리에 술렁거림이 들어와 눈을 떴을 땐 큰방은 캄캄했다. 상반 스님들이 죽비를 들고 조심조심 큰 방의 술렁거림을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잡아가고 있었다.

옆의 도반에게 나는 졸려워 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조용히 해, 다락에 도둑이 들었어. 아까 한 30분전부터 다락에 웃장문 따는 소리가 들렸거든."

그 소리에 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우리가 자는 이 큰 방은 밖에서 보면 2층 정도의 높이인지라 그 2층에 해당하는 공간에 각각의 개인 사물함과 일년동안 대중이 먹을 쌀을 넣어두는 곳간이었다. 그 넓은 공간 안에 아쉬운 대로 탁구대가 하나 있어서 요긴하고 쓰고 있었는데 간덩이가 매우 큰 도둑께서 그 와중에 탁구를 치는 바람에 해우소 다녀오던 학인의 귀에 들려 알게 되었다고 했다.

도둑들이 우리가 깨어 난 것을 알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아직 어른 스님들께도 알리지를 못했다고 했다.

우리 모두 일어나 앉아 숨을 죽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을 때 갑자기 경원 스님이 일어났다. 그리고 2층 다락으로 통하는 문을 활짝 열었다.

배짱 두둑 결단력있는 여장부
무주상 보시 실천하는 수행자

"저기요, 아직 거기 있어요? 우리 지금 다 일어났거든요. 빨리 가세요. 들어오신데로 잘 찾아서 나가세요. 50까지 세고 올라갈 거예요. 하나, 두우울, 세에엣! 어서 빨리 가세요. 네엣!"

그 순간 우다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뛰는 소리가 나더니 조금 후에 조용해졌다. "갔지요? 스님들 올라가 봅시다."

개인 사물함 자물통들은 여지없이 다 박살이 났고 비상금들은 몽땅 털렸다. 게다가 이 배짱 좋은 도둑들은 몰래 감춰두었던 커피까지 찾아서 끓여 먹고 떠난 게 아닌가.

이 어이없는 소동으로 경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어른 스님들이 달려 오셨고 경원 스님의 행동은 당연히 어른스님들을 놀라게 했다.

"누가 도둑에게 말을 걸라고 했냐?" "스님, 저도 겁먹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잡히게 되면 일이 복잡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가지 않을까 봐 무지 걱정했어요. 죄송합니다."

경원 스님은 그렇게 배짱이 남달리 컸다. 소소한 일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다가도 무엇인가 결정을 내릴 때에는 상당히 과감하다.

스님은 내 친구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강원에서는 그런 인간관계가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았으므로 모른 척하고 지냈다. 학창시절에도 여장부 같은 기질이 있었다는 소리 들었지만 워낙 뽀얀 피부에 아주 부드럽게 생겨서 믿질 않았더니 그날 밤 도둑사건으로 스님의 진면목을 본 셈이었다.

졸업하고 난 후에 경원 스님은 대전에서 중앙불교회관을 맡아 대전시내 불자들을 위한 많은 포교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중교화에 적극 나서는 등 열심히 살고 있다는 소식을 도반들을 통해 듣고 있었다.

재작년인가 경원 스님이 근처 선방에서 결제중이라는 소리가 들리길래, 아니라고 그 스님은 지금 불교회관에서 열심히 포교하고 계시는데 무슨 선방 타령이냐고 지나쳤다.

혹시나 싶어 선방에 전화해보니 정말 그 곳에 있는 게 아닌가? 깜짝 놀라 대충 대중 공양 준비를 해서 갔더니 몹시 반가워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영락없이 십년전 그 맑디 맑던 경원 스님이었다.

왜 갑자기 떠났느냐는 질문에 아주 간단히 말했다.



"너무 오래 살았지요. 이젠 참선공부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바로 지금이 그 때인 것 같아서 법주사에 내 놓았습니다."

십여년 동안 혼자 힘으로 애써 가꾼 포교당을 후임자도 정하지 않고 대중에 내 놓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경원 스님의 노후나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건만 스님은 불사의 끝은 회향에 있다는 확신으로 자신은 자기 분상에서 제일 탁월한 선택을 한 것이라며 흐뭇해했다.

스님의 뛰어난 포교능력을 아쉬워한 캐나다의 어느 스님이 포교당 맡아주기를 권했으나 그 간곡한 청을 물리치는 것도 보았다.

경원 스님에게서 집착하지 않는 수행자, 무주상 보시 하며 떠날 줄 아는 수행자의 모습을 고스란히 읽을 수 있었다.

이번 호부터 3개월간 '스님이야기'를 연재하는 원욱스님은 59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나 수덕사로 출가, 80년 수계를 받고 동학사 강원과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하였다. 불광사, 약수암 수안불교회관 등에서 어린이 지도법사를 했으며 지금은 서울 목동 반야사에 머물고 있으며 저서로는 〈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가 있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등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편두통, 신장염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정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녹 용 경 옥 고

경옥고의 효능

〈〈동의보감〉〉에 의하면 경옥고는
1) 정이 허한 것을 충전시켜 준다
2) 뇌척수와 골수를 보하여 준다
3) 인체의 모든 부족함을 보충하여 준다
4) 정신력을 충만하게 한다
5) 오장을 모두 좋게 만든다
6) 빈혈을 고치고 체력을 증진(강장)
7) 심장을 강하게 함(강심)
8) 소변을 좋게 함(이뇨)
9) 인체의 독성을 제거함(해독)
10) 피를 북돋음(보혈)
11) 신경을 안정시킴(진정)
12) 위를 튼튼히 하고 소화를 도움

녹 용 경 옥 고
50일분 고환 42만원
문의전화 02) 742-5872
016) 231-5872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 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정강 대 진 입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불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산사음악회 … 예술제 … 신라문화제 …

단풍보다 고운 행사 풍성



◇10월에는 단풍 고운 산사로 가자. 덤으로 단풍보다 더 고운 '불교문화'의 향취에 흠뻑 빠질 수 있을 것이다.

10월을 맞아 지역자치단체와 연계한 문화축제, 산사음악회, 단풍제 등 불교문화 행사들이 잇달아 열린다.

우선 새로운 포교의 방편으로 각광받고 있는 산사음악회가 지난달에 이어 계속된다. 오대산 월정사가 성보박물관 개관 2주년을 맞아 마련한 산사음악회를 12일 오후 6시에 연다. 월정사는 산사음악회 외에 오는 11월 30일까지 월정사 용금루 상설전시장과 성보박물관 전시실에서 '사진으로 보는 100년 전 오대산의 성보문화재', '강원도 성보 유물전'도 열어, 가을 산사를 찾은 이들에게 월정사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제 흥복사는 6일 사찰내에 조성된 코스모스 공장에서 찬불가 발표회 등 가을 축제를 마련하는 한편 사찰 내 시민선방에서 전북지역 출신 화가와 서예가들의 작품 전시회를 갖는다. 전남 영암 도갑사는 7일 도선국사 성보관 개관식 기념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법회 및 산사음악회를 열 예정이다.

10월에 열리는 불교문화행사

행 사 명	날 짜	연 락 처
월정사 산사음악회	12일	(033)332-1817
미황사 작은음악회	27일	(061)533-3521
심곡암 단풍문화축제	13일~21일	(02)914-8660
도갑사 산사음악회	7일	(061)472-0521
흥복사 가을문화축제	흥복사	(063)547-7304
신라문화제	8일 ~10일	(054)779-6092
원효예술제	9일	(054)742-9922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12일~14일	(032)937-0125
성동불교문화축제	17일	(02)2292-5866
속리축전	19일~21일	(043)544-2314

8일~10일에는 신라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오늘에 되새기는 신라문화제가 열린다. 경주시와 신라문화선양회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9일 불국사에서 열리는 신라불교영산대제 시연을 비롯, 경축음악회, 불꽃놀이 등으로 진행된다. 또 이 기간에 맞춰 원효학연구원이 준비한 제6회 원효예술제도 경주 분황사에서 열린다. 풍물, 시낭송, 판소리, 무용 등 다양한 볼거리와 탑돌이 등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서울 북한산 심곡암은 13일~21일까지 부처님 진신사리친견법회, 성륜스님 선화 전시, 산사음악회 등 제3회 단풍문화축제를 마련하고, 해남 미황사도 지난해에 이어 지역 출신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만드는 작은음악회를 27일 연다.

이밖에 135년 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해군이 약탈해 간 외규장각 도서반환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강화도 전등사와 강화군이 함께하는 삼랑성역사문화축제가 12일~14일 열리고, 17일 서울 성동구민센터에서는 지역불교활성화와 결식아동 돕기를 위한 제1회 성동불교문화축제가, 19일~21일에는 충북 보은군 속리산 일원에서 속리축전이 열릴 예정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조선후기 조각서 보는 희노애락

11월 28일까지 로댕갤러리 불교조각 등 70여점 전시



◇조선후기에 제작된 나한상.

조선후기(17세기 후반~19세기)에 제작된 불교조각, 능묘조각, 토속신상 등 70여점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발견! 조선후기 조각전'이 11월 28일까지 서울 태평로 남대문 옆 로댕갤러리에서 열린다.

호암미술관이 준비한 이번 전시는 그동안 서화나 도자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져 온 조선후기 조각작품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조각의 다양한 발전상과 그를 통한 시대적 특징을 찾아보는 자리다.

조선후기는 실학의 발흥으로 실사구시의 풍조가 전 사회를 지배한 시기였고,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철화, 음악, 문학 등 다 방면에서 새롭고 신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미술에서도 이같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작품들이 제작되었다. 사찰의 불상이나, 능묘의 석인·석수들이 주류를 이루던 조선전기까지의 조각과는 달리, 조선후기에는 상여 장식의 꼭두조각이나, 분묘의 벽수, 각종 토속신상 등 다양한 종류의 조각들이 제작되었으며, 사찰에서도 나한상, 동자상, 동물상 등 보다 자유스러운 미감의 표출이 가능한 조각작품들이 만들어졌다. 전대에 비해 보다 인간적인 변모나, 희노애락의 감정표현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된 점 등이 조선후기 조각작품의 특징이다.

불교조각의 경우 얼굴만 자세히 묘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과감히 생략한 나한상과 나무를 깎아 만든 사자형법고대 등이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다. (02)2259-7881

이은자 기자



◇추석을 맞아 지역박물관들의 민속놀이 행사가 다채롭다. 사진은 민속탈춤 공연 장면.

추석연휴 박물관에 가면

민속놀이 한마당

추석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 및 각 지역박물관들이 정기휴관일인 월요일(추석)에도 일제히 문을 열고,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달의 문화재 전시'로 1일부터 한달간 〈분청사기철화천등무늬보〉, 〈백자제기〉 등 우리의 전통 제사용기 11점을 전시한다. 또한 추석 당일 오후 2시와 4시, 2회에 걸쳐 연극 '개미 가족의 가을여행'을 본관 강당에서 공연하며, 2층 로비에서는 김홍도, 신윤복의 풍속화를 목판에 찍어가는 탁본체험과 12지신상 등 전통문양 스탬프 찍어가기 행사가 펼쳐진다.

국립광주박물관은 3일까지 투호놀이, 제기차기, 윷놀이 등 '추석맞이 전통놀이 한마당'을 개최하며, 전주박물관도 3일까지 윷놀이, 팽이치기, 널뛰기 등 '한가위 민속놀이 한마당'을, 대구박물관은 대구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유물 300여점을 전시하는 '대구 5천년' 전과 팽이치기, 윷놀이, 투호, 등 '민속놀이 한마당'을 연다. 또한 공주박물관도 제기차기, 널뛰기, 팽이치기, 투호 등 '민속놀이 마당' 행사를 마련한다.(02)398-5077

이은자 기자

온라인 게임 '탄트라' 12월 출시

불교와 힌두교의 색채가 짙은 3D온라인 게임 '탄트라'가 (주)한빛소프트 온라인게임 개발팀에서 개발중이다.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이 게임은 현재 약 70% 이상이 완성된 상태로, 오는 12월 베타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체 이야기구성은 절대삼신(브라흐마, 시바, 비슈느) 중 시바의 반란으로 브라흐마가 죽고, 시바와 비슈느간의 전쟁으로 결국 시바가 제거되는데, 후에 시바가 부활해 일으킨 2차 반란을 게이머들이 저지한다는 것이다. 불교의 8신인 수라, 야차, 나찰, 긴나라, 가루라, 용왕, 천왕, 호왕이 게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게이머들은 8종족 중 하나를 선택해 게임을 이끌어 간다.



◇한빛소프트서 개발중인 온라인 게임 '탄트라'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서양 상인들이 처음 남아프리카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이다. 원주민들의 마을을 둘러보는데, 원체 가난하여 가치 있는 물건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실망하여 돌아서 나오는데, 동구 밖 큰 나무 아래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노는 구슬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닌가. 자세히 보니, 그 구슬은 바로 다이아몬드였다. 상인들은 아무 말도 않고 일단 배로 돌아갔다.

다음날 상인들은 아이들을 불러 알사탕을 하나씩 나누어주었다. 난생 처음 먹어보는 달콤한 맛에 넋을 빼앗긴 아이들은 집으로 뛰어가 엄마 아빠에게도 자랑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상인들 주위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상인들은 모두에게 사탕을 하나씩 나누어주었다. 사람들은 낯선 이방인의 넓은 아량에 감사하며 사랑의 달콤함에 빠져 들어갔다. 이런 무상 원조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되었다. 드디어 모두가 사탕 맛을 알게 되었을 때, 상인들은 물물교환을 시작했다. 다이아몬드를 가져오는 사람에게만 사탕을 바꿔준 것이다. 보석의 가치를 모르던 원주민들은 그래도 좋다고 닥치는 대로 다이아몬드를 모아다 상인에게 바쳤다.

동양사상의 기본구조 (3)

예술은 道 인간의 참마음 드러내는 일

이 이야기는 국제자본이 약소국의 원자재를 수탈하는 방법을 비유한 것이지만, 한편으로 우리에게 귀중한 정신적 교훈을 준다. 우리는 자신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싸구려에 정신을 팔고 있지 않은가? 매일매일 다이아몬드를 사랑과 바꾸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내가 지닌 다이아몬드는 무엇인가? 부처님과 많은 선지식은 우리가 가진 소중한 금강석은 바로 불성(佛性)이라고 가르쳐주었다. 혹은 알기 쉽게 '마음'이라고 하였다. 그 소중한 마음은 잃어버린 채, 물질문명의 환영만 좇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적나라한 자화상이 아닌가?

동양에선 마음을 키우는 최선의 방법을 어느 한 가지에 몰두하여 정진하는 것이라고 보고, '길(道) 걷기'에 비유하였다. 그리고 이 '도'의 원리에 가장 근접한 것이 곧 예술의 세계라고 보았다. '예술'이란 용어는 근세 일본학자들이 아트(Art)를 번역한 말이고, 원래 동양에선 '서도(書道)'처럼 모든 예술을 '도'로 취급했다. '형상'의 모사를 중시하여 '기술'이란 어원을 지닌 아트(Art)라는 단어를 예술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한 서양과는 달리, 동양에선 시서화(詩書畵)를 하나로 융합하여 무애(無碍) 무상(無相)한 참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을 중시하였기에 모든 예술은 근본적으로 도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도'의 지극한 경지는 궁극적으로 '불이(不二)'의 세계인 '선(禪)'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다. 추사가 난초를 그린 지 20년 만에 쌍계사에서 유마(維摩)의 '불이선'을 깨닫고, '글씨 쓰듯이 난초를 그리고 난초 그리듯이 글씨를 쓴' 〈불이선란(佛과 蘭이 다르지 않음)〉은 그 고고한 경지를 증명해준다.

예술의 도를 익히기에는 시일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이든 하나를 선택하여 꾸준히 정진하면, 하늘과 더불어 늙지 않는 마음을 얻을 것이다.

■문학평론가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수분흡수와 방산기능은 일반면의 3배, 무좀이나 피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30,000원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삼베목수건은 식물성섬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특유의 사각사각한 느낌이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20,0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262cm(길이)

1,400,000원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btn 불교텔레비전 32

btn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02-3270-3300 팩스: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 청 방 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

오염된 식탁 대안은 채식?

누구나 매일 먹어야 한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음식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음식 먹는 일을 최대의 즐거움으로 삼는 식도락가와 최소한의 음식만을 취하는 금욕가가 있을 수 있겠다.

당신은 어떤 쪽인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인가?

가공식품의 부작용을 샅샅이 밝힌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모색)와 채식과 생식을 전하는 〈소박한 밥상〉(디자인하우스)을 통해 바른 밥상문화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는 문명사회의 질병이 잘못된 음식에서 비롯됐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보고서다. 지은이는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편집인을 지낸 한스 올리히. 그는 산업화가 인간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병균을 해방시켰다고 주장한다. 산업화의 산물인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병원균이나 유해물질은 빈부와 남녀노소 그리고 국경까지도 불문하고 인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은이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가공식품.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오랫동안 섭취하게 되면 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식품의 세계화는 곧 질병의 세계화라고 말한다.

세균도 문제지만 가공식품첨가제 또한 심각한 상태다. 가공식품이 식탁에 차지하는 양이 늘어나는 만큼 식품 첨가물을 먹게 된다. 지은이는 경고한다. "식품 첨가물인 유화제나 안정제 성분이 들어 있는 상품을 먹지 않으려면 냉장고를 전부 비워라."

생선통조림의 위험도 심각한 수준. 스위스에서는 통조림 뚜껑이 잘 뜯어지도록 하기 위해 첨가한 화학물질이 허용치 이상 검출돼 슈퍼마켓에 진열된 통조림 3분의 1을 폐기했고, 청어통조림에서도 허용치를 넘는 화학물질이 검출돼 전량을 회수한 일도 있었다.

이밖에도 패스트푸드와 단체급식 등 지금까지 과소평가됐던 가공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얽힌 비밀들을 신랄하게 파헤친다. 부록으로 유해식품의 위협에서 건강을 지키는 비결 19가지도 수록돼 있다. 값 1만원.

'더이상 먹을게 없다'

한스 올리히 지음

질병 부르는 첨가물 등 가공식품 부작용 밝혀

'소박한 밥상'

헬렌 니어링 지음

과일 야채 곡물요리 제시 간단히 먹고 자연과 대화



〈소박한 밥상〉은 탐식이 얼마나 우리의 육체와 정신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가를 밝힌 요리철학 에세이다. 평화주의자, 엄격한 채식인으로 1백세까지 건강한 삶을 살다 간 스코트 니어링의 아내 헬렌 니어링이 쓴 일종의 반(反)요리책이다. 이 부부는 번잡한 도시를 떠나 시골에 정착해 텃밭을 일구고 최소한의 것으로 자급자족하며 살아온 50년 동안 의사나 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했다. 그 비결은 소박한 삶과 소박한 밥상에 있다. 이 책은 바로 그 소박한 삶과 밥상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지은이가 차리는 밥상에는 보통 사람들이 즐겨먹는 것들이 없다. 고기나 생선, 닭고기 등 육류는 물론 백설탕, 흰 밀가루, 베이킹 소다, 달걀과 우유도 없다. 그의 식탁은 과일과 야채, 그리고 건강에 좋은 곡물 등 채식 · 자연식으로 간소하게 차려진다. 요리의 원칙은 되도록 날 것으로, 조리할 때는 낮은 온도에서 최대한 단순하게 한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말한다. "식사를 간단히, 더 간단히, 이루 말할 수 없이 간단히 준비하자. 그리고 거기서 아낀 시간과 에너지는 시를 쓰고, 음악을 즐기고, 자연과 대화하고, 친구를 만나는데 쓰자."

이 책에서 우리는 몸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 또한 배불리 먹이는 '진짜 음식'을 만나게 된다. 먹을 거리와 먹는 행위에 대한 헬렌 니어링의 철학은 삶에 대한 새로운 미각을 일깨워 준다. 값 8천5백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남방불교 고승 설법집

'베트남 선사들의 이야기' 정천구 옮김



베트남 선종에서 가장 빼어난 선승들의 전기를 전승 계보에 따라 서술한 불교사서 〈선원집영(禪苑集英)〉이 우리말로 번역됐다. 〈베트남 선사들의 이야기〉(정천구 옮김, 민족사)가 바로 그 책이다.

〈선원집영〉은 상 · 하 두 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권에는 무언통 선사의 법통, 하권에는 비니다류지 선사의 법통 등 두 계통을 중심으로 각 종파의 개조로부터 13세기까지 선사들의 전기를 적고 있다.

베트남은 일찍 인도와 중국의 승려들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무언통이 중국에서, 인도출신 비니다류지는 중국을 거쳐 베트남에 선종을 전했다. 비니다류지가 중국 선종의 3조인 승찬의 제자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 그렇다.

이러한 사실은 베트남의 불교가 얼마나 일찍부터 개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실제로 〈선원집영〉에는 '대조록(對照錄)' '남종사법도(南宗嗣法圖)' '열조요어(列祖要語)' 등의 기록이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선원집영〉은 선사들의 언행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는다.

이 책은 베트남의 중세 불교사를 알게 해주는 자료로서도 가치가 높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종교간 화해 길트는 7대종교 입문서

'경전으로 본 세계종교' 전통문화硏 지음



얼마 전 베트남의 틱낫한 스님 설법집 〈귀향〉을 소개한 적이 있다. 이 책에서 스님은 "자기 종교 전통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종교 간의 화해와 관용 그리고 대화의 장을 여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책이 종교간 화해의 당위성을 천명한 책이라면, 한국전통문화연구회(회장 이계황)가 내놓은 〈경전으로 본 세계 종교〉는 그 길로 나아가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일종의 종합종교개론서다.

불교, 그리스도교, 도교, 동학, 유교, 이슬람, 힌두교 등 세계 7대 종교의 기본경전을 망라함으로써 종교인들이 자신의 종교에만 집착하는 편협한 태도에서 벗어나 거시적 안목으로 다른 종교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여러 종교의 경전을 비교 이해하는 것이 종교 간의 갈등을 종식시키는 지름길이라는 의도에서 기획된 이 책은, 금장태(서울대 종교학과) 교수와 길희성(서강대학교) 교수가 편집위원장을 맡고, 각 종교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7년만에 출간됐다. 불교 분야는 동국대 불교학과 김용표 교수가 맡았다.

'종교의 이해'를 시작으로 종교 나름의 특징, 인간과 종교적 체험, 종교수행, 종교의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값 6만원. 김중근 기자

'티벳으로부터의…' 김병욱 옮김



혼돈의 시대 행복한 삶의 좌표

달라이 라마는 〈티벳으로부터의 사색〉(김병욱 옮김, 수수꽃다리)에서 가치 혼돈의 시대를 꿰뚫는 생의 좌표를 제시한다.

책은 인간은 어떻게 행복에 이를 수 있는가, 죽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정신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감정이나 육체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등의 물음 외에도 교육, 생명윤리, 환경, 미디어, 경제, 정치,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 다른 종교에 대한 그의 생각 등 인간과 세상사 전반에 걸친 달라이 라마의 사상의 핵심을 잠언 형태로 간추렸다.

모두 8장으로 나누어 장마다 해설을 곁들였으며, 특히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불교를 소개한 서문, 그리고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의 관계, 중국의 티베트 억압사와 달라이 라마의 관용 정신을 다룬 에필로그는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엮은이는 저널리스트로 지난 97년부터 프랑스 제2방송 '부처의 목소리' 진행을 맡고 있는 카트린 바리 씨. 값 8천5백원.

김중근 기자

새로나온 책



▲지장보살 영험록(김종매 외 지음, 불광)= 우리나라의 지장보살 영험기 11편과 함께, 중국의 지장보살 영험기 34편이 실려 있다. 〈지장경〉을 읽고 온 정성을 다해 지장기도를 올린 뒤 갖가지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열어가고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이 마음을 넓히는 길잡이로 삼을 만하다. 값 5천원.



▲너도 겁쟁이(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엮음, 우리교육)= 어린이문학에 지난 1년 동안 실렸던 작품을 초등 고학년용으로 엮은 창작 동화집. 모두 9명 작가의 작품 9편이 실려 있다. 평생 관음보살을 보는 것이 소원인 너그러운 주인에게 세 번이나 등지고 떠난 머슴을 용서하는 주인의 모습을 통하여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콩눈이' 등이 실려 있다. 값 6천원.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여행(이화이 지음, 생각의나무)= 이 수필집의 장점은 물질적 욕망에 눈이 멀어 그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린 파우스트와 같은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찾는지 성찰케 한다. 이야기는 봄-삶의 시작, 여름과 가을-생장과 성숙, 겨울-비약 등 3부로 이어지고 있다. 값 7천원.



▲한비야의 중국견문록(한비야 지음, 푸른숲)= 지은이가 중국어 연수를 위해 1년간 베이징에 머물면서 쓴 가깝고도 다채로운 중국의 오늘과 그 속에서 깨달은 '내 안'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7년에 걸친 세계 일주와 국토 종단으로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사랑의 대상이 된 한비야의 또다른 힘이 드러난다. 값 8천8백원.



▲일류가 되는 사람, 이류에 머무는 사람(와타나베 쇼이치 지음, 문정신 옮김, 청림출판)= 노력을 했으면 대가를 받고 나아가 일류로 평가받고 싶은 게 보통사람의 생각이다. 이 책은 40년 이상 대학 강단에서 젊은이들에게 바른 삶의 모습을 가르쳐온 지은이가 그간의 경험과 동서양 문화 비교를 통한 가르침 그리고 역사적 지혜들을 모았다. 값 8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보면 사라진다	김 열 권	정신세계사
2	아, 일타 큰스님	김 현 준	효 림
3	영가현도	우 룡	효 림
4	영가현도와 49재	박 연 진	민 족 사
5	신비의 티베트 명상법	주 민 황	숨
6	나의 행자시절	박 원 자	다할미디어
7	붓다는 없다	스티븐 배첼러	이론과 실천
8	수행요론	박 현	바 나 리
9	거울	원 성	이 레
10	선림승보전(하)	원 결	장 경 각

도서 안내:(02)737-0695

여시아문 인터넷 도서주문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www.yosiamun.com

禪文化 9월 2001년 14호

선문화의 생활화를 위한 교양지



정기구독안내

1년(12회)4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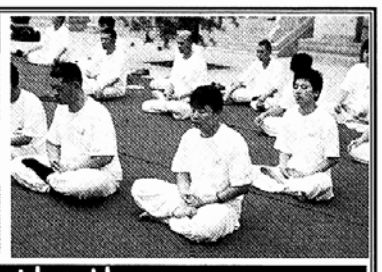
정기구독은 은행온라인이나 지로번호로 구독료을 입금하시고 전화주시면 됩니다.

구독문의:733-8076

E-mail:sildara@hanmail.net

선문화 기행 · 중국 하북성 조현 백림선사

생활 선미(生活禪味) 피어났다



화제의논문 돈오선(頓悟禪) 연구 [2]

화제의 책 숭산행원선사전서 『세계일화』 21세기 선(禪)의 종주국(宗主國) 선언

기획특집 7일 안에 깨달아라!

재가신자에게도 깨달음의 길이 있는가.
이 시리즈를 통해 7일안에 성불 할 수 있는 화두를 던진다.나를 찾는 깨달음의 길, 3시간만의 깨달음의 체험, 해안선사의 공부법인 '칠일안에 깨쳐라' 등 다양한 읽을거리가 있다.

권두법어 등롱(燈籠)과 노주(露柱) 진제

마경대 평상심(平常心)으로 살아라 동광

선과 정신문화 이원홍

인간화를 성취하기 위한 정신세계로

논쟁과 사상 윤영해

주자의 선불교 비판

집중취재 미리보는 禪文化10月호

한국선불교의 25시

1천년간 이어온 한국선에 대한 탐구 그 진실을 밝힌다.

선과 차



중국 선차의 원류를 찾아서 ⑪ · 사천성 성도시 대성자사

거리의 다관 꽃피운 무상선사 최석환

선인들의 茶話 · 이규보의 차시(茶詩)

名茶의 전설 · 대홍포차(大紅袍茶) 천병식

자순(紫筍) 찻잎의 붉은 전설

선과 문화

중국선의 사상 조국경

중국 강서성 불교의 어제와 오늘

구산선문을 가다 동리산 태안사

중국 선 동류(東流)의 현장

구산선문의 공간미학 ① 홍광표

대자연의 순리에 이루어진 불국(佛國)

「입제록(臨濟錄) 노트」를 읽고 신중순

강정중 시인께 드립니다

월간 선문화사 • 불교춘추사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원당B/D 403호 TEL:(02)733-8076, 8078 FAX:(02)723-7461

여시아문 집계 연속 1위의 화제의 신간!

이 시대 수행자들이 들려주는

나의 행자시절



풋풋했던 초발심의 행자시절을 거치며
묵묵히 출가의 길을 걷고 있는 45인의 스님들 이야기!

고봉 광우 도견 도법 도윤 동광 명고 무관 범룡 법흥 보경 보광 불굴 상륜 석주 선용 송암 송월 영진 운경 원담 원소 원타 원택 월운 응각 이두 인묵 인환 일면 일진 장일 종림 종성 지명 진월 천운 탄성 통광 혜거 혜광 혜남 혜담 효림 효명

편암함과 쉬운 길만은 가려 하는 현대인들에게
참된 수행의 길을 제시한 맵짜한 '시집살이' 이야기!

월간 〈해인〉 기자 박원자 엮음





혜남스님 감수
김영애 지음

절안의 생활, 절속의 문화재

■ 우리나라 절 안의 생활 모습과 소중한 불교문화재를 해설한 불자 필독서!

■ 불교의식에서 필수적으로 독송되는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의 원문과 해석을 실은 불교 입문서!

다할미디어 TEL 02)528-0236/7

각권 값 8,000원



◇성덕대왕신종(국보 제29호).

성덕대왕 신종 9년만에 타종

국보 제29호 성덕대왕신종(일명 에밀레종)이 9년 만에 다시 울린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박영복)은 훼손 가능성 때문에 1992년 제야의 종 이후 타종을 중단한 성덕대왕신종의 안전한 관리와 이상 유무를 측정하기 위해 9일 오전 10시 타종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신라 혜공왕 7년(771)에 조성된 성덕대왕신종은 지난 1992년까지 서울 보신각종과 함께 매년 12월 31일 제야에 타종되다가 타종이 보존 관리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중단해 왔다.

경주박물관은 신종의 지속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매년 한 차례씩 혹한기를 피해 타종하고, 진동 및 음향신호의 측정과 기록, 주파수 분석을 통해 보존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주박물관 측은 "신라 문화제 기간 중에 열리는 만큼 타종을 통해 학술조사는 물론 온 국민이 신종 소리를 듣는 데 동참하도록 문화체험 행사로 꾸밀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보조사상硏 국제학술발표회

'신라 불교학' 열띤 설전

"구전성과 비의성(秘義性)을 특징으로 하는 의상계 화엄학파는 폐쇄적이고 이론적으로 자기 완결을 추구하는 집단이었다."(사토 아츠시 · 동양대학 강사)

"비의성이 다른 교학과 집단에 대해 '닫힌 사상'을 뜻하는 것이라면 화엄사상의 본질에서 벗어난 오류를 범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해주 스님 · 교수)

지난 9월 22일 보조사상연구원 국제 학술 발표회에서는 신라 불교학의 성격을 놓고 참석자들 사이에 설전(舌戰)이 오갔다. 이 날의 주제는 '신라 유식학과 화엄학의 재검토'. 일본 동양대학 동양학연구소에서 신라 · 고려 화엄사상을 연구하고 있는 소장학자가 나서 신라 불교학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의상계 화엄학파 화엄교학만 심화"

——— 사토 아츠시

"의상학파 '법'보다 '법성'에 주목했다"

——— 해주 스님

사토 아츠시 씨는 '실천적 화엄사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의상계 화엄학파의 성격을 한 마디로 '구의성과 비전성'으로 규정짓고, 무주(無住)를 사상적 기반으로 하는 '오척성불론'을 그 사상적 특징으로 제시해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오척성불 사상'은 오척의 자기 신체가 곧 진리와 일체라는 의상학파의 사상을 다른 화엄학파와 구별하기 위해 발표자가 붙인 용어.

사토 씨는 "〈화엄경〉과 〈기신론〉 양자를 다 같이 중시했던 당시 풍조와는 달리 의상계 화엄학파는 오로지 〈화엄경〉이나 화엄교학만을 심화시킨 학파"라며 "〈화엄경〉만을 특화한 배타성 때문에 한국 내에서조차 고려 의천에 의해 비판받게 되었으며 중국화엄이나 일본화엄과 달리 다른 집단이나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에 나선 해주 스님은 "의상 중심이라면 몰라도 〈화엄경〉 중심의 교학이 어째서 전파될 리가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 좀더 고찰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주장대로라면 의상학파가 중시한 것은 법이라는 말이 되는데, 법보다 법성을 중요시했고, 오척이 아니라 오척법성에 주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오척법성 성불사상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9월 22일 열린 보조사상연구원 국제학술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의상계 화엄사상의 특징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팔만대장경 선역본' 국내 출간

고려대장경硏, 北과 계약 … 영인본 17권 묶어

고려대장경연구소는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1937년 인경(印經)해 묘향산 보현사에 보관해 오던 판본을 저본으로 북한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가 우리말로 쉽게 풀어 펴낸 〈선역본〉(전 17권)을 최근 영인본으로 출간했다. 북한측과 정식 계약을 맺어 출간한 것은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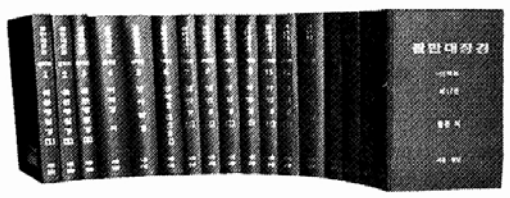
〈선역본〉은 팔만대장경 전부를 우리말로 옮긴 것은 아니다. 한국 불교사와 관련이 있는 중요 경전과 불교를 이해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만한 경전 22종 294권을 번역하고 다시 17책으로 묶었다. 전체 분량의 5% 정도에 해당한다.

한문을 모르더라도 일반 대중에게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우리말로 번역한 것인 만큼 자연스럽고 생생한 번역이 〈선역본〉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얼마 전 동국역경원에서 완간한 〈한글대장경〉의 〈미사색부화혜오분율〉과 비교해 보면 금방 드러난다. 한문학자들이 번역해 전문성에서는 다소 떨어지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악도(三惡道)'로 부르는 것을 〈선역본〉에서는 '세 갈래 나쁜 세상'으로, '범행(梵行)'을 '깨끗한 행실'로 번역하고 있다. 또 '선(善)의 법, 무기(無記)의 법'으로 번역하는 '선무기법(善無記法)'은 '착한 것,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으로, '안반념(安般念)'은 '호흡수를 세는 관법'으로 풀어놨다. 경어체나 존칭의 사용이 적은 것도 특징이다.

그러나 한글화에 치중하다 보니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괄호 안에 한자를 넣어 보충설명을 해야 할 경우도 그냥 지나친 경우가 많고, 각주가 없는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권형진 기자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최근 영인본으로 출간한 북한 <팔만대장경 선역본>(전 17권).

학회소식

▲불교학연구회= 제8차 학술발표회를 13일 오후 2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연다.

이병욱(고려대 강사) 씨가 '육묘문은 부정지관의 내요를 담고 있는 저서인가'를, 김무봉(동국대) 교수가 '〈장수경어해〉 연구'를 각각 발표한다. (02)2260-3128.

▲한국선학회=10월 월례발표회에서는 조준호(동국대 강사) 씨의 '초기 불교경전에 나타난 수행에 관한 용어와 개념의 검토'와 정천구(서울대 강사) 씨의 '중세 동아시아의 심(心)에 대한 논의와 종교의 본질' 등 두 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20일 오후 1시 30분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 (02)2260-3135.

▲보조사상연구원= '지눌사상의 집중적 탐구 IV'를 주제로 27일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제13차 정기학술회의를 연다.

법산(동국대 정각원장) 스님(〈단경발문〉), 최병헌(서울대) 교수(〈비명〉), 심재룡(서울대) 교수(〈화엄론 절요〉), 길희성(서울대) 교수(〈절요사기〉), 박상국(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실) 실장(〈염불요문〉)이 발표를 맡는다. (02)733-5315.

▲한국선학회 불교학연구회, 보조사상연구원가 각각 반년간으로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선학〉과 〈불교학연구〉 2호, 〈보조사상〉 14집이 최근 나왔다.

"종교간 평화없이 세계평화 불가능"

'지구 공동사회 … ' 국제학술회의서 제기

미국 테러 사건과 이에 대한 보복 전쟁의 위기감이 감도는 가운데 분명 및 종교간 대화를 모색하는 국제평화학술회의가 9월 27~28일 열렸다.

5분개 분과로 나눠 열린 이번 학술회의에서 제2분과인 '화해와 협동을 위한 종교간의 대화'에는 불교와 가톨릭, 기독교, 유교, 이슬람 등 주요 종교 관계자와 학자들이 참여해 종교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진월 스님(동국대 선학과 강사)은 "우리는 종교간 평화 없이 세계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겪어오고 있다"며 "무조건 대화의 기회를 갖고 보면 뜻밖의 긍정적 경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슬람회 이희수 회장(한양대 교수)은 "7세기 이슬람이 창시된 이후 1300여 년 동안 이슬람과 동아시아 문화권은 뚜렷한 마찰이나 적대적 갈등 없이 평화롭게 공존해 왔으며, 특히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의 주고받음은 대단했었다"며 "우리 문화의 기층에 서아시아 이슬람 문화의 요소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병수 한국외방선교회 부회장은 "중국에서 유불도 삼교가 과거 2~3천년 간 유혈적 종교 전쟁 없이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종교의 포용성 혹은 종교적 관용주의 때문이었다"고 말했다.권형진 기자

高僧 다시보기

의천 스님과 천태종

의천 스님(1055~1101)은 고려의 문벌귀족사회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에 천태종을 개창한 고승이다. 문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 11세에 출가해 5개월만에 구족계를 받았고 2년 후에는 승통이라는 최고의 승계에 올랐다. 어머니 인예 태후와 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밀항하여 송나라로 구법의 길을 떠났다. 이는 천태삼관(天台三觀)을 최상의 진종(眞宗)으로 여기고 고려의 불교계를 쇄신하고자 하는 염원에 충만해 있었기 때문이다. 14개월간 송나라에 머무는 동안 철종의 환대를 받으며 화엄종 · 천태종 등 5종의 고승 53인을 두루 참방하여, 양걸(楊傑) 같은 당대의 중국 식자층들은 현장 스님이나 의상 스님보다도 나은 인물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당송팔대가의 대표적인 인물인 소동파(蘇東坡)도 스님에 대하여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여 중국 사람들조차도 놀랐다고 한다.

스님은 천태종을 개창한 지의 선사의 탑을 참배하면서 고려의 체관(諦觀) 스님을 숭앙하고 현수법장(賢首法藏) 스님과 천태지의 스님의 사상이 같음을 강조하며 천태종을 개창하고자 서원을 세웠다. 그리하여 중국의 장소(章疏) 3천여 권을 갖고 귀국하여 고려 최대의 사찰인 화엄종의 흥왕사 주지로 머물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송나라 · 요나라 · 일본 등지에서 4천여 권의 장소를 수집하였다. 이어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두어 목록인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을 만들고 〈속장경(續藏經)〉을

송 고승들 '해동의 석가'라 극찬
원효사상 재발견 '속장경' 간행

간행하였다. 현재는 일부 판본만이 대마도와 해인사에 남아 있지만 인류 최고의 대장경인 해인사의 〈고려대장경〉의 모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의 (불교)문화의 집대성 그 자체이다.

또한 스님은 당시의 선종을 흡수하여 천태 교관사상에 의해 고려 불교계를 쇄신하고 화엄에 결여된 실천불교를 보완하고자 인예 태후의 발원으로 창건된 국청사를 천태종의 본산으로 우리 나라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스님은 원효 스님의 화쟁사상을 계승하여 선 · 화엄의 일승사상, 유가종의 지관(止觀)을 모두 포용하여 완벽한 교학 체계의 교관(敎觀)사상으로 세계적인 정통불교를 확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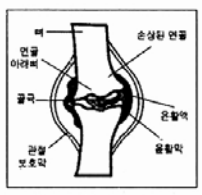
스님은 지병인 위장병으로 고생하면서도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때문에 머리와 수염이 희게 되었을 정도였다. 결국 나이 47세 법랍 36년으로 입적하고 말았지만 송나라 당대의 고승들이 스님을 '법왕의 진자(眞子)' '해동의 석가'라고 극찬한 바 있고 고려왕실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다른 이름인 대각(大覺)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간혹 스님이 왕자 출신이기 때문인지 귀족적 성향이 짙고 민중불교적인 성향이 적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방언으로 경전을 강의하였고 주전론을 건의하였던 사실에서 보듯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스님은 원효 스님의 사상을 재발견하여 〈속장경〉을 간행하고 천태종을 개창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재창조하고자 하였고 불교의 세계화를 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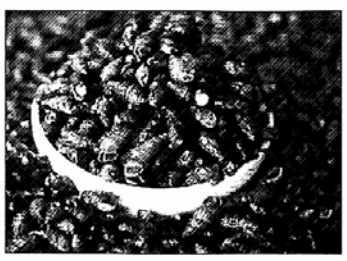
황인규/동국대 강사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지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쾌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렁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될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당뇨 관련하여 특별 상담해 드립니다 ※
상담문의 ☎ (02) 3437-8282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샤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 해방될 수 있는 특수 영양식품이 수입되어 화제다.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칼슘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 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닮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 (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비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지리산자락 무주구천동 신비의
다슬기
농축액
당신의 "간·간·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시죠?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무주 구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살일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감 시킨다. 다음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

"아는 데 집착하면 반드시 마가 침입하니…"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이야기 ⑤⓪

(49) 계란건곤(鷄卵乾坤)

혜가는 계속해서 스승에게 질문했다.

"육적(六賊)이 주인공을 혼미케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라옵나이다."

"육적이란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가 아니더냐. 본래 이 육적의 주인공은 마음이니라. 마음은 크고 작은 마군(魔軍)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거느리고 있느니라. 마음은 원숭이같이 변덕스럽고 뜻(意)은 말(馬)처럼 날뛴다는 말도 이래서 생겨났느니라. 마음은 경계(境界)를 마음대로 넘나들며 하늘에까지 치솟기도 하느니라. 이럴 때는 천병천장(天兵天將)이라고 할지라도 제압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나 그런 마음, 곧 마군도 부처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수행자는 본성(本性)으로 돌아가 정과(正果)를 이루고 귀일(歸一)해야 하느니라. 이때 관음주(觀音呪)를 외워도 효험이 있느니라.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현묘한 방책일 수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음을 잡아매어 다스리는 것이 요체이니라. 육적 가운데서 의마(意馬)를 특히

혜가의 마음 한층 밝아져

잘 다스려야 하느니라. 본성에 귀의하여 서천(西天)으로 가려면 이 의마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이니라. 이 의마가 곧 용마(龍馬)이니라. 만약 본성을 닦아 바르게 귀일하지 못하면 의마 곧 용마가 날뛰어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죽이게 되느니라. 이 말은 하늘 끝까지 달리면서 날뛰어도 제지할 수가 없느니라. 이것이 다름 아닌 마군이니라. 마군 가운데서도 눈·귀·코·혀는 장군 구실을 하느니라. 이들은 무슨 소식이 있게 되면 사문(四門)으로 달려나가 소란을 피우느니라. 이때 탐진치애(貪瞋癡愛)는 안에서 마군을 돕고 주색재기(酒色財氣)는 밖에서 마군을 돕느니라. 안과 밖이 상응하여 주인공의 자리를 뺏으니 칼과 창과 화살이 어지러이 꽂히는 형국이니라. 만약 주인공의 자리를 진정으로 지키고자 한다면 진인(眞人)에게 엎드려 간청하여 용정(龍庭)에 좌정해야 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관음과 부처가 법술(法術)을 베풀고 삼교(三敎)의 성인(聖人)이 하늘의 무상인(無相印)을 빌어 사요(四妖)를 내쫓고, 진경(眞經)으로 육적을 항복시켜 주인공을 지켜 주느니라. 이렇게 되면 천요만괴(千妖萬怪)가 일제히 명령에 복종하고 지지정정(知止定靜)으로 천하(天下)가 평온해질 것이니라. 팔대금강(八大金剛)이 관문(關門)을 잠그고, 사천왕(四天王)이 사문(四門)을 지키며 모든 진인(眞人)이 항상 보살펴 지켜 줄 것이니 주인공은 연심(蓮心) 자리에 앉게 되느니라. 이때 주인공은 단지 하늘 북 소리 울리기만 기다렸다가 행차하면 되느니라."

달마의 소상한 설명에 혜가는 마음이 한층 밝아옴을 느꼈다. 또 다시 엎드려 배례(拜禮)했다.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여쭙는 것이니 헤아려 주시옵소서. 무엇을 일컬어 기사동정(起死動靜)이라고, 하고 왜 그것을 생사(生死)의 근원이라고 하는지요?"

달마는 즉답 대신 게송을 읊기 시작했다.

"기(起)란 일어나는 것이니 일어나는 곳에선 강물이 뒤집히고 바다가 요란하도다. 낙(落)이란 떨어지는 것이니 떨어지는 곳에서는 허공(虛空)에서 산산이 부서지도다. 동(動)이란 움직이는 것이니 움직이는 곳에서는 열쇠로 자물쇠를 여는 것 같도다. 정(靜)이란 고요이니 고요한 곳에서 홍몽(洪濛)이 열려 세상이 생기도다. 무상성곽(無相城廓)을 조견(照見)하니 불로(不老)의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내도다. 무생지상(無生地上)에 안면(安眠)하니 반달(半月)의 노중(爐中)에 자재(自在)하도다. 세상에 내려온 지 몇 해인지 모르니 내력(來歷)과 시종(始終)도 모르도다. 젖먹이때 이름이 금강불괴(金剛不壞)라고 했으니 나가고 들어올 때 자취조차 볼 수 없도다. 그때의 미타 부처가 여기 있는데 어찌 문 밖으로 나가 만나고자 하는고."

달마의 게송은 혜가의 가슴에 비수처럼 파고들었다. 혜가는 퍼뜩 정신이 들었다. 스승에게 고개 숙여 간곡하게 물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집으로 돌아가서 주인공을 만날 수 있을는지 교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주인공 만나는지

달마는 다시 게송을 읊었다.

"하늘(天)에 통하고 땅(地)을 꿰뚫으니 금목(金木)이 고합(交合)하도다. 영아(嬰兒)와 타녀(妥女)가 서로 도우니 한 마리 황룡(黃龍)에 올라타도다.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으니 드디어 극락궁중(極樂宮中)에 이르도다. 무극(無極)께 참배하니 보경천궁(普慶天宮)에서 즐거이 지내도다."

게송이 끝나자 촌각(寸刻)의 여유도 없이 혜가가 다시 물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는 무극은 자연 그 자체의 그 자리가 아니온지요? 그리고 자연의 그 자리에 이르면 자기가 그것을 알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달마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또박또박 간략하게 대답했다.

"자연의 그 자리에 이르면 황홀한 가운데 그 무엇이 있으며, 아물아물한 가운데 정(精)이 있느니라. 음양합병을 알 수는 있으나 알지 못한 자처럼 되어야 하느니라. 동(動) 가운데 정(靜)이 있는 것을 알게 되지만 아는 데 집착하면 반드시 마가 침입하게 되느니라. 지혜있는 자는 깨닫기 쉬우나 미매한 자는 행하기 어려우니라."

貪瞋癡愛는
안에서 마군을 돕고
酒色財氣는
밖에서 마군 돕는다



◇범주(凡周) 백종구 거사(시인, 1932~)의 달마도(2001년 作).

달마의 대답은 수행의 진경에 따라 지켜야 할 심오한 계율을 교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혜가는 머리를 숙인 채 한동안 무념무상의 경지에서 잠잠히 앉아 있었다. 한데 갑자기 머리에서 묘한 의문이 떠올랐다. 스승의 표정을 힐끔 살폈다. 혹시 쓸데없는 질문을 하여 핀잔을 들을까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마의 얼굴은 자애롭기 그지없었다. 무엇이든 물으면 모두 받아들일 것 같았다. 혜가는 용기를 내서 기묘한 질문을 했다.

"스승님,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계란건곤(鷄卵乾坤)의 이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달마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겨우 생각해 낸 것이 그런 질문이더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수수께끼로 삼고 있는 그런 질문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하니라."

달마는 혜가에게 앞으로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면서 대답을 이었다.

"혼돈(混沌)의 시기에는 닭도 달걀도 없었느니라. 청탁(淸濁)의 이기(二氣)가 혼돈 속에서 한 덩어리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무극의 본체이니라. 자시(子時)가 되면 일양(一陽)의 성(性)이 동(動)하여 청기(淸氣)의 느낌이 있게 되니, 달걀의 흰자위가 그것이니라. 축시(丑時)가 되면 이음(二陰)의 명(命)이 동하여 탁기(濁氣)의 영(靈)이 통하니 달걀의 노른자위가 그것이니라. 음과 양이 교감(交感)하면 이기(二氣)의 영이 통하여 무극에서 태극(太極)이 생겨나느니라. 하루 아침에 홍몽이 열리면 혼돈이 생겨나니 이것이 태극에서 양의(兩儀)가 생기는 것이니라. 이때 달걀에서 닭이 생겨나느니라. 그러므로 달걀이 먼저고 그 뒤에 닭이 있는 것이니라. 이 이치를 분명히 안다면 천기(天機)를 아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니라."

혜가는 마치 어리광하듯이 물었다.

"염불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본성(本性)이니라."

"본성을 제외하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영광(靈光)의 발현(發現)이니라."

"그것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대에게 있느니라."

"24시간 하루 온종일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쌍림수(雙林樹)에 있느니라."

"만약 태허공을 찔러 깨어 버리면 어느 곳에서 안심입명(安心立命)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까?"

"허공을 깨어 버리면 건곤삼계(乾坤三界)를 뛰어나가느니라."

"삼계란 무엇입니까?"

"동토(東土)의 사바세계, 서천(西天)의 극락세계, 선천(先天)의 무극세계이니라. 이 가운데 선천의 무극세계만이 오직 모든 남녀의 본래 고향이니라. 동토의 중생은 너무나 미매하여 사바세계에 머물 수밖에 없느니라. 서방 극락세계로 가고자 하면 자성(自性)을 밝혀야 하니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어려우리라."

"서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만팔천리(十萬八千里) 밖에 있으니, 그 곳엔 분명 극락궁이 있느니라. 그러나 깨닫고 보면 서방은 바로 눈앞에 있느니라. 오직 미매한 인간만이 그 길을 찾지 못하느니라."

"항시(恒時) 어디에 귀의하여야 하는지요? 경(經)을 독송한다면 어느 경이 좋습니까?"

"무봉탑(無縫塔)에 귀의하여 무자경(無字經)을 묵념(默念)하도록 할지어다. 입을 열면 신기(神氣)가 흩어질 것이고, 조용히 입 속으로 염송하면 법륜(法輪)이 돌아가리라."

"무봉탑이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무봉탑이란 자기의 진보(珍寶)이니 자기 안에 있느니라. 그것은 몸 밖에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니라. 몸 안에 사리자(舍利子)가 있으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빛을 발하느니라. 털 없는 사자는 하늘로 날고, 청개구리는 털옷을 벗고 나무 위에 앉아 있으니, 죽은 자는 산 자를 의탁하여 달리고, 모기가 저울추를 매달고 돌아온다는 '예화(例話)' 등은 그것을 이르는 것이니라."

"삼심삼회(三心三會)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눈(眼)은 과거심(過去心)이니 연등불(燃燈佛)의 연지회(蓮池會)이니라. 귀(耳)는 현재심이니 석가불의 영산회(靈山會)이니라. 코(鼻)는 미래심이니 미륵불의 안양회(安養會)이니라."

"삼천대천(三千大千) 세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과거불이 관리하는 천하홍분(天下紅粉) 세계와 현재불이 관리하는 천하사바세계와 미래불이 관리하는 천하청담(天下淸淡) 세계를 이르는 것이니라."

닭이 먼저냐 달걀 먼저냐

대답을 마친 달마는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짧은 게송을 한 수 읊었다.

"무쇠 아이는 나이가 몇이던고. 무정무진(無情無盡)인데 언제 쉬는고. 한 번 소리 지르니 천지도 놀라고, 건곤사부주(乾坤四部洲)도 진동(震動)하네."

혜가는 스승에게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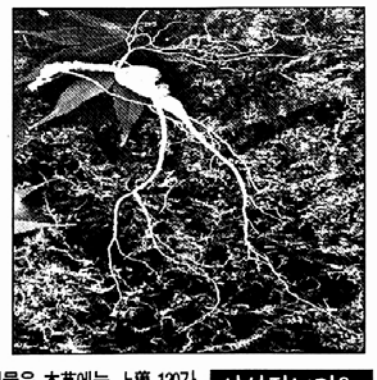
"사자경(四字經)이니 육자경(六字經)이니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은 그 옛날 문수보살이 석가세존에게도 했었느니라. 세존께서 말씀하시길, 사자경이든 육자경이든 간에 그것은 법문(法門)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셨느니라. 초회(初會)에는 네 글자로 공경(公卿)들을 유인했고, 이회(二會)에는 여섯 글자로 현인(賢人)을 이끌었으며 삼회(三會)에는 십자(十字) 곧 열 글자로 뭇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니라."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어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奉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힘겨울 山路 보탬으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願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의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특오니 부담없이 問議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 (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 (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2001년 대원불교대학 후학기(後學期) 입학안내

■ 강의시간 주 3일 출석(5과목 강의), 야간수업
■ 지도교수 최봉수(동국대), 장휘옥(동국대), 허경구(동국대), 김사업(동국대), 일운스님(무형문화재 범패전수자)
■ 조빙교수 월운스님, 권기종(동국대), 정병조(동국대)
■ 교육과목

1학년	1학기(14주)	· 불교학 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불교문화특강
	2학기(14주)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반야사상	· 불교의식 실습
2학년	1학기(14주)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우리말불교의식
	2학기(14주)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정토사상	· 선사상

■ 모집 및 전형(2년제 야간 – 출강·통신과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사진3매) · 불교대학 졸업장 사본 (편입생에 한함)	- 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지 - 편입학은 2학년 과정으로 입학
· 불교학 통신 00명			
· 불교학 편입 00명	· 타 불교대학 과정 졸업자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모집
■ 특전사항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 大圓佛教大學 학장 혜거스님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756-7258

종립학교를 가다

⑯동해중학교

1972년 원정성사가 창종한 불교총지종은 관세음보살 본심미묘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을 본존으로 하며 대승장엄보경, 대일경 등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밀교종단이다. 부산 동해중학교는 바로 불교총지종의 유일한 종립학교다.

풍수지리학적으로 인재양성의 고장으로 알려진 부산 온천장. 금정산이 마주 보이는 조그마한 구릉위에 위치한 동해중학교는 1968년 정각사 신도였던 故 박영석 대동병원장의 발심으로 설립되어 88년 종단이 인수해 인재양성을 위해 전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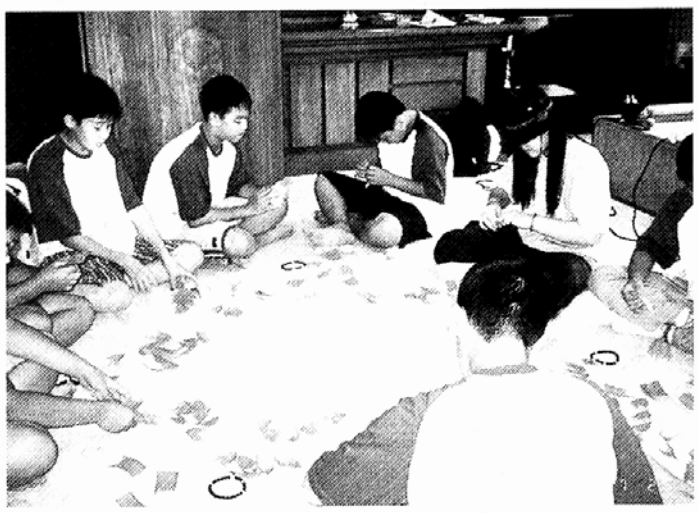
소학급제 운영… "교실이 즐거워요"

68년 설립 총지종 소속

학부모 독서교실 운영

자율정신·협동심 길러

장점 칭찬하기 눈길



◇동해중학교는 소집단 활동, 칭찬하기 등 특색사업으로 올바른 인성을 가진 인재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충북 괴산에서 열린 수련대회 모습

동해중학교 선생님들은 동해만의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하나같이 '소집단 반 활동을 통한 즐거운 교실'이라고 말한다. 이는 학급 안에 학생 8명을 기준으로 또 다른 4~5개의 소 학급을 운영, 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협동생활태도를 길러주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소 학급 활동을 통해 반장, 부반장, 도서, 미화, 체육, 오락 위원 등의 임무를 맡아 협동심을 함양하는 한편 다른 소 학급과의 자율경쟁을 통해 학습 능력을 신장하고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96년 교육부 주최 전국 학교현장 교육 개혁 우수사례 발표와 97년 부산교육청 지정 수준별 교육과정 시범발표에 소개되면서 교육관계자들로부터 격찬을 받기도 했다.

최근 입시제도의 변화로 동해중학교는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각 학급에 문고를 설치해 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하고, 독서감상문 쓰기를 생활화 해 모범 학생들을 시상하고 있다.

'학부모와 함께 하는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동해중학교의 자랑이다. 학부모들로 조직된 어머니 독서반은 학생들과 똑같이 독서 감상문 쓰기와 독후감 발표를 정기적으로 갖는다. 자녀들이 책 읽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받고 배우는 것은 당연한 일. 그래서인지 동해중학교 학생들은 1년에 학생 1인당 평균 40권의 책을 읽는 등 독서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다.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독서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타인에 대한 넓은 이해심과 아량을 갖게 하고 인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 독서반은 또 척 수집운동을 펼쳐 집에 묵혀둔 책을 수집해 학급문고에 기증하고 십시일반 모금을 해 신간도서를 구입하는 등 학생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칭찬하기 프로그램도 동해중학교만의 특색. 입시를 최종 목적으로 여겨온 우리나라 교육현실상 인성교육은 등한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해중학교에서는 칭찬하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가르치고 있다. 국어시간을 통해 운영되는 칭찬하기는 한 가지 주제로 놓고 그 주제에 대해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소견을 발표한다. 그 후 그 학생의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해주는 것.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칭찬을 들으면 어깨가 으쓱해진다. 칭찬하기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좋은 영양제다.

그 외에도 생활일기 쓰기, 인사 잘하기, 기본 예절 지키기, 1인 1선 실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심어주고 있다.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신행 활동 역시 활발하다. 생활불교를 지향하는 불교반을 중심으로 종단주최 수련회, 부처님오신날 행사 등의 활동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불우이웃돕기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정각사 학생회에 참석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신심을 키우고 있다.

8177㎡ 대지 위에 24개의 정규교실과 컴퓨터실, 예절실, 교육정보실 등 11개의 특별교실, 운동장 등 최신 시설을 갖춘 동해중학교에는 현재 종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891명의 청보리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책과 씨름을 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교육불사 아낌없이 지원"



총지종 혜암 통리원장

"불교총지종은 교육불사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종조님의 유지이기도 하지만 젊은 청보리들은 불교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포교가 종단의 운명과도 같다고 생각하는 혜암 불교총지종 통리원장은 매년 7월 동해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련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종단의 이같은 인식에서 시작됐다고 말한다. 수련대회를 통해서 호연지기,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존중의 정신을 배운다. 또 선 후배간에 우의를 돈독히 하고 종단 교무들과 친해져서 종단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불교반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수련대회를 전교생이 참석하는 수련대회로 확대시켜나갈 생각이다.

그는 또 밀교를 이해하는 교육자료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종단에서 발행하는 종립학교 종교교재를 발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체계적인 불교 교양과 밀교의 특성을 가르치고 싶어서다. 더불어 동해중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더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단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푸른 꿈 갖도록 도와"



동해중 강경중 교장

청소년은 꿈이 있어야 하고 꿈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동해중학교 강경중 교장은 "학생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꿈은 땀과 피와 눈물의 결실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화합을 강조하듯 학교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도 교직원과 학생 등 학교 제 주체들간의 화합이 필수적입니다. 서로간에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레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교육으로 이어지면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강 교장은 '어제를 반성하고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에 충실한 사람이 되자'는 동해중학교의 교육목표는 이같은 화합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다.

두눈은 푸른하늘을 응시하면서 두 발은 땅을 굳게 짚고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자는 말을 자주하는 강 교장은 불교 청소년 운동에 관심이 많다. 78년 해운대중학교에 부임해 불교학생회를 만들었고 88년 한국방송대학 부산교육원 불교학생회를 창립해 지금까지 지도법사로 활동중이다.



◇부석사 총무 도륜스님이 무량수전 앞에서 참가자들에게 무량수전의 건축양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무량수전 올라 빼어난 건축미 감상

본사 9월 지역불교 문화기행 40명 참가

"용문사는 회전식 불경보관대인 윤장대가 있는 유서깊은 고찰입니다. 9월23일 예천 용문사 법당 안에서 주지 청안 스님이 용문사의 역사와 문화재를 설명했다. 현대불교신문사가 주최한 지역불교 문화기행 참가자 40명은 스님의 설명을 하나라도 빼놓을 세라 열심히 적으면서 경청했다. 이에 앞서 참가자들은 무량수전 등 국보급 문화재가 즐비한 부석사를 참배해 예불도 드렸다. 이어 돌아오는 길에는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방문으로 일반인들에게도 관심이 높은 안동 봉정사를 방문했다.

조규옥(48)씨는 "신라와 고려 등 각 시대 건축물이 도열해 있는 봉정사에 오니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 것 같다"고 즐거워 했다. 김주일 기자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⑱



• 수인법 •

선무의 기초를 어느 정도 훈련한 다음에는 수인법을 연습해야 한다. 수인법은 불보살들의 뜻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만든 것이다. 불보살의 여러 가지 손동작들은 비밀스런 진리의 상징으로서 손과 손가락을 이용해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된다.

진리 상징하는 손동작

몸의 균형 조화 이루게

선무 연습에 있어 수인법의 훈련은 필수적이다. 이 수인법은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주인공 '이뭐꼬'와 함께 빠르고 느림, 높고 낮음, 넓고 좁음, 혹은 돌고 정지하는 동작들을 훈련한다.

조화를 이룬 수인법의 동작들은 음양의 원리에 따라 손과 팔로서 훈련된다. 수인법의 복합적인 조화와 변형을 익힌 후에, 다음 단계로 다리와 함께 연습하고, 다시 온몸을 움직여 연습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즉흥적이고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수인법을 사용하여 전신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단순한 동작에서 이중적, 삼중적, 복합적 조화의 변형을 훈련해 나아가야 한다.



'모듬북 연주' 지역사회 명물

동아리탐방 동해 풍물패

동해중학교에는 특기적성교육의 일환으로 일반교과뿐만 아니라 예체능분야 등 25개 분야에 걸쳐 많은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중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동아리는 바로 동해풍물패. 지방무형문화재 전수자인 김상헌씨 등 외부 전문강사 2명이 지도하는 동해풍물패는 초보자반과 고급자반으로 나뉘어져 있고 회원만도 60명이 넘는다.

특별활동시간은 물론 방과후에도 부정기적으로 모여 연습을 하는 동해풍물패는 전통문화를 배우며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임을 알리고 있다.

특히 모듬북 연주는 동해풍물패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 큰북과 작은북의 화음으로 연주되는 모듬북은 사물놀이와 비슷하나 그 음이 경쾌하고 흥이 절로 나는 전통음악이다. 사물놀이는 대중화되었지만 모듬북은 아직 생소한 분야. 그래서인지 연주회에 자주 초청되고 많은 사람들의 기립박수를 받고 있다.

'마음고요 禪房
마음고요 선방의 명상 프로그램들은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정목스님과 함께 하는 '나를 찾는 명상'
※ 매월 음력 초사흘 오전 10시 30분 : 정기법회
강남구 신사동 4거리 (전철 3호선 신사역 5번 출구)
☎ 02) 548-0218 FAX 02) 548-0219
E-mail : maumgoyo@hanmail.net

불교를 가장 쉽게 만나는 길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끈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뚝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

공심에서 한생각 일어날 때 '길' 열려

참되고 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요

문 사람이 바르고 참되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는 부자로 살면서도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부자로 살면서 자기 뱃속만 채우고 어려운 사람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이는 자신이 가난하면서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어렵다고 남을 돌볼 겨를이 없어 자신의 삶을 살기에도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사람답게 살면서 이 험난한 고(苦)의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하는지요? 저는 26살의 젊은이지만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르고 진정한 삶을 살면서 인간의 삶을 조금도 떠나지 않는, 고(苦)를 조금이나마 떨쳐버리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지 여쭙니다.

답 세상을 살아 나가면서 모든 거를 생각하되 함이 없이 해야 합니다. 함이 없는 줄 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우님의 육체 속에 수많은 생명들이 들어 있죠? 그러면 더불어 같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걸 왜 혼자 생각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공했죠? 그럼 공체로서 공심으로서 생각한 게 아닙니까? 자기 혼자만이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다, 자기가 생각한다, 자기가 살아간다, 자기가 힘들다는 이런 생각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냥 공심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공심으로서 한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독단으로 진정한 삶을 살고자 그냥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깐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되 하지 말라 이거죠. 함이 없이 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극치적으로 들어가는 공부를 하고 계신데, 그것이 물리가 터지지 않고 자꾸 관습에 얽매이게 되고, 하여튼 내가 살아야 하고 먹어야 산다는 그 착이 붙어서 영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늘을 다 떼어 갖더라도 착을 두지 마라.'는 겁니다. 네 것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공해서 너는 없다, 없으니까 그냥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거니까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너의 주인 한테 맡겨 놓아라, 좋게 입력을 해라 이겁니다. 인간의 정수에는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다는 얘기 종종 합니다만,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살아나가는 거니까 꼬집어서 내가 힘들다, 내가 가난하다, 내가 부자다 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겁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게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제자가 스승한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너무 세상이 복잡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토굴을 짓고 공부하겠습니다."이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하고 선뜻 대답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은 내가 한 가지 말할 게 있다. 너 산으로 공부하러 가려면 육체 속에 있는 생명들 다 내놓고, 옷도 벗고 물도 마시지 말고 밥도 먹지말고, 땅도 딛지 말고 모든 걸 너 혼자 한다니까 다 내놓고 너 혼자 해 봐라."이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끝에 고만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소리가 '아하! 내 몸뚱이도 그렇고 일체가 둘이 아니게 같이 더불어 사는구나.' 하면서 그 도리를 깨우친 겁니다. '지겨워 할 것도 없고 내가 바로 너고 네가 나니까, 내가 어디로 간다 안 간다 할 것도 없구나.' 하고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랬듯이 생각으로서 자기가 지어서 업이 되고 자기가 지어서 착이 되고, 자기가 지어서 악행이 되고 자기가 생각을 지어서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무한량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거칠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혼자 산다면 그렇겠지만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 무슨 물을 마셨다고 하고 물을 안 마셨다고 하고 이유가 붙습니까?

> 자기 것이라
> 생각 안하면
> 만물과 더불어
> 살아가는 법
> 다 알게돼요

그래서 공생이면서 공심 · 공체 · 공용 ·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임을 인식하고 어디를 가도 착을 두지 말고, 어디에도 자비로써 베풀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며는 스스로 참다운 인간의 삶을 살게 되고, 또 더불어 입에 붙은 사랑이 아니라 아주 정직하게 실천하는 자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라는 생각을 안하면 이 세상의 인간뿐만 아니라 미생물에서부터 천차만별의 생명들, 인간까지 살아나가는 그 원리를 다 알게 됨으로서 모든 생명을 내 생명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생 · 공심 · 공용 · 공체 · 공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 찰나에 손 하나를 들 수도 있고 손 하나를 내릴 수도 있듯이 마음으로써 슬기롭게 한 찰나에 활용할 수 있는 법이 있다 이 소립니다. 우리가 꼭 이 공부를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회전을 못합니다. 미지수의 세계의 그 뜻을, 무(無)의 세계의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움죽거리지 않고 움죽거릴 수 있는, 손을 누르지 않고 누를 수 있는 용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데, 그래야 만이 유무에 걸리지 않을 텐데 우리는 유(有)의 세계만 아니까 항상 벽이 생기고 고에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방이 탁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뚫어야 하느냐 이겁니다. 본래 막힌 것도 아닌데 왜 막혔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방이 다 막히지 않은 걸 알려면 네 마음부터 알라고 했습니다. 네 마음을 내 놔 봐라, 네 마음이 막혔나 안 막혔나? 네 마음을 내놔 보면은 그것이 양쪽으로 막혔는지 두 쪽으로 났는지 알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내 놓을 수 없는 반면에 막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막히지 않았다 이거죠. 맘대로다 이겁니다. 막히게 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요, 막히지 않게 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계와 정신계가 한데 합쳐져서 작용을 해야 보이지 않는 데 50%에서 보이는 데로 나오게끔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헤어나지 못하는 거고 어지럽고, 물질세계에서만이 살아 나온 관습에 의해서 관습, 인과, 업보, 유전으로 꽉 뭉쳐서 돌아가니까 이게 부작용이 나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접근이 되지 않고 또는 공덕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전체가 같이 돌아가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공덕이 하나도 없단 얘깁니다. 개별적인 하나의 생각으로 사니까요. 우리가 한마음 주인공이다 하는 것은 포괄적인 하나이지 개별적인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 보이는 가지나 이파리가 나인 줄 알지 말고 정말 진실하게 뿌리에서부터 가지까지, 이파리까지 다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들 역경 속에서 헤매이고 사는 것이 뿌리가 있어야, 뿌리가 깊이 묻어져야 가지가 있고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텐데 모두 그렇지 못한 까닭에 모든 것을 겪게 되는 것이니 이렇다 저렇다 하는 생각들을 다 그만 두고라도 이 공부를 해야 만이 된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차만별의 이 세상 속에서 공생이면서 공심 · 공체 · 공용 ·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도리를 터득해서 자비로써 베풀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도록 남을 탓하기 이전에 자신부터 발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젊음이가 되길 바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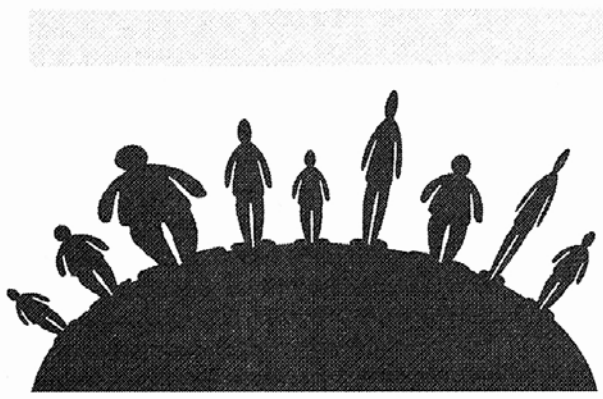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누고 싶고 대신하고 싶어

문 항상 갈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젠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와 더불어 알고 싶은 것도 없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언제부터인가 알고 싶어서 내면에 질문과 답을 구하던 욕구가 사라지고 이젠 그저 뭔가 나누고 싶고, 대신하고 싶고, 물 흐르는 대로 자연스레 맑게 가며 무엇 위에도 존재하고 싶지 않으니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이젠 저를 위한 질문과 답은 할 것도 없고 할 말도 없고, 그저 남들이나 잘됐으면 하는 생각과 사소한 것일지라도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은 할 수가 없고 그동안의 습관에서 나오는 그냥 살아가는 생활에서 도리에 맞지 않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마음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야 되는 겁니다. 구경을 하면서도 벌써 천백 억 화신으로 나투면서 화해서 우주전체를 한 찰나에 다닐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 "
> 둘 아니게 볼 수 있고
> 둘 아닌 행을 한다면
> 모두가 나 아님 없고
> 내 아픔 아님 없고
> 내 자리 아님이 없으니
> 하나도 버릴게 없고
> 자비롭게 살 수 있어
> "

그러니까 거기쯤은 못하더라도 나와 남을 둘로 봐서는 안돼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둘로 보기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하는 걸 가르쳐 주면은 쉽겠죠. 왜? 전력은 있되 가설이 안됐으니까 불이 안 들어오거든요. 전기 줄, 내 전기 줄 하나만 가지고는 이쪽에 불 들어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습은 다를지언정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은 같이 항상 돌아가고 있어요. 공심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공심으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괜히들 자기네들이 공심이 아니라는 거죠. 믿지 않고 각자 자기 하나가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만 명이 일을 하면 쉬운데 이건 자기 단 한 명이 그냥 혼자 하려고 하는 거나 같죠. 만약 이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만 명의 능력과 한 명의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만 명이 할 일을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나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그 만 명이 같이 돌고 만 명의 만 생이, 만 마음이 같이 돌아간다고 봐 보세요. 그런다면 너도 나고 나도 너고, 네 능력이 내 능력이고 내 능력이 네 능력이고, 네 생이 내 생이고 내 생이 네 생인 것인데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 둘 모여서, 체가 없는 마음들이 모여서 있다가 형성해서 살러니까 체가 있는 집을 만들어 놓고, 체가 있는 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겁을 돌면서 우리는 인간의 모습까지, 여기까지 개발되어 온 겁니다.

인간이라면 벌써 90%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무전자의 능력으로써, 이 무전자의 능력은 우리가 '주인공' 하면 전체 공생으로 한데 합쳐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 공생으로 한데 합쳐지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그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공기가 없어서 못 삽니다. 그렇게 합쳐졌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죠. 항처럼 돌아가면서, 에너지처럼 돌아가면서 우리 생명을 호흡을 시켜서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생(共生)을 하고 있으면 공심(共心)으로 또 돌아갑니다. 혼자 사는 게 없어요, 전부. 그래서 공심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그 공심은, 천차만별로 돼 있는 공심은 바로 즉 공생의 능력으로써, 공심으로써 그렇게 다양하게 천차만별로 돌아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진리이자 길입니다.

그러니 나 개별적인 마음과 상대의 마음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주인공 자리에 다 몰아 넣을 때 용도에 따라, 필요에 따라 다른 이를 도울 일이라면 그 몸이 부지런히 뛰어 심부름하게 하고, 화합할 일이라면 그 마음의 온기가 두루 다 퍼져 모든 이의 마음에 감읍이 되게 하기도 하고, 하여간 그 모든 일을 들이고 내는 것이 오직 한 자리라는 거 그것만 아신다면 그대로 우리가 사는 길이 진리를, 그냥 그대로 사는 길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잘 맡겨지지 않고 불안해요

문 좋은 말씀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눈앞의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느긋하게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까지도 주인공에 던지려고 해도 순간순간에 불쑥불쑥 안에서 불안감이 솟아올라옵니다. 현실적으로 코앞에 닥치는 문제들에 대해서 초연해지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은 어떡하든 해결해야 되니까요.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조급해 하지 않고 주인공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으려면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요?

답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타고 내리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타면 내리고, 내리면 탄다는 것을 몰라서, 걸림 없이 돌아가는 줄을 몰라서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50% 물질세계의 되는 것만 알았지 그 물질 세계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 데서 걸림 없이 돌아가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조급하지 않아 천하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체가 없어서 빨리빨리 생산을 해서 현실로 나오게 하는 작업도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 건데 그냥 욕심과 부질없는 급한 마음을 가져서 되겠습니까? 좀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되게 해서 좋은 일이라면 안되게 하고, 되게 해서 좋은 일이라면 되게 해라!' 하고 놓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남의 돈을 빌려 가지고 가게를 한다 뭐를 한다 하는 것도, 하게 해 가

☞ 20면으로 계속

기쁘든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금생에 못하면 다음생에…' 로는 공부 못해

☞ 19면에서 계속

지고 망한다면 그건 안 하는 것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하게 될 거라면 못하게 하고, 되게 하려면 되게 하라고 놓으라는 겁니다. 양단 간에 '너만이 알아서 할 수 있다' 하고 해결을 봐야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죠. 그저 아무 거라도 하기만 해서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양단 간에 점을 찍으려면 그렇게 해서 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직스럽게 믿는 사람은 조급하지도 않아요. 왜 믿질 못하고 조급하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어련히 할까 봐서, 어련히 자연적으로 안 생길까 봐서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거기다, 되고 안 되고를 다 맡겨 버리면 그 일이 되든 안되든 모든 것이 서로 상응하며 흥감하게 돌아가는 그 맛을 알게 될 겁니다.

절에 다니기가 왠지 싫어져요

문 스님께서는 평소에 불교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전 전에 성당에 나간 적도 있고, 요즘은 선원에 나갑니다. 하지만 왠지 절에 가기가 싫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 특정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왠지 어색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집안 식구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절에 간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절에 가지 않고 특정 종교나 조직에 속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절에 가기 싫어하고 특정 종교조직에 속하기 싫어하는 게 오직 제가 게을러서일까요?

답 우리들이 마음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공부라는 이름을 떠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도리, 진리를 파악하고 배우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간혹 "제 주인공 찾으라는데 절에는 가서 뭘 해?"이러거든요. 그러나 절에 자주 오면서 공부에 전념하시는 분들하고 집에서 잠시 왔다 갔다 하는 분들하고는 달라요. 왜 다른 줄 압니까? 절에 가려는 그 마음이 어떻든 일단은 내 마음을 진화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왔다 가기만 해도 두절됐던 통신이 터지게 되죠. 어떤 때 보면, 보이는 생명이 아닌 영령들이 "나는 죽겠습니다." 하고선 신도님들과 같이 앉아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모르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소릴 하느냐 하면 광력이라는 것은 충전을 해야 공부가 더 잘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서로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대화를 할 때 또 입력이 되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아이구, 저거 안됐구나."하는 생각이 듦으로써 거기 입력이 된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자주 다니시면서 내 마음 자리를 점검도 하면서 서로 키워나가면 좋을 겁니다. 그러니 어떤 한 특정종교에 속하거나 소속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한 계단 한 계단 벗어나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같은 불편한 마음이 한결 편안해 질 겁니다. 마음 공부는 '이 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는 구경지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생에 벗어나야겠다는 마음을 확고히 해서 우리 다 함께 벗어나 봅시다.

주인공 반응없어 미워요

문 스님, 저는 열심히 이 마음공부를 하려고 노력하는 법우입니다. 스님께서 항상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자꾸 관하라고 하셔서 저녁이면 조용히 앉아 일념으로 들어가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의 근본에서는 통 반응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는 주인공이 입에 붙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주인공' 이라는 소리부터 나오는데요. 주인공을 불러 놓고 거기에 내 모든 불만스러운 마음들이 다 실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나고 주인공이 밉다는 생각이 봅습니다. 그렇게 증명을 하라고 보채도 대답도 없고, 반응도 하지 않으니까 미워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우리 법우님이 그렇게 밉다고 생각을 하니까 영 통하지 않는 거지, 그것도 요량이 있어야 돼. 밉다고 그래 봤자 그놈이 그놈이니까, 거울을 보고 아무리 밉다고 해 봐, 거울 속에서 말이 있겠나. 그러니까 거울 속이든 뭐든 그저 아주 친근하게, 예전 사람들은 친근이라고 그러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걸 친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친근이 그냥 친근이 아니라 공심(共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심으로 들어가야지, 친근하게.

주인공이 반응이 없다고 해서 화가 나서도 아니 되지. 그건 화가 날 일이 아니니까. 일상 생활이 고정됨이 없이 그냥 찰나찰나 돌아가는 거야. 그건 당연히 그렇게, 좋든 싫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걸어야 할거지, 누구의 탓도 아닌 거고, 화날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 나를 형성시킨 그놈을 이제 살살, 자문자답을 해서 끌어내는 것 뿐이야. 뭐, 화가 난다고 이러고 저러고 해 봤자 내 얼굴에 침 뱉기지 그건 소용이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실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실험을 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친근하게, 공심으로 오직 그 자리를 잡고 선 그냥, 즉 자기니까 '너와 나와 둘이 아니니까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네가 정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끔, 알게끔 하는 것이 원칙 아니야?' 하고 잡고 늘어져야지.

요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친근이라고 하고, 또 공용(共用)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전에는 용무(用無)라고 썼다고 봐. 그런데 용무라고 쓰면 무(無)자가 끄트머리에 붙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데서 용을 한다는 뜻인데, 공용이라고 그런다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함이 없이 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말이 지금 시대에 따라서 그냥 거창하게 커진 거지.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 공부를 하다가 그 자리가 발현이 돼서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둘이 아닌 걸 알면서도, 안에서 나온 걸 번연히 알면서도 둘이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는 증명을 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살아오던 습이 많이 있어 가지고 서로 응답을 하면서도, 통신이 되면서도 이게 확실히 나라는 걸 증명을 하라고 한 거야.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있다면 이 손을 들어라!' 하니까 강요하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꼼짝도 안 하다가, 잊어버리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냥 쏜살같이 손이 올라가더라 이거야. 그래서 내 안의 근본은 자기 조상이자 자기 자불(自佛)이자 주인공이자 모두가 둘이 아니라는 그 원리를 너무 잘 알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밉다고 생각하면 그렇게만 퉁하니까 그것도 요량이 있어야 돼. 강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정신계가 한 단계 위이기 때문이야. 나를 과거로부터 진화시키면서 형성시켜 온 자기인데, 지금 현재 나는 자(子)란 말이야. 그 한 단계 아래란 말이야. 형성시켜 온 자기는 '부(父)' 가 되고 현재 나는 '자(子)' 가 되지.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더러 '이것 좀 올려 봐' 이렇게 한다면 그거 되겠어? 그러니 강요를 하지말고 그냥 친근하게, 그러면서 간절하게 하는 거야. 알았지?

마인드컨트롤과 '관' 의 차이

문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 해 나가다 보면 불교를 처음 대하는 이들과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나가는 방법과 저희가 살아가는 방법에 다른 점이 있다면 주인공을 알고 모르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는 항상 마인드 콘트롤로 모든 일에 결정을 내리고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 하며 살아가는 것과 그가 자기의 마음에 대고 물어보고 매사를 결정짓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답 이 마음 공부는 자유인이 되는 길입니다. 왜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악이냐 선이냐 한다면,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놨을 때, 그 두 가지가 다 없는 데서 내가 자유스러운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예가 있었어요. 고개가 돌아가지 않고, 그냥 멈춰 있더라고요. 고개가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프고. 그런데 그 사람이 고개를 돌린 채 나한테 와서 그냥, 부처님한테 가서 절을 하는 거라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고개도 안 돌아가는 사람이 나한테 절을 얼마나 공손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했죠. 거기는 내가 깔고 앉은 방석밖엔 없는데, 참,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나같이 무지랭이 같은 사람 앞에 그것도 처사가 저렇게 지극하게 절을 하니 세상에 참,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는 "왜 그렇소?" 그러니까 고개가 돌아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누가 옆에서 탁 치니까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러는데 그냥 고개가 휙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고개가 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얼 하고 자시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서로 사랑하고 자비스럽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둘이 아니게 볼 수 있고 둘이 아닌 행을 그대로 한다면, 모두가 나 아님이 없고, 내 아픔이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으니 하나도 버릴 게 없고, 나다, 너다 할 것이 없이 바로 모두 나이기 때문에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의 병이 낫는 겁니다. 이 뜻을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 법이란 묘하고 슬기롭고 정말 아무것도 붙지 않는 그 자리에서 눈은 샛별같이 떠지고 한 생각은 불끈 솟는 무조건적인 생각만이 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꼭 하겠노라 하고 주먹을 불끈 쥘 때 마음 속에서 정말 처절한 눈물이 흐르지마는 눈은 더 똥그랗게 떠지고 눈에서 불이 번쩍 나는 그러한 무조건적인 생각이 생명을 살리는 힘입니다.

담 넘어가듯 주인공이 해 주겠지 하는데 그렇다면 주인공이 따로 있고 여러분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혜 물리가 터지면 그걸 알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네가 있다는 것을 네가 증명을 하는 거지, 그게 관입니다. 또, 지금 내가 무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이거는 꼭 해야만 되겠다 할 때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거기에는 아무 이유가 붙지 않아야 된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더불어 일체가 하나임을 모르고 내가 혼자라는 생각, 나만의 문제에만 끄달리고 사는 것과, 일체가 주인공의 나툼임을 알고 믿고 관하는 그런 삶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량으로 붙들거나 매이지 말고 그 자리에 일체를 놓고 가는 그런 떳떳한 자유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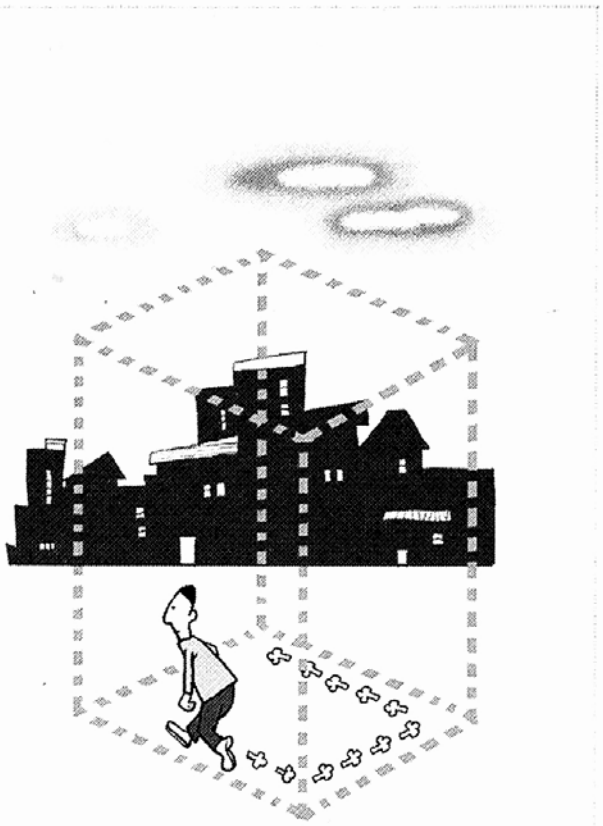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은 체 없어 걸릴 것이 없어요

악도 선도 다 놓았을 때 자유로워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奉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춤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융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0047

대한불교 조계종 불지촌 개원 인사 말씀

귀의삼보 하옵고
신도님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함이 깃들기를 기원하오며 몇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금번에 소납이 포교원력으로 서울시 강남구 청담 1동에 대한불교 조계종 불지촌이라는 교당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불지촌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신도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소개 있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특히 불지촌에서는 선기공 정각회의 활동으로 신도님의 건강상담에 주력하고자 하오니 많이 알려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불지촌 일과표 문의처 02-3444-4376

AM 10:30~AM 12:00 사시불공						
역학 개인지도반 : 매일 오후 12시 부터 오후 1시 30분 까지 사주정설 강좌와 관상학 강의						
오후4시 부터 오후5시 까지	기수련강좌	역학강좌	선체조	범패강좌	선체조	다도법회
	月	火	水	木	金	土
건강상담개인지도 매일 3명으로 제한, 1개월 코스, 일주일에 3회 수련 지도 오전 9시~10시 30분 [1명] 오후 3시~4시 30분 [1명] 오후7시~8시반[1명]						
PM 6:30 ~ PM 7:00 저녁예불						

서울시 강남구 청담 1동 126-64F TEL : 02-3444-4376
· 홈페이지 : WWW.BULLJICHON.COM 한글 도메인 주소 : 수산스님.COM
· 오시는 길 : 영동대교 입구와 청담사거리 사이 프리마 호텔 맞은편 조흥은행 골목길에 들어서면 불지촌이 보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지촌 주지 배수산 합장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규격 50.000원 / 구인 · 구직 규격 4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구운 마늘환
100% 토종 구운 마늘
- 심한 피로/정력 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 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299-7700

평생같이 수행하실 분 모십니다
비구,행자 스님하실 분
노부부나 노보살님 또는
기도생활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561-6644
054)632-3183

부처님사리가 봉인된 청정도량에서 함께 정진할 스님 될 분이나 불자 몇 분을 모십니다. 숙식등 무료제공
054)858-0134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포교당 운영하실 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011)953-1420

모십니다
부전(비구)스님
▷경북 칠곡 팔공산
조계종 고찰
011)9360-7922

대입시험 합격성취
◉특수비전 ➡ 신비한 위력의 힘
◉수십년간의 전통 80%이상 효험
※ 효험 없으면 100% 환불
천년사찰터 부처골 **지장선원** 혜봉합장
054)383-8553 011)9585-4908
농협 703088-52-037905 이민택

원조농산 (어성초 · 삼백초)
덕유산 **해발 800m**에서 재배한 신비초! (순수한 자연산)
어성초 · 삼백초 차 (건조 600g) **4인가족 1달분 4만원**
❖효능 : **청혈작용, 독소제거,** 면역력증가,
뇌졸증예방, 중풍 · 치매예방, 변비,
다이어트, 알레르기 체질개선, 당뇨, 혈압 등
서울지사 02)508-0867
011)479-0633
어성초 · 삼백초 동우회원 모집

연꽃그림에 부처님 말씀담아 드립니다
- 한지에 수묵담채화
- 크기 : 소, 중, 대, 특대
- 종류 : 미표구, 족자, 표구액자
- 가액 : 아주 저렴한 가격

각종 보시용, 도반 선물용, 포교용
※ 사찰행사 시연전시 접수중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천하 명산에 귀한 산삼이 귀한 인연을 찾고 있습니다
011)829-905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가족처럼 지내실 분
· 비구니 도량 입니다.
· 꼭 오실분만 전화 주십시요
▷경기도 부천시 도심의 포교원
032)612-6917

부전스님 비구스님 모십니다
▷ 태종사
033)342-7444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작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부전스님 모십니다
▷ 보문사
011)422-6757
041)545-6531

부전스님 모십니다
▷ 50세~63세 미만
책보고 시식할 줄 알면 됩니다
054)452-0845
011)539-0845

찬불가 피아노 렛슨
피아니스트 도연
◇ 초보 찬불가 피아노 3개월 완성 ◇
◇ 찬불가 합창반주반 ◇
◇ 가요 · 팝송 · 가곡연주반 ◇
클라식과 째즈를 응용한 예술적 연주를 배우실 분
도연피아노학원
02-741-2214/018-272-2815
◇ 직업연주반 ◇
피아노 전공자만 가능
에드립 및 째즈와 클라식과 실용음악을 응용
◇ 피아노과 입시생 실용음악과 입시생 ◇
■ 연주를 들어 보신 후에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종로 3가 지하철 앞 (1,3,5호선)대각사옆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금륜정사
- 법 명 : 덕 현
- 주 소 :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회암 2리 561-10번지

탈종을 공고 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보령제약
주부 사원 모집
- 연령 : 35~58세
- 주 5일 근무, 10시~17시까지

02)2235-7512
(2호선, 6호선 신당역)

초빙합니다
- 기도스님(비구니)
- 철학 아시는 분 환영

▷ 울 산
052)254-6222
052)254-5859
016)9665-6222

거제도 노자산 혜양사
▷사무원 보살님 구함
055)633-2178

초빙합니다
- 기도스님(비구니)
- 철학 아시는 분 환영

▷ 울 산
052)254-6222
052)254-5859
016)9665-6222

불 사
전년 고찰 북원 불사에
이천만원 보시하시면
겉에서 명생 모셔 드립니다
공덕주(학주보살) 모십니다
농협 703088-52-037905 이민택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89
부처골 **지장선원**
054)383-8553 011)9585-4908

요도성음 - 부모님께 건강을 찾아드리세요!
木목酵초 수액원기시트 의약품 외 승인
체내에 독소 배출 몸안에 독소는 만병에 근원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뇌, 어깨결림, 허리, 무릎통증, 교통사고 후유증, 장기간 약물 복용하시거나 손발이 저거나 저리거나 시리고 쑤시는 분, 산후조리 및 자고 나면 손발이 붓는 분
◇증 풍 : 마비가 온 손발의 부기가 빠집니다
굳어진 근육이 풀려져 불편함이 없어져 몸이 기분합니다
삼보기업
TEL : 02)2279-2715 H·P : 011)397-2715

금강미륵사
○ 비구니스님을 모십니다 (20~30세)
○ 새로 창건하는 "미륵불탑사"로 제주에서 처음 관광협회에 등록되는 관광사찰 평생을 수도할 호조건임(금연각)
○ 위치 : 제주 무릉 1리(조계종 사찰)
연락처동 011)9089-3538 창건주
064)792-5808
금강소원미륵사 합장

사 찰 안 내
- 위치 : 군산시내 10분 거리
- 법당 주산포 21평
- 요사체 신축건물 50평 지방문화재 3층 석탑, 대지 400평 등기필 있음. 동내를 끼고 있으며 경관이 수려함. 심아 보일러 태양 온수기 설치
- 가액 2억 6천 (절충 가능)

011)671-5161
063)451-2410, 451-5161

지리산 토굴터
- 경남 함양 마천
- 부지 : 2583평, 대지 : 100평
- 특징 : 600고지, 천왕봉안대
- 가액 : 3,000만원

055)963-4965
011)9542-9060

홍삼액 제조기
저렴한 가격으로
홍삼액을
드실 수 있습니다
▶ 판매처 : 백운파낙스
공장 053)762-2211

포교원 안내
- 교통조건 최적
- 명륜역, 동부시외터미널 근접 온천동 요지
- 4층 45평, 큰방 2, 삼존불탱화, 지장 108불
- 시설비 : 2500만원
- 보증금 : 2500만원, 월 20만원

011)563-4454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동대신동
- 대지 : 200평, 절 신축 법당, 산신당, 요사채 고급
- 특징 : 교통편리(버스정류소 50m)고목,대나무 울창
- 가액 : 4억 8천

051)245-4012
011)617-4013

전통황토방

발명특허 제 300446호
신기술 개발 벤처 기업
흙은 만물의 모체다.
천연적인 황토로 APT나 주택을 시공하며 도배나 장판을 깔지 않고 흙에서 자유로이 생활 할 수 있음
(주)지정황토산업 032)427-6644~5

일을 하고 싶은 분을 몇분 찾습니다
일을 하실 곳은 공기 맑고 아름다운 충남 금산에 있는 조용한 가든(식당)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어 가족 같이 지낼 불자님을찾습니다.
보수는 상담 후 본인의 능력에 따라 드리겠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연락주십시오.
충남 금산 041)753-8220

사찰 안내
- 대지 192평
- 요사채 70평, 법당 20평
- 방 6개, 욕실 2개
- 주방 3개, 거실 3개
- 법당단청 했음, 미륵부처님 모셨음 산새 수려함 큰스님 병환으로 급매
- 가액 3억 5천 답사후 결정

031)952-7905

사찰안내
- 법당, 응접실, 방 7개
- 창고 1, 부엌 2, 화장실 2
- 가액 : 1억 5천만원
- 전세 : 1억
- 서울 불광 1동 산 42번지

02)384-5060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47-5
- 대지 : 1000평, 임야 : 1만평
- 신축 대웅전 : 20평
- 요사채 : 30평
- 실투자 : 2억 7천만원
- 가액 : 1억 7천만원
- 연락처 : 장흥군 관산읍 죽교리

영천당 061)867-2878

사찰 안내
- 경북 문경시
- 법당 : 25평
- 요사채 : 30평
- 부지 : 130평
- 가액 : 1억 6천만원

011)506-6733

학인모집 (통신생 포함)
- 과 목 : 풍수, 역학, 한의침술
- 자 격 : 학력, 연령제한 없음
- 각과정 : 3개월 졸업, 수료증 수여
- 강 사 : 스님(불교대 및 승가대 교수)
- 현재수업 진행 중, 학인에 따라 진행시간 조정 함

기숙하면서 수업가능, 출가자 지원과 각과목 개원시도 협조함
주소 : 전남 나주시 영산동 269-6 원통사 승가대
☎ 061)334-9930
H · P : 016)639-9167

정정 및 사과
대한불교신문 제487호(9월 26일자) 2면 용산당 대포교사 부음 광고 중 "대구 신도부회장 이우석"은 사실과 다름으로 이에 정정하며 본인께 사과드립니다

용산당 대포교사 장의위원회
문도대표 효선 합장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월광공원)
- 대지 : 단층건물(현대식양옥)
- 법당, 방 5개, 거실, 주방, 욕실, 후불, 신중, 산신탱화
- 매매 1억 시설포함
- 임대 보증금 5백 월세 4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53)632-1877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에서 택시로 20분거리)
- 부지 : 건물 2동 논, 밭 6000평
- 특징 : 산세수려하고 송림 울창한 적정처. 주위에 송이버섯 많이 남 꽃나무 유실수 다수 정원 잘 꾸며져 있음. 전기 전화 있음 가제도구 다 줌
- 가액 : 6,500만원 절충 가능

051)257-0052/018)762-4387

토굴 안내
- 대지 : 189평
- 법당 : 22평 • 요사 : 35평
- 수목다수, 전원주택 사용가능
- 이천시내에서 5분거리
- 가액 : 1억 1천(융자 1천만원 별도) (전세가능 5천만원)

031)634-2136
018)309-1760
※ 특이사항 : 묵언이 좋은것 아닙니까

사찰안내
- 위치 : 밀양 근교
- 임법당 대지 약 100평
- 보증금 천만원 (시설비일체 양도함)

H·P 011)875-0730
- 문의 : 오전 8시~오후 5시 사이 장난 전화 삼가 바랍니다

목조 건축물 보수
사찰 한옥, 통나무, 목조, 보수공사전문
1. 방충, 방염성 방부제
2. "곰팡이 방지 및 제거제, 퇴색방지 발수제"
3. 부식된 목재 복원

02)3474-6232/031)479-2940
http://www.dongwhaind.co.kr
(주) 동화특수 산업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 치 : 서울시 강남 소재
- 대 지 : 108평
- 법 당 : 108평
- 요 사 : 방 3개
- 보증금 : 6천만원 월 350만원
  ※ 내부시설은 최고 A급이며, 시설비는 답사 후 결정
- 위 치 : 경북 영주시 소재
- 대 지 : 600평
- 법 당 : 20평
- 요 사 : 30평
- 양도가 : 1억 8천
  ※ 뒤는 산세 좋으며 교통은 요지 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집 안내
- 위치 : 경남 의령 봉수면 청계리 976번지 맑기
- 대지 : 140평
- 특징 : 목조 기와집, 총 4채
- 두채를 한집으로 사용(두채로 나눌 수 있음)
- 행랑 두채(같은 평수,거실 사용) 정남향, 마당,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 방 3개
- 좋은 목재를 썼고 정경이 좋음 물 1급수
- 가액 : 답사 후 절충

055)573-9883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 앞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 부지 : 2000평, 동강 내리 계곡이 앞에 흐르고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봉황이 연꽃안에 알을 품고 있는 청국이며 경관이 아주 좋음
- 기화건물 : 40평, 방 8개 주방 욕실 법당이 되어 있고 천탑을 조성하기위하여 자연돌 수십톤 확보가 되어있음. 건강관계로 급매
- 가액 : 2억 3천 답사 후 절충

018)533-7780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은행나무 옆
- 법당 : 45평 • 방 2칸
- 주방, 삼존불 • 시설비 : 2500만원
- 보증금 : 1000만원에 월세 80만원

상 원 사
02)895-7512
011)230-7511/033)442-7827

류마티스 와 심장병
관절이 아프고 변형이 되며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찰시에는 주저하지 말고 3대를 이어온 집으로
(초등학생 심장병, 심장판막증 무료)
011)567-9870
051)529-9870

♣ 보 리 수 ♣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 80호
전화 : 778-5345 ·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왜관
- 법당 : 30 (목조포집)
- 요사 : 60평
- 부지 : 1,400평
- 가액 : 5억

- 위치 : 밀양
- 법당 : 15평
- 요사 : 35평
- 부지 : 700평
- 가액 : 1억 4천

- 위치 : 인천
- 법당 : 30평(포교당)
- 요사 : 20평
  ※ 시설비 없음
- 가액 : 6천(전세)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사량면(사량섬)
- 부지 : 임야 3800평
- 종교시설허가용지 : 400평
- 법당, 요사채 : 35평
- 가액 : 1억 3천만원

※ 전면 청정해역 바다 뒷산 산세수려하고 계곡물이 아주 좋음
011)845-3430
017)844-9448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대전에서 30분 거리)
- 부지 : 363평 법당 15평 요사채 30평 창고겸 화장실 7평 답사 후 가격절충

011)455-6198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군포시
- 대지 : 120평
- 건물 : 120평
- 가액 : 5억 3천 (융자 1억 포함) 교통 및 주변 여건 아주 좋음 (물기구 약 5천만원 상당, 무상제공)

안양시 만안구 안양 3동 873-156 신화부동산
031)446-1133
016)356-1133

달마도를 무료로 드립니다.

삼보에 귀의하옵고,
소승이 1000일 기도를 하면서 10가지 발원을 세우고 달마대사도를 하루에 10점씩 그려 청정한 마음으로 불보살전에 삼배올리며 원만히 회향하였습니다.
이생에서 뜻은 아름다운 인연이 다음생까지 이어지길 바라며 달마도를 원하시는 분은 우표(170원) 한장을 동봉하여 우편으로 보내시면 소승이 기도정 정성껏 그린 달마도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보내실곳 우 618-230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134의 1번지 수도암 정암 스님
전화 : 051)972-5687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75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3억 9천만원
- 특징 : 산아래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불교지업종

眞聽無聞 眞誦無繩
<<佛敎의 敎理>>
無我(무아)
諸法無常(제법무상)
諸法無我(제법무아)
一切苦(일체개고)
涅槃寂靜(열반적정)
http://www.moo108.com
Copyright@2001 불교지업종 All rights reserved.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동대신동
- 대지 : 200평, 절 신축 법당, 산신당, 요사채 고급
- 특징 : 교통편리(버스정류소 50m)고목,대나무 울창
- 가액 : 5억

051)245-4012
011)617-4013

암자 및 토굴터
- 지리산 쌍계사에서 1.5Km
- 계곡낀 동남향 경관수려
- 부지조성
- 대지 387평
- 주인직접
- 가액 평당 10만원

011)559-3501

사찰 안내
- 경남 사천 사남면 와룡산 법성사
- 2층 법당, 삼존불
- 1층 요사체, 산신각 별도로 있음
- 경치 좋고 수려하고 조건 좋음
- 대지 : 158평 • 건평 : 65평
- 가액 : 8천만원
- 전세로 할경우 3000만원

011)834-9989
(비구니스님 환영)

포교당 운영 하실 분
- 위치 : 군포
- 상가 45평
- 법당 : 20평
- 방, 주방, 거실 1개씩
- 보증금 천만원
- 월세 50만원

016)278-3783

봉은 불교 미술원
탱화 · 벽화 전문
◇ 천불탱 괘불탱 괄상탱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8금강탱 관음탱(천수천안) 지장탱 감로탱 지옥탱 십왕탱 현왕탱 나한탱(오백나한) 산신탱 용왕탱 독성탱
◇ 무속중합탱(각종족자)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1구 493
TEL : 041)541-3545 H · P : 016)751-3545
홈페이지 : www.bongen.pe.kr
(불모 오재택의 작품사진 2000여장을 보실 수 있읍니다)
불 모 오 재 택

공군 '표준 2호 법당' 건립

수원 10전투비행단 화성사 낙성

12억 들여 2년만에…도서관등 갖춰

수원 공군비행장에 새로운 건축양식의 현대식 군법당이 들어섰다.

공군 제 10전투 비행단(단장 금기연 준장) 군법당인 호국화성사(주지 법사 동진스님)는 9월 23일 석남사 주지 정무 스님을 증명법사로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 성관사 주지 성진스님, 금기연 단장, 남계순 공군참모총장 부인, 불사추진위원장 고경은 대령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성법회를 거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정무스님은 법어를 통해 "지난 1975년 호국화성사를 처음 창건할 당시에는 불사에 쓰다 남거나 버린 기와를 모아 지붕을 이었지만, 지금은 여느 대 가람 부럽지 않은 장엄스런 법당을 갖추게 되었다"면서 "이처럼 커진 국력을 감사히 여기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한편 모든 인류가 돌이 아니라는 동체대비심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공군 예산 10억1천만원과 불사후원금 2억여원 등 총 12억여원의 예산으로 건립된 호국화성사는 동국대 건축학과 조정식 교수의 세심한 설계로 이뤄졌다.

1600여평의 부지에 건평 277평의 구성된 호국화성사는 대웅전 교육관, 도서관(심겸당), 식당, 연못 등을 갖춘 실용성과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함께 갖추었다.

호국화성사는 지난 1975년 전 조계종 종정 청담스님이 안택했으며, 법당이 낡아 97년부터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중창불사에 나선 후 지난 해 8월 구 법당을 철거하고 이번에 신축 법당을 공군 표준형 제2호로 건립했다. 현재 18개의 공군 군법당 이후 건립되는 군법당들은 두가지 표준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된다.



◇9월23일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한 호국화성사 낙성식에서 정무스님이 수월관음상을 점안하고 있다.

호국화성사 주지 동진스님은 "이억수 공군 참모총장님과 금기연 단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계종 포교원, 단양 구인사, 천안 미륵사복지회 등의 후원에 힘입어 새로운 공군불자들의 요람이 탄생되었다"면서 "앞으로 범종 및 도서관(심검당) 불사를 남겨두고 있어 불서, 염주 등 불자들의 소중한 정성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011)9786-7204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인천 황룡사 기공

천태종사찰…2004년 완공

인천지역 포교의 전당이 될 천태종 황룡사(주지 무원)가 23일 인천시 백석동 산 71-2번지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운뎍 스님 등 사부대중 1천명이 동참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법회에서 주지 무원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신라인들이 경주 황룡사를 건립하며 삼국통일을 염원했던 것처럼 21세기 첫 해 기공식을 가진 황룡사가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통일불사 발원도량이 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 4600여평 대지위에 세워지는 황룡사는 연건평 1500여평의 지상 5층 건물로 지어질 예정으로 오는 2004년 12월 준공된다.

이경숙 기자

통일자전거 기금마련

부산 문수사 6일 창극공연

부산 문수사(주지 지원)는 10월 6일 부산 KBS홀에서 통일자전거 보내기 및 청소년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창극 쑥대머리 공연을 갖는다.

국창 임방울의 일대기를 그린 이번 '쑥대머리' 공연은 부산문화기획단과 대한전통 예술보존회가 주최하고 문수사가 주관했으며 부산불교연합회, 불교인권위원회, 감로사 등이 후원했다. (051)623-3648 천미희 기자

범어사 벽파스님 입적

29일 영결식…임종게 남겨



범어사 산내 암자 금강암 회주 벽파스님이 26일 오후 9시 30분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세수 73세, 법랍 52세로 입적했다. 1951년 동산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60년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스님은 세차례의 범어사 주지, 학교법인 금정학원 이사장, 조계종 호법위원장 등을 지냈다.

스님은 열반직전

'生死如是 삶이란 이와 같고
死也如是 죽음도 이와 같으니
畢竟如何 필경에는 어떠한고
昨夜月色寒 어젯밤 달빛은 차가운데
今朝霜滿天 오늘 아침 서리가 하늘에 가득하다'는 임종게를 남겼다.

스님의 영결식은 29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거행됐다. (051)508-3123

부산=천미희 기자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불교대·합창단 운영 거사불교 활성화도

아산불교련 만성스님



현재 20년의 역사와 50개의 회원사찰이 있는 충남 아산시불교사암연합회는 다른 지역의 사암련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그건 바로 사암련 산하에 불교대학과 합창단, 신도회, 청년회, 학생회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암련 산하의 직할 신행단체들과 함께 승속이 하나가 되어 복지사업 및 포교활동에 나설 것"이라는 아산시사암련 회장 만성스님(수암사 주지)은 이런 튼실한 조직을 바탕으로 내년까지 자체 불교회관을 건립해 건물 내에 불교대학과 신행단체 사무실은 물론 불교 장례예식장, 미혼모 시설, 유치원 등 복지시설을 갖출 것을 발원하고 있다.

"시민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현재 불교회관 부지를 시내에 물색중입니다. 4억여원의 부지매입이 끝나는대로 불교회관 건립 불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장례예식장 · 유치원 추진

불교회관 건립 원력 세워

산하 단체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단체는 4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영산합창단. 10여명의 상임지도법사 스님들과 함께 순번제로 인근의 천안 소년교도소과 개방교도소, 군부대 등을 매주 한번씩 방문해 법회를 보는 등 사암련의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하는 자원봉사단체이다. 합창단은 천안 각원사, 보명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연합합창제를 여는 등 문화포교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 3기 70명이 재학중인 불교대학은 지역 인사들에 대한 포교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여기서 배출된 300여명의 불자들이 구성한 신도회에는 충남도의회 김재봉 의장, 이길영 아산시장, 이석화 아산경찰서장 등 지역 유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거사불교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매년 초파일 법회를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대대적으로 거행하고 성도재일 기념 고승초청법회를 봉행하는 한편 6월에는 남산 충령각에서 호국의달 기념법회를 거행하는 등 충절의 고장에 맞는 행사를 지역주민의 축제로 승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아산사암련은 문서포교에도 관심을 기울여 2년전부터 매달 '충남불교' 소식지를 발행, 지역불자들의 눈과 귀 역할을 하고 있다.

만성스님은 "아동, 미혼모, 장례복지사업 등을 통해 지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는 불교를 만들겠다"며 오늘도 포교불사를 위해 촌음도 쉬지 않고 있다.

아산=김재경 기자



◇9월23일 해운대에서 3당 대표와 부산지역 유지, 시민들의 높은 관심속에 거행된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성공기원 팔관회.'

부산 팔관회 성황

2만여명 참여…지관스님 계사로 팔재계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회장 성오)는 9월 23일 해운대 백사장에서 2002년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기원 팔관회를 봉행했다.

'우리 고장에서 치뤄지는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개최를 위해 부산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는 취지로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인 지관스님을 전계사로 2만여 사부대중에게 팔재계가 설해졌다.

이날 행사에는 새천년민주당 한광옥 대표최고위원 이회장 한나라당총재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명예총재 등 각당의 대표들이 대거 참석 "부산아시아 경기대회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각 당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팔관회를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문화행사로 시에 신청해 놓은 부산불교연합회는 팔관회에 문화적 요소를 접목해 현대적 불교축제로 팔관회를 복원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부산불교연합회는 10월 중 팔관회가 아시아경기대회 문화행사로 확정될 경우 '아시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팔관회'라는 주제로 각국의 대사관을 통해 아시안권 고승들을 초청, 각국 불자가 참여하는 팔관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울산시 전통사찰 12곳 지정 월드컵 대체 숙박시설 활용

울산시는 2002 월드컵 개최기간 동안 전통사찰과 기업체 연수원, 수련원 등을 관람객의 대체숙박시설로 지정키로 했다.

시는 9월 25일 월드컵 경기기간중의 숙박난 해소를 위해 전통사찰 12곳을 비롯 기업체 연수원 4곳(281실), 청소년수련원 3곳(113실) 등을 대체 숙박시설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시는 전통사찰의 경우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과 숙박난 해소라는 두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아래 경북 경주 불국사, 석굴암, 제2석굴암, 기림사와 경남 양산 통도사, 밀양 표충사 등을 선정하고 울산지역내 사찰 5~6곳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도갑사 성보박물관 문연다

7일 진신사리 친견 · 산사음악회 열려

전남 영암 도갑사(주지 범각)는 도선국사를 기리는 성보박물관 개관식과 이를 기념하는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및 산사음악회를 7일 봉행한다. 도갑사는 신라 4대 고승중 한분인 도선국사에 의해 창건된 고찰로 이날 행사는 제1부 기념식이 오후 2시 도갑사 경내 도선국사 성보관에서 진행되며, 기념식에 이어 성보관과 문화관의 현판식이 봉행된다. 또 저녁 7시부터 도갑사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만등불사 접등과 소리꾼 장사익의 가을음악회 축하공연이 있게 된다. 도선국사 성보관은 1997년부터 추진하여 지하 1층(30평) 지상 1층(97평)의 규모로 유물보관실과 유물전시실, 영상관(문화관)이 시설되었고 도선국사진영, 수미왕사진영, 보현 · 문수보살상등의 불교유물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지방유형문화재 제38호인 도선, 수미비와 수미왕사비 보호각의 현판식도 열린다.

이경숙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현대불교사회문화원
불교지도자 아카데미
(Buddhism Leader Academy)
스피치 과정 모집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보화 시대에
맞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화하고, 설법과 강의,
대중연설에 필요한 자신감을 갖추어 대중포교에
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 모집대상
- 설법과 강의, 대중연설에 자신있는 화술이 필요한 스님과 포교사
◇ 교육기간 : 3개월 과정 총 13회 강의
◇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 교육장소 : 현대불교사회문화원 교육실
◇ 개강 및 강의일정 : 10월 24일 개강
매주 수요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 강의내용 : 불교스피치의 기본원리
(법문, 설법, 강의, 강연, 연설등)
불교스피치 방법론 / 유모어와 불교 스피치
파워스피치 방법론 / 스피치 원고 작성법
불교 및 타종교 유명 성직자의 스피치 사례분석
스피치 실습
◇ 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현재 접수중(2001년 9월 24일부터 10월 20일까지)
- 장소 : 현대불교사회문화원 사무국
- 문의 : TEL : 02) 736-6940 FAX : 02) 720-7097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70 동일빌딩 603호
http://www.mbudsc.org
현대불교사회문화원 교육아카데미

동선 불교 예술대학 1기생 모집
문화예술과 첨단과학의 조화가 활짝 꽃피게될 21세기에 인류 최고의 지적 재산이요, 문화예술인 불교문화와 전통예술의 수련과 체험을 통하여 참다운 건강과 행복을 찾읍시다!
모집 대상
● 일반부 : 불교와 전통문화예술에 관심있는 남·녀불자
● 전문부 : 전문 수행자(스님 법사)가 될 분은 특별지동
(사찰에서 숙식, 행자 생활 가능)
수강 내용
1) 불교기본교리, 예불의식
2) 작법무(바라춤, 나비춤), 학춤, 양반춤, 대금, 태평소
3) 선무도, 붕술
수련 시간
● 일반부 : 매주 화, 금요일 - 1부 : 오후 2시 ~ 4시
- 2부 : 오후 7시 ~ 9시
● 전문부 : 매일 수련

모집기간	수시모집
제출서류	입학원서(본사 양식)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원서교부처	경남 양산시 원동면 서창리 63. 동선사 055)382-5074
접수방법	직접방문, 우편접수, FAX접수, 055)388-0921

경남 양산시 원동면 서창리 63 용굴산 동선사
우 626-830
전화 055)382-5074 팩스 055)388-0921

박희준 식 레이키(Reiki 靈氣)를 아십니까?
3일이면 레이키 요법가 (氣치료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보통사람이 3일만 교육 받으면 레이키 요법가 (기 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으시겠습니까. 여기에 이런 길이 의심할 여지없이 있습니다. 레이키는 우주 근원의 생명 에너지(전기)이고 사랑의 파동입니다. 이것을 끌어다가 질병 치료에도 쓰고 건강 증진에도 쓰는 것이 레이키 요법입니다. 레이키 요법은 미국, 일본등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레이키 요법을 할 수 있는 능력자인 「레이키 요법가」를 단 3일만에 양성 할 수 있도록 개량한 것이 「박희준식」 레이키입니다. 기공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기 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단 3일간의 교육으로 누구나 이런 능력자가 됩니다
1. 레이키 교육 대상자 (교육기간 3일, 교육비 70만원)
*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대체 의료 종사자(침구사 포함), 호스피스 봉사자, 간병인 등
* 각종 만성병 환자나 그 가족, 만성병 환자(특히 각종 난치병 환자)는 병원 치료와 함께 레이키 요법을 병행하면 치료효과가 월등히 올라 갑니다
* 마음의 정화와 정신의 각성을 원하는 분
* 가족의 건강과 행복, 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분
2. 레이키 요법의 효과
사람의 몸에서 생명 에너지인 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치우치거나 모자라는 것이 질병입니다. 레이키 요법은 이것을 신속하게 개선해 줍니다. 따라서 수천가지 질병에 유효하게 작용을 합니다.
3. 레이키를 교육 받으면
* 수천가지 질병에 대한 표준적 치료법이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하루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 부작용이 없고, 환자의 사기를 받지 않으며 자기의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인정증을 발행합니다. 박희준씨는 국제레이키 마스터 명단에 올라 있는 한국유일의 레이키 마스터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나라의 레이키계에서나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정증은 올바른 레이키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교육을받았다는 증명서가 됩니다.
교육이 끝난 1개월 후 에는 원격진단법, 악식제령법 등의 무료 추가 교육이 있습니다.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레이키 마스터 박희준)
전화 : 02) 720-5682 / 팩스겸용전화 : 02) 720-5720
인터넷 홈페이지 http : // www.Reiki.co.kr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늘 그리운 사람
버들강아지 잎망울 틔우고
풀잎끝 작은 숨결
해맑은 동자승의 자비심으로
그대가슴에 온기를 더할때
우연히 만난 그사람
내 생애 있어 최상의 도반이었다.
시간의 길
밖에서 사랑하게 된 그를
함께 있어 늘
그리워 하며...
원장 이영숙 합장
▷ 위치안내 ◁ 1호선 영등포역 하차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입구 직진 200m정도에 오면 우측으로 파란색 간판 레스토랑(마음과마음)을 약간 지나 맞은편 좌측 골목 항림 빌딩 2층 204호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 대표전화 : 02) 679-5902

교육연구 · 컨설팅 · NGO 지원 전문인력 양성

'참여불교 아카데미' 10월말 발족

"불교시민운동 위상정립…인재난도 숨통"

사찰, 불교신행단체, 불교시민운동단체 등 불교계 각 분야를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처음으로 설립된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부설 교육기관인 '참여불교아카데미' (준비위원장 박세일 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를 10월 31일 발족시켜 불교계 전문인력 양성, 불교사회참여의 이념 및 방법론 연구 개발, 불교NGO 사회참여모델 개발, 불교시민사회운동 위상정립, 일반 시민사회운동의 영적 복지 증진 등에 나설 계획이다.

윤천수 정일감정평가법인 대표와 임동주 정신문화연구원 교수가 이사장과 원장을 각각 맡아 운영에 나설 예정인 참여불교아카데미는 상임운영위원회 아래 교육연구분과(분과위원장 김종명 고려대 강사), 컨설팅분과(분과위원장 유필화 성대교수), NGO지원분과(분과위원장 김태제 경기불교회관장)로 구성된다.

연구분과는 아카데미 강좌 및 교육프로그램 심의연구, 중장기 전문교육프로그램과 교육교재, 강사진, 정보통신 교육개발을 전담하며 컨설팅분과는 종단 및 사찰, 불교단체 컨설팅, 각종 프로젝트의 추진을 맡는다. 또 NGO지원분과는 불교NGO 인큐베이팅 지원과 교육시설 및 기자재 확보 등 물적 지원, NGO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등을 담당한다.

참여불교아카데미는 11월 22~24일 북악파크호텔 세미나실에서 주요 사찰 관리직 종무원 및 소임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제1기 경영관리자 과정 '21세기 사찰모형 탐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육불사에 들어간다.

이어 12월 5~8일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종교문화탐구 1 '이슬람과의 대화' 강좌를 진행하며, 내년 1월 10일~2월 1일 강의실에서 제1기 불교실무인력 양성 인턴쉽 과정을 개설한다. 또 2월 20일~4월 17일 강의실에서 '21세기 세계의 흐름과 불교의 대응'을 주제로 참여불교 사상강좌를 열고 4월중에는 '초기불교로 살펴 본 21세기 한국불교의 정체성' (가안)을 주제로 발족기념 심포지움도 개최할 계획이다.

재가연대는 아카데미의 교육전용공간 마련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0 미래불교 육성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인재양성 및 포교관련 사업기금인 '부루나 기금'으로는 강원교육 현대화 지원 프로젝트를, 교단의 자정 및 청정성 회복을 위한 '우팔리 기금'은 승려 노후복지제도 지원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와 관련 재가연대 이영철 사무처장은 "오는 10월 31일 참여불교아카데미 발족식 및 후원의 밤 행사를 시작으로 미래 한국불교의 중흥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인재양성 불사 및 청정교단 만들기 지원활동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02)725-6231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등산대회 북한산 회룡사(주지 혜주)의 스님 및 신도 500여명은 9월 23일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의 북한산국립공원 관통저지를 위한 제1차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룡사 불자들은 회룡사를 지나는 등산객 및 시민들에게 반대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어 신도들은 반대운동 글귀를 적은 현수막과 깃발을 들고 사패봉 정상까지 등산하며 홍보용 리본을 부착했으며, 정상에서 현 계획노선과 대안노선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의를 다졌다. 김재경 기자

해외거주 국제포교사 한국문화체험

15~18일 조계사 등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가 주최하고 조계종이 주관하는 해외거주 국제포교사 초청 한국문화체험이 10월 15~18일까지 조계사, 부석사, 해인사, 불국사, 석굴암, 안동 하회마을, 청풍문화단지 등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 초청되는 국제포교사는 조계종 18명, 원불교 6명, 태고종 3명, 진각종 3명 총 30명이다. 국제포교사들은 한국문화체험 행사에 참가하여 상호 정보교류 등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국외로 파송될 예비 포교사들과 네트워크도 형성하게 된다.

김원우 기자

종교여성단체 '호주제 폐지' 운동

11일 국회서 '여성행진'

불교여성개발원 등 종교계 여성 단체들이 연대해 호주제 폐지 운동에 나섰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 6대 종교 20여개 단체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종교 여성 연대' (이하 종교여성연대)를 구성, 11일 오전 10시30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종교 여성 행진'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호주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주제로 한 수원 YWCA 연극팀의 연극과 원불교 풍물패의 사물놀이에 이어, 국회에서 지하철 여의나루역까지의 행진으로 진행된다.

종교여성연대에는 불교여성개발원을 비롯해 상생세상을 여는 원불교여교무회, 천도교여성회 후천개벽실천모임, 기독여민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호주제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6대 종교 20여 단체는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6차례의 회의를 열고 호주제 폐지에 관해 논의를 벌여왔다. 불교여성개발원 김선미 간사는 "종교인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할 때 호주제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종교여성단체들의 생각"이라며 "앞으로는 이들 단체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해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개신교계 반대로 원주경찰서 경승실 불상 봉안법회 '진통'

원주지역 개신교계가 원주경찰서 경승실에 불상을 봉안한 것과 관련, 반대시위를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원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일휴스님)와 원주경찰서경승위원회(실장 원행스님)는 9월 28일 개신교 신자 500여명이 불상봉안을 반대하는 시위를 서내 마당에서 벌이는 가운데 원주경찰서 불상 점안법회를 거행했다.

이에 앞서 원주기독교연합회 산하 교경협의회(회장 오황동)가 9월 21일 긴급 조찬모임을 갖고 "불상설치는 종교간의 갈등, 관공서와 개신교간 대립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공익성을 해치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포교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원주경찰서 경승실장 원행스님은 "개신교계 일부 목사들의 편견으로 자칫 종교간의 갈등이 일어날까 우려되지만, 포교와 정서안정이라는 경승실 본연의 목적에 맞게 원만한 경승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구청직원들 법당난입 '물의'

성남 무심정사 "사암련과 연대 강력대응"

성남시 중원구청 직원들이 사찰 법당에 난입해 물의를 빚고 있다.

9월 6일 중원구청 직원 5명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과 대동해 무심정사(주지 청관)의 대웅전 불단을 뒤지고 영단에 모셔진 납골을 임의로 꺼내 강한 항의를 받고 있다.

특히 무심정사는 납골당 신고 문제로 중원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는 점에서 이번 경찰과 구청직원의 강압수색에 적잖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 무심정사는 99년 7월 조성해 운영중인 납골시설을 최근 증축하고 지난 4, 6월 두차례 중원구청에 납골당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중원구청은 7월 10일 "도심공원법에 의거해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했다.

무심정사 정상배 사무장은 "사찰의 허가도 없이 불단과 영단을 훼손하는 것은 불교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사암연합회와 연대해 강력하게 하겠다고"고 밝혔다. 정 사무장은 "납골당 낙성 행사를 한 6월 23일까지도 문제를 삼지 않았던 중원구청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원구청 관계자는 "적법절차에 따라 납골기수를 확인하기 위해 법당에 들어간 것"이라며 "인근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심해 사찰 내 납골시설이 부적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군종병 집체교육

22~26일 용주사서

조계종 포교원과 군승단은 22일부터 26일까지 수원 용주사에서 '불교군종병 집체교육'을 실시한다. 육군 3군 사령부 예하 연대급 이상 부대를 군종병을 대상으로 마련하는 이번 교육은 '신도기본 교육 안내' 강의를 비롯해 발우공양, 목탁 실수 등으로 진행된다.

김주일기자

시립 노인요양원 수탁운영

진각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효암)은 9월 26일 서울시로부터 노원구 상계1동에 위치한 서울시립 노인요양원을 수탁 받아 오는 11월초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노인요양센터인 시립노인요양원은 노인의 정서함양 및 기능회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65세 이상 무의탁 노인들의 진료와 보호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서울시립노인요양원은 1968년 4월 서울시 직영 시립양로원으로 개설, 1983년 2월 시립노인요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 개원된 시설로 연면적 1만9천570여 평의 2층 건물에 거실, 중환자실, 물리치료실, 휴게실, 목욕실, 세탁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70여 명이 입원,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립요양원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이은 서울시 대표적인 노인복지시설로 알려져 왔다.

98년 2월 설립된 진각복지재단은 서울시립노인요양원 수탁으로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진각치매단기보호소 등과 연계한 노인관련 복지서비스 향상과 질적인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경숙 기자

부산 연산경찰서 경승위원들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나섰다

9월 25일 부산 연산동 대우자동차 앞에서 스님들이 음주단속(사진)에 나서 행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연산경찰서 경승위원회(회장 원광 정주사 주지)의 원광스님과 황정스님 등 5명의 경승위원 스님들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음주운전이 빈발할 것을 대비 음주 운전 근절에 직접 나선 것. 스님들이 직접 나서 이같은 활동을 벌인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로 단속 경찰관들과 함께 시민계도에 나선 스님들은 합장으로 운전자를 대하며 단속에 대한 거부감이고 시민계도 효과를 극대화했다.



연산경찰서도 "스님들의 동참으로 한결 부드럽게 음주단속이 이루어지고 계도 효과도 높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도와주세요

암과 싸우는 세살바기



세살바기 미선이가 어른도 힘들다는 암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병명은 '신경아세포종'. 지난해 12월 미선이를 덮친 이 병마가 부모와 언니, 동생의 웃음을 앗아갔다. 특히 부모는 8천여 만 원에 이르는 농가부채로 딸애에게 충분한 항암치료를 해주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도움을 주실 분은 농협(053-01-243778). 예금주는 생명나눔. (02)734-8050

오종욱 기자

四柱命理와 일반 五行術의 限界를 克服시킨
(사주명리) (오행술) (한계) (극복)

六壬來情秘法
(육임래정비법)

「活人專門天役者用」神示
(활인전문천역자용 신시)

★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初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摘示)해 놓았습니다.

改訂增補版

출생년월일시를 묻지않고도 몇시간이나 전화해온 시간이나 가서 만난사람만 보아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먼저 알고 말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천성이 악한지 선한지, ●나에게 이만중 사람인지, 피해나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례인 인지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여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적시(摘示)해 놓아, 미리 그 정황(情況)을 지적하므로써 래인(來人)의 안색(顔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항아상학(=觀相上學)으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로는

- 닥숙인이 올지, 안올지,
- 든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임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을 것인지,
- 디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구속 될인지, 치료 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어제부터 치도기 앞게 될 것인지 성문기 수조물속지 더운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 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형사 당일에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온다면 몇시부터 올 것인지 등등을 매일 매시간 별로 적어 놓았습니다.



아래 책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 육임래정비법 (내가 미리 상대방의 사정을 꿰뚫어 버리는 비법) 350,000
- 육임세밀정단법 (묻는 용건에 대해 소상하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비법) 100,000
- 육임비요형이상법 (귀신침범·신소탈·빙미부정·앞이 되는 날짜를 미리 아는 비법) 150,000
- 육임운명판단법 (사주를 불라도 간단하고 정확히 운명을 감정해 낼 수 있는 비법) 130,000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오행(五行) 또는 법력(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신령·신시(神靈·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농단(弄斷)되지 않도록 스님·음양오행가·신명제자·의사 등 확인 전문천역자(活人專門天役者)에게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 배 달 : 입금 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므로 당일, 또는 그 이튿날 받아 보시게 됩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90-49호 임심빌딩 401호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18989

이 책을 보십시오. 반드시 큰 것을 얻으실 것입니다.
책값이 타(他) 역서(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 될 명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위 책들에 대한 설명회가 아래 지역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사오니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께서는 편리한 곳으로 참석하셔서 활인천역의 당오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서울	02-993-8680,	부산	011-558-5496
대구	053-641-2334,	인천	032-554-3789
천주	063-284-7714,	광주	017-613-7140
수원	031-242-8813,	청주	043-221-2557
대전	042-584-1709,	원주	017-377-7005

고복자 晓 史 도서출판 卜 問 배상
철학박사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회망사 · 승진사 · 구매사 · 시험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소송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인사 · 상면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가격사 · 농경사 · 묘지사 · 기후사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태아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⑫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창령 관룡사 올라가는 길에서 만난 주인 모를 부도.

죽음도 삶의 일부…두려워 말자

감성으로 보는 절

<16>삶의 흔적-부도

침순을 한해 앞둔 어떤 사진가 한분이, 요즘은 죽음을 실감한다고 하면서, '죽음' 이란 문제에 대해 집착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좀 착잡해지는 심정을 느꼈다. 죽음이란게 그렇게 실각한 것일까?

나는 생명에 대해서만은 다소 운명론적이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나 죽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란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늘 태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내 주변에 노목사 한분이 계신데, 이 분은 막가파 목사여서 승용차 운전도 아주 험하게, 그야말로 막가파식으로 하는 분이다. 나는 늘 남의 차를 타고 같이 다는 편이어서 이 분의 차를 자주 타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분의 차를 잘 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내가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죽거나 할 운명이라면, 이 차를 타지 않고 다른 차를 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명은 재차(在車)다' 하고 서슴없이 타고 다닌다. 그리고 조금도 불안해 본 적이 없다. 사람은 목숨에 대해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지, 보약먹고 몸 사린다고 해서 생명을 연장하거나 몸 보신이 되는게 아니라는 게, 좀 그릇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내 기본 소신이다. 죽을려면 길에 지나가다가 빌딩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맞아 죽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라는게 내 운명관이다. 생명과학이 발달하여 인간의 질병이 거의 정복되고, 인간 생명은 크게 연장될 것이라고 해서 조금도 즐거울 일이 아니란 것이 내 생각이다. 인간의 죽음이 질병에서만 오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자연재해도 있고, 인간끼리의 살육도 있고, 대량살상의 전쟁도 있을 수 있다. 지난 9월 11일 미국의 테러사건때 죽은 사람이 보약 안 먹어서 죽은 건 아니지 않은가? 문제는 인간이 죽음에 대해 갖고 있는 두려움과 생명에 대한 애착이 아닐까?

죽음은 무엇일까? 생명 현상의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일까? 아니면 한 평면위에 까망과 하양이 이어진 것과 같은 것일까? 죽음은 경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든, 모든 생명이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통과의례 같은 것이라면 의연히 맞이하되 겸허하게 맞이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사람은 죽음을 슬퍼한다. 코끼리도 그런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산자의 슬픔일 뿐이다. 사람은 주검에 대해 성대하고 화려하게 의례를 치르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산자를 위한 행사일 뿐이다. 죽은 자는 이 세상일에 이미 초연해 있을 뿐이니까. 죽은 자는 '또 하나' 의, 그리고 '또 다른 길' 을 의젓하게 가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성대한 장례나 화려한 무덤이 죽은 자가 가는 또 다른 세계에 꽃길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래전 나는 어떤 이의 죽음을 픽션으로 써 놓은 적이 있다. 우리는 살아 있는 동안에도 남에게 의존해 살고, 죽을 때, 아니 죽어서도 남의 손에 의존하게 된다. 큰 소리 쳐도, 죽어서 남의 신세를 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난 참으로 이상했다. 그것은 한낱 물질일 뿐인 몸땅이를 장식하려는 인간의 허세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그는 죽음을 앞두고 어느 깊은 산 속으로 홀로 들어 간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늦가을이어도 좋고, 아니면 산새들이 저마다 지저귀는 한 철 여름이어도 좋다. 그는 산기슭에 눕는다. 풀이 모포처럼 포근하다. 푸른 하늘에 하얀 뭉게 구름이 둥둥 떠가도 좋고, 짙은 먹구름이 하늘에 두텁게 덮여 있어도 좋다. 풀 잎을 깔고 누워서 하늘을 쳐다 보니 온통 하늘이 그의 가슴 속에 가득 담겨 들어와 마음이 무척 편해진다. 밤이 되니 다소 으스스해진다. 그는 낙엽이든, 아니면 나무 잎이든 긁어 모아 이불처럼 덮는다. 그리고 스르르 잠이 들어 버린다. 그의 시체가 발견된 것은 육개월 후 쯤으로 할까? 그의 몸은 이미 자연이 되어 있었다.

성대한 장례 산자 몫일뿐
죽은자는 세상 일에 초연
산기슭 버려진 부도 하나
최선 다하는 인생 배우게

어느날 창령의 관룡사 올라가는 길목에 이상한 부도가 하나 버려진 채 있었다. "어떤 이의 부도일까? 학덕이 높으신 스님의 부도는 물론 아닐 것이고. 그래, 아마 이 산기슭에서 평생토록 부처님만 섬기고 살았던 어떤 노부부의 무덤일지도 몰라. 그는 아마 부처님의 말씀은 한 구절도 외우지 못한 무지렁이 일지 몰라. 오직 늘 마음속에 부처님 생각과 마음만 가득했을 뿐. 평생을 그러고 살았겠지." 상상으로 가득한 이 부도가 나는 잊혀지질 않는다.

전생(사진가)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그윽한 문자향속 선기 활발

한글대장경의 세계

원감국사집 · 백운화상집

한글대장경의 168번째는 고려시대의 걸승 원감국사(圓鑑國師)와 백운화상(白雲和尙)의 문집이다.

원감국사

송광사 16국사 가운데 6번째 국사(曹溪六世)로 고려고종 13년(1226) 전남 장흥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학문에 밝아 17세에 사원시를 거쳐 19세에는 춘위에 장원하여 영가서기로 부임했다. 바로 일본에 사신으로 가 뛰어난 시재와 문장으로 이름을 떨치기도 했다. 그의 벼슬은 승승장구했으나 불법수행에 마음이 깊어 29세에 이르러 선원사의 원오(圓悟)국사에게 나아가 머리를 깎고 먹물 옷을 입었다.

비구계를 받은 스님은 남쪽의 산야를 돌며 수행의 고삐를 다잡아 머무는 곳마다 불법이 창성했다. 주지 등 소임을 일체 거부했으나 41세가 된 해에 스승의 고유를 받아 경남 김해의 감로사 주지가 되었다. 감로사에 주석하는 동안 수많은 운수납자들이 찾아와 가르침을 받았고 절도 부흥했다. 그러나 6년이 지나서 스님은 조계산 정혜사(송광사)로 자리를 옮겨 활활발발한 선풍을 드날렸다. 스님은 정혜사로 옮긴 직후 시 한 수를 지었는데 이것이 원오국사로부터 조계의 법맥을 잇는 단서가 되었다.

계족산 봉우리 앞에 옛 도량이 있어
지금 오니, 푸른 산은 유달리 빛나네
맑은 시내의 장공설이 절로 여기에 있나니
무엇하러 수다스레 새삼 거량하리.

스승 원오국사가 입적하기 전 충렬왕에게 스님을 수선사의 사주로 추천하는 글을 올림으로 마침내 수선사의 6세사주가 되기도 했다.



교학을 바르게 익히고 선풍을 거세게 일으킨 스님은 적지 않은 시와 문장을 남겼다. 선시에는 활달한 기상의 선승의 체취가 묻어 나고, 제문에서는 간절한 문자향이 풍겨나며 소(疏)에서는 박학한 교학의 기치가 드러난다.

백운경한

화상은 고려말기의 선사로 행적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제자 석찬이 편록한 백운화상어록이 전해 한 시대의 걸승이 남긴 체취를 맛 볼 수 있다. 어록의 서문은 저 유명한 목은 이색(李穡)과 이구(李玖)가 썼다. 이구의 서문에 의하면 스님은 전북 고부에서 태어나 어려서 출가했으며 중국에 건너가 지공과 석옥 등 거장들에게 배우고 심인을 전해 받았다.

●원감국사
백성 · 나라사랑 자취 생생
●백운경한
생사초탈 담백미 묻어나

백운스님의 선풍은 나옹 태고 스님과 함께 임제선에 속하지만 태고스님과는 다른 맛이다. 중국의 석옥선풍을 잇되 태고의 간화선과 달리 간화를 말하지 않은 것이 백운의 독특한 가풍인 것. 백운이 주창한 것은 무심무념(無心無念)이었다. 이러한 백운의 가풍은 그의 어록들에 알알이 스며있다.

여주의 취암사에서 말년을 즐기다 입적한 백운화상의 임종게는 읽을수록 생사초탈의 담백함이 묻어난다.

인생 칠십세는/ 예부터 또한 희유하네/ 일흔 일곱 해를 웠다가/ 일흔 일곱 해를 돌아가거니/ 이른 곳마다 모두가 돌아가는 길이요/ 만나는 곳 모두가 고향일세/ 어찌 나룻배를 몰아/ 빼어난 땅으로 돌아가길 바라랴/ 내 본래 지니지 않았은에/ 마음 또한 머물 곳 없네/ 재를 만들어 사방에 뿌리어/ 단나시주의 땅을 범하지 않으리.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 및 대장경 봉안 불사, 역경후원회 가입 등과 관련한 문의도 항시 받고 있다. 장경각보급 및 캠페인 관련 문의 (02)722-4162, 역경후원회 문의 (02)2260-3893, 역경후원금 온라인 농협 078-02-079975 예금주 강계술(석주스님).

연꽃불자시계



◇ 특별사은품 (달마시계 + 수암옥 108염주)

· 남성용, 여성용 각각 : 119,000원

『불자들만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튼튼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안성 맞춤인 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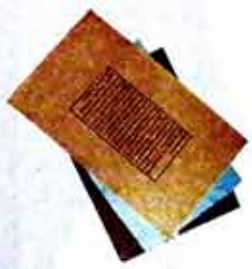
불자용 방석



· 재질 : 면
· 크기 : 약 50cm × 50cm
· 가격 : 20,000원

『법회, 기도하실 때 뿐만아니라 사무실 의자, 자동차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쁘고 실용적으로 만든 방석입니다』

겹다포



· 재질 : 면
· 색상 :
황토색 (크기 : 41cm×68cm)
밤 색 (크기 : 43cm×58cm)
회 색 (크기 : 38.5cm×58cm)
· 가격 : 각 6,000원

『전통적인 방법으로 염색하여 색상이 너무나도 곱습니다』

한방속옷 세트

▽ 여성용
· 소 재 : 면 100% (60수)
· 사이즈 : FREE · 구 성 : 숯, 황토, 쑥
· 3종(숯, 황토, 쑥) 세트 : 19,000원



『한방속옷은 옛부터 전해 내려오던 전통적인 염색법에 의한 한방의류로서, 기존의 인체에 해로운 화공약품으로 염색한 의류와는 전혀 다른 숯, 황토, 쑥등 인체에 유익한 100% 천연 한방약재로 염색 처리한 한방내의 입니다』



△ 남성용
· 소 재 : 면 100% · 사이즈 : 95, 100, 105
· 특 징 : 건강을 위하여 회음부분에 옥가루 부착
· 5종(숯, 황토, 쑥, 도토리, 오배자) 세트 : 45,000원
· 3종(숯, 황토, 쑥) 세트 : 29,000원

옥(玉)건강벨트



· 내용물 :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어댑터, 시가잭, 충전기/ 밧데리 (휴대용 구입시)
· 가격 : 가정용 148,000원, 휴대용 248,000원

우리말 묘법연화경



1. 서품 ~ 27. 보현보살권발품까지 총 27장의 CD를 패키지상품으로 구성하여 15%(270,000원-229,500원=40,500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 정상가 : 270,000원 ⇨ 할인가 : 229,500원

자개모자佛자



『중요 무형문화재 제80호 기능 보유자이신 [illegible] (청계 송방웅) 선생이나전칠기로 제작한 것입니다. 제품의 재질은 최고급 통송에 5번에 걸쳐 나전칠을 한 후 최고급 자개로써 글자를 새긴것입니다. 특히 자개는 빛의 강도와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변화되어 날과 밤에 따라 그 빛이 달리 보이는 묘미가 있습니다.』

· 크기 : 가로 235mm × 세로 560mm × 높이 25mm
· 색상 : 적색, 흑색
· 가격 : 660,000원

Mahamall 불교문화상품전문사이버몰 www.mahamall.co.kr

02)732-1522